

Молгол-Солонгосын 2021 оны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амтарсан хурал

2021 년도 한·몽 공동 학술회의

Молгол-Солонгос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с  
хойш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 тулгамдсан асуудал

한·몽 수교 이후 양국 교류의 현황과 과제

2021.5.27.(목, Пүрэв) 10:00~18:00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түүхийн сан, хурлын дунд танхим

주최: 동북아역사재단 / 한몽 역사고고학자 협의회

주관: 동북아역사재단 / 한몽 역사고고학자 협의회

후원: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түүхийн сан ·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түүхч-Археологичдын Холбоо

2021 년도 한·몽 공동 학술회의

1. 주제: 한·몽 수교 이후 양국 교류의 현황과 과제
2. 일시: 2021 년 5 월 27 일(목) 10:00~18:00 (한국 시간)
3. 장소: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4. 학술회의 일정표

1 부: 개회식(10:00~10:30), 사회: 홍성민(재단)		
시간	행사	내용
10:00~10:30	개회식	환영사 - 이영호(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축사 - 이어홍(주몽골 한국대사) - D. 줄보(몽골과학아카데미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2 부: 학술회의 오전(10:30~12:30), 사회: 김장구(동국대)		
시간	발표자	주제 및 프로그램
10:30~11:10	유원수	한국에서의 몽골어 교육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
11:10~11:50	D.에르텐수렝	몽골의 한국어 교육 30년 성과와 과제
11:50~12:30	이평래	한몽 인적 교류 현황과 향후 과제
12:30~13:30		점심
3 부: 학술회의 오후(13:30~18:00), 사회: G. 에르덴치멕(몽골국립대)		
13:30~14:10	D.막마르	한국 거주 몽골국 국민의 현황과 당면 문제
14:10~14:50	김홍진	한몽 경제 교류 30년: 평가와 전망
14:50~15:30	I.엔흐볼드	한국과 몽골의 경제교류: 도르노드 아이막의 전략 지구 설정 가능성
15:30~15:40		휴식
15:40~16:20	박정후	한몽 정치외교 분야 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16:20~17:00	Ts.체렌도르지	한몽 역사가들의 협력과 역사연구 현황
17:00~17:50		종합토론(박장배, D.사인빌렉트, G.에렉젠 등 참여자 전원)
17:50~18:00	폐회	

주최: 동북아역사재단 / 한몽 역사고고학자 협의회

주관: 동북아역사재단 / 한몽 역사고고학자 협의회

후원: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

Молгол-Солонгос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с хойш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 тулгамдсан асуудал

1. Молгол-Солонгос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с хойш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 тулгамдсан асуудал

2. Огноо : 2021.5.27.(Пүрэв) 10:00~18:00 (Солонгос Цаг)

3. Хурал болох газар Газар: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түүхийн сан, хурлын дунд танхим

4. Хуралын хөтөлбөр

1-р хэсэг: Нээлтийн ажиллагаа(10:00~10:30), Хөтлөгч: Хун Сон Минь		
Цаг	Арга хэмжээ	Агуулга
10:00~10:30	Хурлын нээлт	Нээлтийн үг Ли Ёнху(Зүүн хойд Азийн түүхийн сангийн төлөөлөн удирдах зөвлөлийн дарга)
		Мэндчилгээ Ли Ё Хун(БНСУ-аас Монгол улсад суугаа элчин сайд) Д. Золбоо (Монгол улсын ШУА-ийн Олон улс судлалын хүрээлэнгийн захирал)
		Дурсгалын зураг
2-р хэсэг: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10:30~12:30), Хөтлөгч: Ким Жангү(Дунгүг их сургууль)		
Цаг	Илтгэгч	Сэдэв
10:30~11:10	Юү Вонсү	Солонгос дахь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ба цаашид хөгжүүлэх арга зам
11:10~11:50	Д.Эрдэнэсүрэн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 30 жилд-ололт амжилт
11:50~12:30	Ли Пёнрэ	БНСУ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ба цаашид тулгамдаж буй асуудал
12:30~13:30		Өдрийн хоол
3-р хэсэг: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13:30~18:00), Хөтлөгч : Ж. Эрдэнэчимэг(МУИС)		
13:30~14:10	Д.Мягмар	БНСУ дахь Монгол иргэдий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тулгамдаж буй асуудлууд
14:10~14:50	Ким Хунжин	БНСУ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рилцаа 30 жилд: дүгнэлт ба хэгийн төлөв
14:50~15:30	И. Энхболд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оорондох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рилцаа: Дорнод аймаг стратегийн бүс болох боломж"
15:30~15:40		Завсарлага
15:40~16:20	Пак Жонхү	БНСУ Монгол улсын улс төр дипломат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ба хэгийн асуудал
16:20~17:00	Ц. Цэрэндорж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түүхчд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түүхийн судалгааны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17:00~17:50		Ерөнхий хэлэлцүүлэг(Пак Жан Бэ, Д. Сайнбилэгт, Г. Эрэгзэн болон илтгэгчид бүгд оролцоно.)
17:50~18:00	Хаалт	

Санаачлагч: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түүхийн сан/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түүхч-Археологичдын Холбоо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ч: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түүхийн сан/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түүхч-Археологичдын

Ивээн тэтгэгч : Монгол улсад суугаа БНСУ ЭСЯ

## < 목차 >

한국에서의 몽골어 교육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 (유원수)	1
몽골의 한국어 교육 30년 성과와 과제 (D.에르덴수렝)	11
한몽 인적 교류 현황과 향후 과제 (이평래)	29
한국 거주 몽골국 국민의 현황과 당면 문제 (D.막마르)	41
한몽 경제 교류 30년: 평가와 전망 (김홍진)	55
한국과 몽골의 경제교류: 도르노드 아이막의 전략 지구 설정 가능성 (I.엥흐볼드)	69
한몽 정치외교 분야 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박정후)	81
한몽 역사가들의 협력과 역사연구 현황 (Ts.체렝도르지)	95

## < Contents >

Солонгос дахь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ба цаашид хөгжүүлэх арга зам (Юү Вонсү)	6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 30 жилд-ололт амжилт (Д.Эрдэнэсүрэн)	19
БНСУ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дийн харилцааны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ба цаашид тулгамдаж буй асуудал (Ли Пёнрэ)	34
БНСУ дахь Монгол иргэдий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тулгамдаж буй асуудлууд (Д.Мягмар)	48
БНСУ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рилцаа 30 жилд: дүгнэлт ба хэтийн төлөв (Ким Хунжин)	61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оорондох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рилцаа: Дорнод аймаг стратегийн бүс болох боломж (И. Энхболд)	75
БНСУ Монгол улсын улс төр дипломат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ба хэтийн асуудал (Пак Жонхү)	87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түүхчд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түүхийн судалгааны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Ц. Цэрэндорж)	104

# 한국에서의 몽골어 교육 — 성과의 점검과 미래의 발전을 위한 제언 —

유원수 (전 서울대)

## 1. 몽골어 교육의 전통

한국에서의 몽골어 교육의 역사는 유구하다. 요사(遼史), 고려사(高麗史)에는 고려가 1,000여 년 전인 서기 994년에, 이어 995년에 다시 거란어를 배울 학생을 요에 파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문헌 상 몽골어계 언어를 국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가르쳤다는 최초의 기록이다. 몽골어족 언어 가운데 당대 동북아 최대의 영향력을 가진 거란어 능력이 국가 안보, 외교상 필요했기 때문이겠다. 李美淑(2009)에 의하면 고려 중, 후기에는 역어도감(譯語都監), 통문관(通文館), 사역원(司譯院)으로 관장 기관을 바꾸어 가며 몽골어 인력을 양성하였다고 한다.

정제문(1991) 등에 의하면 조선에서도 사역원(司譯院 1393-1894)에서 몽골어 인력을 양성하였고, 그 결과 모두 278명의 몽학(蒙學) 역과(譯科) 급제자를 배출하였으며, 여러 차례 수정과 증보를 거듭하던 사역원 교재 가운데 1790년 방효언(方孝彦)이 수정 중간(重刊)한 몽학삼서(蒙學三書)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sup>1</sup>

우리나라에서 1890년대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는 몽골어 교육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던 시기이다. 일제의 침탈과 강점, 한국 전쟁이 있었고, 그 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Seong & Song(1998)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를 참고하면 195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국내 몇몇 대학에서 소수의 학자들이 몽골어 연구와 교육을 이어간 시기이다. 이들의 연구와 교육은 한국어 연구와 교육을 위한 것이었고, 알타이어학의 일환으로서의 연구와 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된 학습 내용은 위구르 몽골 문자라고도 부르는 전통 몽골 문자와 문어였으며, 사역원의 교재, 몽골 연대기, 만·몽·한 등의 합벽서는 연구와 교육, 학습의 주요 자료로써 활용되었다.

## 2. 한·몽 수교 이후의 몽골어 교육

### 2.1 대학에서의 몽골어 교육

#### 2.1.1 전공으로서의 몽골어 교육

1894년 조선 사역원 폐지와 더불어 중단되었던 정규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몽골어 전공 교육은 한·몽 국교 수립 3년 뒤인 1993년 3월 1일 단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에 모집 정원 20

---

<sup>1</sup> 宋基中(2006)에 의하면 조선 영조(1724-1776), 정조(1776-1800) 대에는 조정에서 몽골어 역관들의 능력이 미흡함을 걱정하고 이를 향상시킬 방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몽골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던 당시 상황에서 역관들이 특히 구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불리한 환경에서도 이역성과 같이 탁월한 몽골어 실력을 갖춘 역관도 있었고, 역관과 관계자들이 희소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애썼음을 알 수 있는 기록도 있다.

명의 몽골학과가 설치됨으로써 재개되었다. 현재는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몽골학 전공으로 소속 명칭이 바뀌었으며<sup>2</sup> 정원도 30명으로 늘었고, 6명의 전임 교원(몽골어 원어민 교수 2명 포함)이 중심이 된 10명의 교수진이 학부,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몽골어를 비롯한 몽골학 각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설립 이래 470명의 문학사, 17명의 석사, 6명의 박사를 배출하였다.<sup>3</sup>

다시 16년 뒤인 2009년 3월 1일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현 아시아언어문화대학)에 몽골어과(모집정원 20명)가 신설되어 2013년에 첫 학부 졸업생이 나왔고, 그간 학사 136명, 석사 2명, 박사 2명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3명의 전임 교원(몽골어 원어민 교수 2명 포함)이 중심이 된 10명의 교수진이 학부,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역시 몽골어를 비롯한 몽골학 각 분야를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sup>4</sup>

몽골어 전공 교육의 방향은 두 학교 모두 학부에서는 사회 진출 후의 실무 능력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를 수행할 능력을 기르기 위해 몽골어 문법, 작문, 회화, 독해력을 갖추게 하고, 몽골의 사회와 문화, 역사 및 지리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외국어의 학부 전공 교육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sup>5</sup>

한·몽 수교를 계기로 몽골학과, 몽골어과가 설립되고, 국가 안보와 외교를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몽골의 교류 협력의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리고 장차 활약할 인재를 대학에서 양성, 배출하게 된 것은 가장 큰 성과라 하겠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다양한 교재의 개발과 학습용 사전, 그리고 외부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대소 규모의 전문 사전, 비전공 학습자를 위한 몽골어 학습서의 편찬, 각종 국가시험의 몽골어 문제 데이터 구축 등도 역시 매우 중요한 성과라 할 것이다.<sup>6</sup>

<sup>2</sup> 이 글에서는 “몽골학과”라는 명칭도 같이 사용함.

<sup>3</sup> 그중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인은 박상택(2014) 『현대 몽골어 후치사 연구』; 김경나(2016) 『17-19세기 몽골 불교 사원의 다창 연구: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오미영(2017) 『20세기 초 한·몽골 교류 연구: 몽골행(行) 한인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공주임 유병재 교수와의 교신(2020.03.23.; 2021.04.20.-2021.04.28.)

<sup>4</sup>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장재혁(2020) 『21세기 동북아 국제레짐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몽골의 역할: 캐스팅 보트를 중심으로』; 이대학(2021) 『1990년 몽골의 체제전환과 사회 및 종교 변동에 관한 연구』. 학과장 김기선 교수와의 교신(2020.03.23.; 2021.04.20.-2021.04.21.)

<sup>5</sup>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몽골학 전공 이수로드맵 ([https://www.dankook.ac.kr/web/kor/-257?p\\_p\\_id=DeptInfo\\_WAR\\_empInfo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pos=1&p\\_p\\_col\\_count=2&DeptInfo\\_WAR\\_empInfoportlet\\_viewNo=2&DeptInfo\\_WAR\\_empInfoportlet\\_action=view](https://www.dankook.ac.kr/web/kor/-257?p_p_id=DeptInfo_WAR_empInfo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pos=1&p_p_col_count=2&DeptInfo_WAR_empInfoportlet_viewNo=2&DeptInfo_WAR_empInfoportlet_action=view) 2021.04.19. 방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몽골어과 교과 과정 (<http://mongolian.hufs.ac.kr> 2021.04.19. 방문)

<sup>6</sup> 연구진이 학과 교수진과 사실상 일치하는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편찬 간행한 『동북아유목문화대사전』, 현재 집필 중인 『몽한대사전』 과 기획 단계에 있는 『한몽대사전』, 특수외국어진흥법의 지원을 받아 편찬된 몽골어 학습서 *МОНОЛ ХЭЛ* (1,2). 한국외국어대학 몽골어과는 2018년 특수외국어진흥법 시행 학과로 선정되었으므로

오늘날 학생들은 몽골, 내몽골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인 교수들 뿐 아니라 경험과 능력을 갖춘 원어민 교수들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덕에 다양한 몽골 매체에 접속하기 쉬워지고, 학교 안팎에서 몽골 사람을 접촉할 기회도 풍부해 조건의 역관들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단 몇 해 선배들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유리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 2.1.2 비전공 몽골어 교육: 서울대학교의 사례

한·몽 수교 후에도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비전공자를 위한 몽골어 교육은 지속되고 있다. 서울대학교를 예로 들면 인문대학 언어학과에서 몽골어 강의를 맡고 있는데, 학부에는 몽골어(1)가 히브리어(1), 이태리어(1,2), 스와힐리어(1,2), 핀란드어(1,2)와 함께 교양강의로써 개설되어 있고, 대학원에는 몽골어 강의가 특수 언어 연습(1) 또는 특수 언어 연습(2)라는 과목에 배당되어 만주어, 산스크리트어, 라틴어, 희랍어와 번갈아 가며 개설된다.<sup>7</sup>

한·몽수교 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현대 할하 몽골어가 학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교과서 외에도 학습자의 성향과 희망에 따라 각종 서신을 비롯한 수기 자료, 인터넷 자료, 예를 들어 몽골어 신문, 텔레비전의 기사와 칼럼, 페이스 북, 트위터의 텍스트 등도 교재에 포함되게 된 것이라 하겠다.<sup>8</sup> 이밖에 시청각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몽골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돕고 있다.

그러나 강의가 학부와 대학원에 한 학기씩 밖에 할당되지 않아 수업은 매번 문자를 익히고, 몽골어의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데 치중하게 된다. 이렇게 한 학기씩 밖에 시간이 배당되지 않는 데는 몽골어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수가 이태리어, 스와힐리어, 핀란드어의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비해 적은 것이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대학원에서 몽골어는 만주어, 산스크리트어, 라틴어, 희랍어와 같은 고전어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짐작할 수 있겠다.

## 3. 발전을 위한 제언

유원수(2020)에서는 미처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웃나라 일본에는 국립대학인 도쿄외국어대학 언어문화학과와 역시 국립대학인 오사카대학 외국어학부에 몽골어 전공과정<sup>9</sup>이 개설되어

---

전문 연구서, 전문 분야 사전 편찬 간행이라든지 학생들의 몽골 연수 기회 확대 등이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몽골정부가 인정하여 단국대학교 장충식 명예총장(2005), 장호성 총장(2014), 이성규 교수(2016)에게 북극성 훈장(Алтан гадас одон)을, 고 강신 교수(2007), 송병구 교수(2016)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김기선 교수(2016)에게 우호친선 포장(Найрамдал медаль)을 수여한 바 있다.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www.kri.go.kr/kri2> 2021.04.22. 방문); 단국대학교 몽골학전공 누리집(학과연혁)(<https://cms.dankook.ac.kr/web/mongol/-6> 2021.04.22. 방문)

<sup>7</sup>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박상철 교수와의 교신(2021.04.20.)

<sup>8</sup> 참고로 알타이어 중 만주어는 언어학과 학부 2학년에 전공강의로 개설되어 있고, 튀르크어는 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서아시아 문명전공에 터키어(1,2), 중급 터키어(1,2), 고급 터키어(1,2)가 개설되어 있다. 이용성 교수는 그간의 터키어 교육의 공로와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터키언어협회의 대통령 표창(2017.05)을 받은 일이 있다. 박상철, 이용성 교수와의 교신(2021.04.20.)

있고, 각각 100여년, 96년의 전통을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와 여러 기관 단체들이 사립 대학인 두 학교의 몽골어, 몽골학 전공 학생과 연구자들을 위해 지금까지 베풀어 온 것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립인 일본의 대학들을 참고해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더 지원하면 좋을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학생들은 젊은 나이에 몽골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만 더 베풀어 단 몇 명이라도 더 언어연수를 보내고, 한국과 몽골에서 석사,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교수를 단 한 명이라도 더 충원해 주면 장차 국가 안보와 외교를 비롯한 한·몽 교류협력의 다양한 부문에서 종사할, 더 높은 몽골어 실력과 몽골 사회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춘, 더 많은 정예들이 배출될 것이 기대된다.<sup>9</sup> 학생이 자기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면 졸업 후에 어엿한 직장에 취업하거나, 좋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느끼면 학열은 자연히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과 몽골의 경제가 함께 장기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장학금 혜택을 늘리고, 몽골에서의 연수기회와 유학기회를 제공하며,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보수가 있는 각종 연구프로젝트 참여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학교 모두 지난 1년간 석사 학위 졸업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은 몽골어와 같은 군소 언어 전공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 지원이 시급함을 경고하는 것이라 하겠다.

학과 차원에서는 언어구조가 비슷하고 현대식 몽골어 교육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된 이웃나라 일본의 두 대학 몽골어 전공의 교과 과정과 교재를 참고하여 우리 것을 개선시킬 부분이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두 일본 국립대학의 몽골어과들이 일본의 일반 대중에게 베푸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우리의 전공이 우리의 납세자들, 기부단체들, 정부와 국회로부터 존재의 필요를 인정받고, 나아가 지원이 아깝지 않다는 인상을 받기 위해 취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 참고 문헌

몽골대사관(주 대한민국)

([http://www.mongolembassy.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833&Itemid=291&lang=mn](http://www.mongolembassy.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833&Itemid=291&lang=mn) 2020.03.03. 방문)

宋基中(2006) 「朝鮮時代 蒙古語 학습과 蒙學三書」, 『蒙語老乞大』, 奎章閣資料叢書 語學編, 서울대학교 奎章閣 韓國學研究院.

유원수(2020) 「한·몽 언어·문화 분야 협력과제」, 『신북방시대 한국몽골 미래협력의 비전: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현방안』, 187-2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李美淑(2009) 「高麗時代의 譯官 研究」, 『韓國思想과 文化』 46, 201-234, 韓國思想文化學會.

鄭麟趾 等(編)(1451) 『高麗史』 第3卷 「世家」第3 成宗十四年秋九月(AD995) 기사 ([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kr&types=r#detail-kingYear/kr\\_003r\\_0160\\_0040\\_0040/6/0995/99](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kr&types=r#detail-kingYear/kr_003r_0160_0040_0040/6/0995/99) 2021.04.22. 방문)

<sup>9</sup> 참고로 몽골학생은 1997-2017년 사이 326명이 한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서 한국정부 장학금으로 공부했다고 한다. 주 대한민국 몽골대사관 ([http://www.mongolembassy.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833&Itemid=291&lang=mn](http://www.mongolembassy.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833&Itemid=291&lang=mn) 2020.03.03. 방문)

정제문(1991) 「한국의 몽골어학 연구사」, 김방한(편) 『언어학 연구사』, 574-592,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脫脫 等(撰)(1313-1355) 『遼史』 卷13 「本紀」第13 聖宗 13年(AD994) 11月 戊辰; 十四年(AD995) 三月 庚戌 기사 (<https://zh.wikisource.org/wiki/%E9%81%BC%E5%8F%B2/%E5%8D%B713> 2021.04.22. 방문)

Seong, Baeg-in and Jae-mog Song. 1998. "Mongolian Language Studies in Korea". *Altai Hakpo*, Vol 8. The Altaic Society of Korea.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Солонгос дахь монгол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

## -Үр дүнг цэгнэхүй ба ирээдүйн хөгжилд зориулсан санал -

Юү Вон Сү (Сөүлийн үндэсний их сургууль)

### 1. Монгол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уламжлал

Солонгос дахь монгол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 нь өнө эртнээс улбаатай. Гурё улсын түүхэнд Гурё улс 1000 жилийн тэртээ МЭ-ний 994 онд, мөн 995 онд дахин Кидан хэл сурах оюутанг Ляоруу илгээж байсан тухай тэмдэглэл байдаг. Түүхийн сурвалжид өгүүлсэнээр энэ нь төрөөс монгол хэлийг албан ёсоор зааж сургаж байсан тухай анхны сурвалж юм. Монгол үндэстний хэл бичгийн зэрэгцээ тухайн үед Зүүн хойд Азид хамгийн их нөлөө бүхий кидан хэл нь үндэс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ал, дипломат ажиллагаанд нэн чухал хэрэгцээ байсныг илтгэж байна. Ли Ми Сүг (2009)-ийн судалснаас үзэхэд Гурё улсын дунд болон сүүлийн үед **орчуулгын тамгын газар, орчуулгын хүрээлэн, гадаад хэлний сургалт, орчуулгын хүрээлэн** зэргээр өөрчилж байсан бөгөөд монгол хэлний боловсон хүчинг бэлтгэдэг байсан хэмээжээ.

Жон Жэй Мүн(1991)-наас авч үзвэл Чусоны үед ч мөн адил орчуулгын хүрээлэн(1393-1894)-д монгол хэлний мэргэжилтэнг бэлтгэж байсан бөгөөд үүний үр дүнд 278 монгол судлаач, орчуулагч, бэлтгэгч нарыг төгсгөсөн байдаг. Мөн удаа дараа засвар, шинэчлэл хийгдэж байсан орчуулгын сурах бичгийн дотор 1790 онд Бан Хю Оны засаж шинэчилсэн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гурван судар өнөөг хүртэл хадгалагдан үлджээ<sup>1</sup>.

Манай улс 1890-1950 оны эхэн үе хүртэл дотооддоо монгол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асуудлыг анхаарч үзэх боломж нөхцөл байгаагүй. Японы дарангуйлал, хүчирхийлэл хийгээд хоёр Солонгосын дайны аймшигт үйл явдлаас бүрэн салж чадаагүй үе байсан.

Сон&Сун (1998)-болон бусад олон судалгаанаас харахад 1950 оны дунд үеэс эхлээд 1990 оны эхэн үе хүртэл дотоодын хэд хэдэн их сургуулийн цөөн тооны хэдэн эрдэмтэд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далгаа хийгээд сургалтыг үргэлжлүүлж байсан үе юм. Тэдгээр эрдэмтдийн сургалт, судалгааны чиглэл н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судалгаанд зориулагдсан байсан ба Алтай язгуурын хэлний хүрээнд хийгдсэн сургалт, судалгаа байсан гэж үзэж болох юм. Сургалтын дадлагын гол агуулга нь уйгар монгол бичиг гэж нэрийддэг хуучин монгол бичгийн хэл байсан бөгөөд орчуулгын хүрээлэнгийн сурах бичиг, Монголын цаг тоолол, Манж·Монгол·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авиа зүйн (합백서) сурах бичгийг сургалт судалгаа, хэлний дадлагын сургалтын материалаар ашиглагдаж байсан.

### 2. Солонгос·Монгол улс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с хойшхи Монгол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

#### 2.1 Их дээд сургууль дахь монгол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

##### 2.1.1 Монгол хэлний мэргэжилтэн бэлтгэх боловсрол

---

<sup>1</sup> Сун Ги Жүн(2006)-ийн дурдсанаар Жусоны Ёнжу (1724-1776), Жонжу (1776-1800)хаадын үед маргаан шийдвэрлэх явцад монгол орчуулагчдын чадвар хангалтгүй байгаад зовниж үүнийг сайжруулах арга замын талаар асуудлыг дэвшүүлж байсан. Тухайн үед хэлмэрч орчуулагчид Монголчуудтай харилцах боломж хязгаарлагдмал байсан тул ярианы хэлээ сайжруулахад нэлээд бэрхшээл тулгарч байсан нь гарцаагүй юм.

Ийм таагүй орчин нөхцөлд Ли Ог Сон шиг монгол хэлний чадварлаг орчуулагчид байсан төдийгүй орчуулагч, албан хаагчдын ховор боломжийг бүхий л талаас нь үр дүнтэй ашиглахыг хичээж байсан тэмдэглэл байдаг.

1894 онд Жүсон орчуулгын хүрээлэнг татан буулгаснаас хойш тасалдаад байсан дээд боловсролын байгууллагад монгол хэлний мэргэжлийн сургалтыг Солонгос-Монголын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с хойш 3 жилийн хойно буюу 1993 оны 3сарын 1-нд Данкүк их сургуулийн Хүмүүнлэгий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сургуульд 20 оюугантайгаар монгол хэл судлалын анги байгуулагдсанаар дахин үргэлжлүүлэх болсон.

Одоогийн байдлаар Гадаад хэлний сургуулийн Ази Ойрхи Дорнод судлалын тэнхим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мэргэжлээр харьяалагдах нэрээ өөрчилсөн бөгөөд<sup>2</sup> нийт 30 хүний бүрэлдэхүүн бүхий 6 багш (монгол 2 эрдэмтэн багш багтсан) гол хичээл заадаг 10 багшийн бүрэлдэхүүн бакалавр, магистр, докторт суралцаж буй оюутнуудад монгол хэл,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салбар бүрийн хичээл зааж байна. Байгуулагдсан цагаасаа хойш нийт бакалавр 470 оюутан, 17 магистр, 6 доктор бэлтгэн гаргажээ<sup>3</sup>.

Үүнээс хойш 16 жилийн дараа дахин 2009 оны 3сарын 1-нд Ханкүк Гадаад судлалын их сургуулийн Дорно дахины хэлний сургууль(одоогийн Ази хэл, соёлын сургууль)-д Монгол хэлний(нийт 20 оюугантай) анги байгуулагдаж 2013онд анхны бакалаврын төгсөгчид гарч өнгөрсөн хугацаанд бакалавр 136, магистр 2, докторын 2 төгсөгчийг бэлтгэн гаргасан бөгөөд одоо 3 үндсэн багш(монгол эх хэлтэй 2 эрдэмтэн багш)-тай 10 багш нарын бүрэлдэхүүн бакалавр, магистр, докторт суралцаж буй оюутнуудад мөн адил монгол хэл,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салбар бүрийн хичээл зааж байна<sup>4</sup>.

Монгол хэлний мэргэжилтэн бэлтгэх сургалтын чиглэл нь дээрх хоёр сургууль хоёулаа нийгэмд гарсны дараах ажлын чадвар болон магистарт дэвшин суралцаж судалгаа явуулах чадварт суралцахад шаардлагатай монгол хэлний дүрэм, эссэ нийтлэл, харилцан яриа, уншиж ойлгох чадвартай болгох мөн Монголын нийгэм, соёл, түүх болон газар зүйн талаарх ойлголтоор дамжуулан ойлгох чадварыг хөгжүүлэхэд чиглэгдсэн байгааг харж болно. Бусад гадаад хэлний бакалаврын мэргэжлийн сургалтын системээс онцгой өөр зүйл байхгүй нь харагдаж байна<sup>5</sup>.

Солонгос-Монгол хоёр улсын хоорондын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бий болсноор Монгол судлал, монгол хэлний тэнхим байгуулагдаж, үндэс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ал,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наас авахуулаад бүх салбарт хоёр орны харилца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тэргүүн шугаманд идэвх зүтгэлтэй ажиллаж буй цаашид ч ажиллах тэргүүлэгч боловсон хүчин бэлтгэж байгаа явдал нь чухал үр дүн гэж хэлж

<sup>2</sup> Энэ сэдэвд “Монгол судлал” гэдэг нэршлийг хамтад нь хэрэглэсэн.

<sup>3</sup> Тэдгээрээс докторын зэрэг хамгаалсан солонгосчууд Пак Сан Тек (2014)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дагавар үгийн судлагаа” ; Ким, Гён На (2016) “17-19-р зууны Монгол дахь Буддын сүм хийдийн дацангийн судалгаа: Боловсролын байгууллагын хувьд үүрэг оролцоог судлах, У Ми Ёэ (2017) “20-р зууны эхэн үеийн Солонгос ба Монголын харилцааны талаар хийсэн судалгаа: Монголд зорчиж буй Солонгосчууд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 . Мэргэжлийн тэнхимийн эрхлэгч, профессор Юо Бён Жэтэй хийсэн ярилцлага (2020.03.23 .; 2021.04.20.-2021.04.28.)

<sup>4</sup> Докторын зэрэг хамгаалсан Жан Жэй Хёг (2020) “21-р зуунд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олон улсын дэглэмийг бүрдүүлэхэд Монгол Улсын гүйцэтгэх үүрэг: шийдвэр гаргалтын хүрээнд”; Ли Дэй Хаг (2021) “1990 оны Монгол дахь тогтолцооны шилжилт ба нийгэм, шашны өөрчлөлтийн талаархи судалгаа. Тэнхимийн эрхлэгч, профессор Ким Ги Сонтой хийсэн захидал харилцаа (2020.03.23 ..; 2021.04.20.-2021.04.21.)

<sup>5</sup> Данкүк Их Сургуулийн Гадаад хэлний сургууль, Азийн Ойрхи Дорнодын тэнхим,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хүрээлэн([https://www.dankook.ac.kr/web/kor/257?p\\_p\\_id=DeptInfo\\_WAR\\_empInfo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pos=1&p\\_p\\_col\\_count=2&DeptInfo\\_WAR\\_empInfoportlet\\_viewNo=2&DeptInfo\\_WAR\\_empInfoportlet\\_action=view](https://www.dankook.ac.kr/web/kor/257?p_p_id=DeptInfo_WAR_empInfo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pos=1&p_p_col_count=2&DeptInfo_WAR_empInfoportlet_viewNo=2&DeptInfo_WAR_empInfoportlet_action=view) 2021.04.19. зочилсон )

болох юм<sup>6</sup>.

Дээрх хугацаанд оюутны сургалтанд чиглэгдсэн олон янзын сурах бичиг, сургалтын толь бичиг зохион гаргах, гадны дэмжлэг тусламжаар гүйцэтгэсэн буюу гүйцэтгэж байгаа мэргэжлийн болоод өврийн толь бичиг бүтээх, мэргэжлийн бус оюутнуудад зориулсан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рах бичгийн ном эмхэтгэх, бүх салбарын монгол хэлний шалгалтын асуулгын өгөгдлийг боловсруулах зэрэг ажлуудыг гүйцэтгэж байгаа бөгөөд энэ нь мөн адил чухал амжилт гэж хэлж болно<sup>7</sup>.

Өнөө үеийн оюутнууд Монгол, ӨМӨЗО-нд докторын зэрэг хамгаалсан солонгос профессорууд, чадварлаг, туршлагатай монгол профессоруудын удирдлага дор суралцаж байгаа бөгөөд цаг тутам хувьсан хөгжиж буй мэдээллийн технологийн ач тусаар салбар бүрийн монгол хэл дээрх мэдээллийг хялбархан олж авах, сургуулийн дотно гадна аль ч орчинд Монголчуудтай уулзах боломжтой байгаа нь Чусон гүрний хэлмэрчид байтугай хэдхэн жилийн өмнө төгссөн мэргэжил нэгт дээд курсынхнийгээ бодвол харьцангуй давуу орчинд хичээллэж суралцах нөхцөлөөр хангагдаад байна.

## 2.1.2 Сонгон судлах монгол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 Сөүлийн үндэсний их сургуулийн жишээ

Солонгос-Монгол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с хойш дээд боловсролын байгууллагуудад мэргэжлийн бус оюутанд зориулсан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ргалт явагдаж байна. Жишээлбэл, Сөүлийн үндэсний их сургууль нь Хүмүүнлэгийн ухааны сургуулийн Хэл зохиолын тэнхимд монгол хэлээр лекц ордог бөгөөд бакалаврын түвшинд монгол хэл(1) еврей хэл(1) итали хэл(1,2), свахили хэл(1,2) финлянд хэл(1,2) тэй хамт сонгон судлах хичээлийн хүрээнд явагддаг ба магистарт монгол хэл өвөрмөц хэлний давтлага(1) эсвэл өвөрмөц хэлний давтлага(2) гэсэн хичээлд хуваарилагдан манж, санскрит, латин, грек хэлтэй хамт ээлжлэн ордог<sup>8</sup>.

Солонгос-Монголын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байгуулагдсанаас хойш шинэчлэгдсэн зүйл гэвэл орчин цагийн Халх монгол хэлний дадлага ажил чухал хэсгийг хамрах болсон бөгөөд сурах бичгээс гадна

---

<sup>6</sup> Данкүк их сургуулийн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хүрээлэн БНСУ судалгааны сангийн дэмжлэгээр хэвлүүлсэн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нүүдэлчдийн соёлын их толь бичиг”, одоогоор бэлтгэгдэж байгаа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тайлбар толь болон төлөвлөгдөж буй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тайлбар толь” тусгай гадаад хэл хөгжүүлэх хуулийн дэмжлэгтэйгээр гаргасан Монгол хэл (1,2). Солонгосын гадаад судлалын их сургуул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тэнхимийг 2018 онд тусгай гадаад хэл хөгжүүлэх хууль хэрэгжүүлэх тэнхимээр сонгогдож мэргэжлийн судалгаа, мэргэжлийн салбарын толь бичиг гаргах, мөн оюутан сурагчдын Монгол дахь дадлага хийх бололцоог нэмэгдүүлэх зэрэг ажлууд өргөжинө гэдэгт найдаж байна. Энэхүү хичээл зүтгэл амжилтыг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хүлээн зөвшөөрч Данкүк их сургуулийн Жан Чүн Шиг хүндэт захирал (2005), Жан Ху Сон захирал(2014), Ли Сон Гю профессор(2016) нар Алтан гадас одонгоор шагнуулав, Профессор Гу Кан Шин (2007), Ханкүкийн Гадаад хэлний дээд сургуулийн профессор Сун Бён Гу (2016) болон, профессор Ким Ги Сон (2016) -нд найрамдлын медалиар шагнагдав. Korea Research Foundation вэбсайт (<https://www.kri.go.kr/kri2> 2021.04.22-д зочилно уу.); Данкүк Их сургуулийн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хүрээлэн (Тэнхимийн түүх) (<https://cms.dankook.ac.kr/web/mongol/-6> 2021.04.22. Айлчлал)

<sup>7</sup> Сөүлийн үндэсний их сургуулийн Хүмүүнлэгийн ухааны коллежийн Хэл шинжлэлийн тэнхимийн профессор Пак Сан Чольтой ярилцсан асуулга (2021.04.20.)

<sup>8</sup> Алтай язгуурын хэлэнд Манж хэл нь хэл судлалын 2 курсэд мэргэжлийн хичээл болж орсон ба Турк хэл нь Хүмүүнлэгийн сургуулийн Ази хэл соёлын бакалавр, баруун Азийн соёл иргэншлийн мэргэжилд Турк хэл (1,2), дунд шатны турк хэл (1,2), ахисан шатны турк хэл (1,2) байдаг. Профессор Ли Юун Сон-ы өнгөрсөн хугацаанд Турк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салбарт оруулсан хувь нэмэр,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ажлын амжилтыг үнэлж, Турк хэлний холбооноос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нэрэмжит шагнал (2017.05)-аар шагнагдсан. Пак Санг Чоол, Ли Юун Сон профессоруудтай ярилцсан асуулга (2021.04.20.)

суралцагчийн хүсэл сонирголоос шалтгаалаад бүх төрлийн албан бичиг, тэмдэглэл, интернет материал жишээлбэл монгол хэл дээрх сонин, зурагтын мэдээ, нийтлэл, нүүр ном, твиттерын текст гэх мэт сурах бичгийн агуулгад ордог болсон гэж хэлж болно. Үүнээс гадна суралцагсад дүрс бичлэгийн материалыг ашиглан Монголын нийгэм, соёлын талаарх мэдлэгээ өргөжүүлж байна.

Гэсэн хэдий ч лекцийг бакалавр, магистрын зэрэг олгох сургалтанд зөвхөн нэг семестр хуваарилдаг тул анги бүр өгүүлбэр холбож унших, өгүүлбэрийн бүтцийг ойлгоход гол төлөв анхаардаг. Ганцхан семестрт сонгон боломжтой хичээлийн хуваарь гардагтай уялдаад монгол хэл сонгох судлах оюутны тоо итали, свахили, финлянд хэл сонгож буй оюутнуудаас харьцангуй цөөн байдаг шалтгаан үүнтэй холбоотой юм. Магистрын сургалтанд монгол хэлийг манж, санскрит, латин, грек зэрэг сонгодог хэлнүүдтэй ижил түвшинд байгаа гэж таамаглаж болно.

## 2. Хөгжлийн талаар дэвшүүлэх санал зөвлөмж

Юү Вон Сү (2020) -д урьд өмнө дурдагдаагүй байсан ч хөрш зэргэлдээ Япон орны хувьд үндэсний их сургууль болох Токиогийн их сургуулийн хэл,соёлын тэнхим мөн улсын сургууль болох Осака их сургуулийн гадаад хэлний тэнхимд монгол хэлний мэргэжлийн анги байгуулагдсан ба сургууль тус бүр 100, 96 жилийн түүхтэй. Манай орны засгийн газар, бусад олон салбар байгууллагууд хувийн их сургуулийн монгол хэл, судлалын мэргэжлийн оюутан сурагчдын төлөө хийсэн ажлуудыг бага гэж үзэж болохгүй. Гэхдээ Японы улсын сургуулиудын туршлагаас авч бид хэрхэн яаж юуг илүү дэмжих вэ гэдгээ судалж үзэх шаардлага, хэрэгцээ байна.

Манай оюутнууд залуу насандаа монгол хэлийг системтэйгээр сурч байгаа учраас одооноос эхлэн илүү хэдэн хүнд тусалж хэлний бэлтгэлд явуулах, Солонгос болон Монголд магистр, докторын сургалтанд суралцах нөхцөл бололцоогоор хангаж өгөх түүнчлэн нэг профессорыг ч гэсэн дэмжиж өгвөл ирээдүйд улсын үндэс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ал,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 хийгээд хоёр орны харилца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олон салбарт ажиллах, илүү чадварлаг монгол хэлтэй, монголын нийгэм соёлын өргөн мэдлэг туршлагатай мэргэжилтэн бэлтгэх боломжтой гэж найдаж байна<sup>9</sup>. Оюутан өөрийн сонгосон мэргэжилдээ хичээнгүй сайн суралцвал төгссөний дараа сайн ажилд орох төдийгүй сайн мэргэжилтэй болох боломжтой гэж ойлгож ухаарвал сурах хүсэл эрмэлзэл нь аяндаа нэмэгдэх болно. Гэхдээ энэ нь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аг хөгжил хамтран хөгжиж байж сая боломжтой болох юм.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тэтгэлгийн хэмжээг нэмэгдүүлэх, Монголд дадлага хийх, сурах боломжоор хангах мөн магистрын оюутны хувьд төрөл бүрийн судалгааны төсөлд цалинтай хамрагдах боломжоор хангах зэрэг нь үр дүнтэй арга байж болохоор харагдаж байна. Дээрх хоёр сургууль хоёулаа өнгөрсөн 1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магистрын зэрэг хамгаалах нэг ч төгсөгчгүй байгаа нь монгол хэл шиг ховор хэлээр суралцаж байгаа мэргэжлийн магистрын оюутанд зориулсан тэтгэлэг нэн шаардлагатай асуудал болохыг анхааруулж байна.

Хэлний бүтэц нь ижил төстэй орчин ца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 манай орныг бодвол харьцангуй олон жилийн өмнө байгуулагдсан хөрш зэргэлдээ Япон улсын хоёр их сургуулийн тэнхимийн сургалтын хөтөлбөр, сурах бичгийг харьцуулан манай орны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ргалтанд сайжруулах зүйл байгаа эсэхийг суд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на. Японы үндэсний хоёр их сургуул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тэнхимүүд тус орны олон нийтэд үзүүлэх үйлчилгээний агуулгын талаар судлан үүнийгээ манай татвар төлөгчид, хандивлагч байгууллагууд, ЗГ, УИХ-аас бидний оршин тогтнох хэрэгцээ шаардлагыг хүлээн зөвшөөрүүлэх, цаашлаад дэмжлэг туслалцаа авахыг тулд хэрэгжүүлэх

<sup>9</sup>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тэтгэлгээр 1997-2017 оны хооронд 326 монгол оюутан бакалавр, магистр, докторын сургалтын чиглэлээр суралцаж байжээ. Монгол Улсаас БНСУ-д суугаа ЭСЯ ([http://www.mongolembassy.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833&Itemid=291&lang=mn](http://www.mongolembassy.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833&Itemid=291&lang=mn) 2020.03.03)

ажил байгаа эсэхийг судалж үз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на.

Судалгаанд ашигласан материал

몽골대사관(주대한민국)

([http://www.mongolembassy.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833&Itemid=291&lang=mn](http://www.mongolembassy.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833&Itemid=291&lang=mn) 2020.03.03. 방문)

宋基中(2006) 「朝鮮時代 蒙古語 학습과 蒙學三書」, 『蒙語老乞大』, 奎章閣資料叢書 語學編, 서울대학교 奎章閣韓國學研究院.

유원수(2020) 「한·몽 언어·문화 분야 협력과제」, 『신북방시대 한국몽골 미래협력의 비전: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현방안』, 187-2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李美淑(2009) 「高麗時代의 譯官 研究」, 『韓國思想과 文化』 46, 201-234, 韓國思想文化學會.

鄭麟趾 等(編)(1451) 『高麗史』第3卷 「世家」第3 成宗十四年秋九月(AD995) 기사 ([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kr&types=r#detail-kingYear/kr\\_003r\\_0160\\_0040\\_0040/6/0995/99](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kr&types=r#detail-kingYear/kr_003r_0160_0040_0040/6/0995/99) 2021.04.22. 방문)

정제문(1991) 「한국의 몽골어학 연구사」, 김방한(편) 『언어학 연구사』, 574-592,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脫脫 等(撰)(1313-1355) 『遼史』卷13 「本紀」第13 聖宗 13年(AD994) 11月 戊辰; 十四年(AD995) 三月 庚戌 기사 (<https://zh.wikisource.org/wiki/%E9%81%BC%E5%8F%B2/%E5%8D%B713> 2021.04.22. 방문)

Seong, Baeg-in and Jae-mog Song. 1998. "Mongolian Language Studies in Korea". *Altai Hakpo*, Vol 8. The Altaic Society of Korea.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몽골의 한국어 교육 30년: 성과와 과제

D. 에르덴수렝(몽골 인문대학교)

## 초록

한-몽 수교 30년 간 여러 분야에서 양국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가운데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몽 수교 이후 몽골 정규교육과정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역사를 사회 및 교육 흐름을 바탕으로 분류하여 그 요인을 살펴보고, 교육의 3가지 요소 별로 그 성과를 논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질 높은 한국어 교육과 그 발전을 위해 교육 당국의 행정적 지원, 각 대학교와 학과 간 협력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몽골 내 교원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구 데이터 구축, 한국어 교육을 기초로 한 다양한 전문화 교재 개발, 또한 세계 흐름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대비하기 위한 종이 교재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교재 개발 등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Key Words:** 몽골 내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원 전문성, 한국어 교재, 한국어 교육과정.

## 들어가는 말

한-몽교류사는 일반적으로 중세기 고려와 몽골 제국 간 교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본다. 그러나 1921년 사회주의 노선을 택한 몽골은 20세기 초부터 사회주의 국가들 위주의 협력을 진행하였다. 이후 1949년에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전쟁고아들을 입양하고, 몽골 대학생들이 북한에서 유학하거나 도시, 학교, 유치원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진행해 왔지만, 1990년대 이후 이러한 교류는 상징으로만 남게 되었다.

몽골은 1990년대 초기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함과 동시에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이후 몽골 사회 전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분야로 한국어 교육을 들 수 있다.

몽골에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된 30년간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세종학당, 사설 학원 등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에서는 한-몽 수교 이후 몽골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교육의 역사를 사회 및 교육 분야의 변화를 반영하여 시대별로 분류한 뒤 그 요인을 살펴보고, 교육의 3요소에 따라 그 성과를 논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몽골 내 한국어 교육 역사

몽골 내 정규 교육과정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역사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 10월

외교부 산하 동양학연구소에 한국어학당이 개설된 것이 몽골 내 한국어 교육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정규 교육과정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몽골국립대학교에서 1991년 10월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국립대학교 내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한 학생 중에서 일부를 학부 3학년 과정으로 편입시키면서 정식으로 학과를 개설되었다. 이듬해인 1992년 9월 국립대 외국어대학(99년부터 인문학대학으로 명칭 변경)에 정식으로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고, 1995년 4월 울란바타르대학(정식 인가 대학, 현재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울란바타르시립대학교, 1998년 ‘오르홍(Orkhon)’, ‘오요(Oyu)’ 등 사립대학에 한국어학과가 각각 개설되었다.

이처럼 1990년대에는 5개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으나, 2021년 현재 11 개 대학교에서 전공과목으로, 2개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15명으로 시작되었던 한국어 학습자의 수는 2021년 현재 전공 및 교양과목을 합쳐 2,700여 명에 달한다.

연도	1991	1992	1995	1998	2000	2006	2008	2010	2018	2021
학과 수	1	2	4	6	8	17	25	25	10	11 (2)
학생 수	15	54	260	400	600	2507	1748 (1404)	1800 (1425)	805 (1761)	694 (2060)

<표1. 한국어 과정이 개설된 대학교 수 및 학생 수 변화>

이러한 한국어 교육의 변화를 사회 및 교육 분야의 동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주요 요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 가. 한국어 교육의 태동기: 1990~1999 년

1990년대는 한국어학과가 신설되면서 몽골 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시기이다. 학습자 수와 교육 기관 수가 점차 증가하였는데, 몽골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경제 정책이 시행되고 해외에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어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외국어 학습의 붐이 일어났다. 그리고 몽골 정부에서 대학(학과) 설립 인가에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국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국외 요인으로는 민간 교류 확대 및 몽골 진출 한국 기업 증가, 대몽골 투자 증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초창기에는 대학교 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여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을 격년으로 선발하거나, 교수들이 2~3개 학교에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었고 교재 부족 문제도 발생하였다.

#### 나. 한국어 교육의 팽창기: 2000~2010 년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어 교육기관 및 학습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양적 팽창의 국내 요인으로는 몽골 교육부에서 대학 학생 정원 할당제를 폐지하고, 특히 사립대학교에서

<sup>1</sup> 학생 수는 강신(2007:151) 및 권성훈(2009:76)을 바탕으로 최신 현황을 반영한 것이다.

-2008년 이후 학생 수 증 괄호 안에 표시된 것은 교양과목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 수이다.

정원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2000년대는 한국어학과 졸업생 취업률이 영어를 제외한 기타 외국어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시기이다.<sup>2</sup> 국외 요인으로는 한국의 지속적인 대몽골 투자 확대, 한국 기업의 몽골 진출, 민간과 기관 차원에서의 교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한국 유학생, 그 중 한국 정부 초청장학생이나 기타 한국 대학교의 장학생 숫자도 크게 증가했는데, 한국 정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에서 2005년부터 2011년 까지 Brain Kore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해외 유학생 유치 활성화 프로젝트가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한국어학과 학부 과정에 입학하거나, 졸업한 뒤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한국 유학을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시험 성적이 한국 대학 입학 조건의 하나라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 팽창의 국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수 있다.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총
접수자	200	263	183	300	287	289	486	584	925	936	866	1,175	6,494
응시자	153	215	135	250	242	234	406	480	825	818	774	997	5,529
합격자	106	107	55	126	111	141	182	227	412	354	354	368	2,543

<표-2. 1999-2010년까지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현황><sup>3</sup>

<표2>에서 볼 수 있듯 매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매년 합격률은 45-50%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한국어 교육의 신도약기: 2010년~현재

2010년대에 들어 외국어 교육, 그 중 한국어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맞이하면서 교육방식, 방법, 환경, 교재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요구되었다. E-learning, Smart learning, Blended learning, U learning, Web based learning 등이 그 예인데 각 학교에서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각 대학교 및 학과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한국어 교육 교수법도 크게 달라졌는데, 의사소통 중심 교육법에 맞추어 교육과정, 교재도 달라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한국어 전공자 수는 줄어들고, 교양과목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외국어 전공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세계적인 경향, 탁월한 외국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 노동시장의 요구 등은 외국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이 되며,

<sup>2</sup> 인문대학교의 경우 2000-2010년 간 총 25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중 취업률은 90% 였다. 이들은 전공을 살려 한국 기업 및 한국 정부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과 비교했을 때 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대학평가보고서에서 인용)

<sup>3</sup> Erdenesuren.D,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실태 및 방향, 연세대학교 영세영월 포럼자료집, 2011, p130

각 대학교에서는 이를 인식하여 전공과목 이외에도 교양과목에서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선택폭을 넓혔다. 노동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한국어 전공자들은 한국어 실력을 기반으로 회계, 경영학, 관광학, 인적자원 등을 복수전공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기에는 세종학당<sup>4</sup>의 한국어 교육, 기타 사설 학원의 한국어 교육, 온라인 한국어 교육 등 학습 기회가 늘어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다. 따라서 대학교육과정도 한국어 교육을 기반으로 한 한국어 교육, 통번역, 한국학 전공 이외에도 타 전공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2+1, 3+1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대한민국 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ODA)사업으로 시작한 ‘몽골 스마트교실 사업’<sup>5</sup>을 통해 2014년부터 몽골 초·중·고등학교에 스마트교실이 운영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스마트교실 개설 초창기에는 10개 중학교에서 2,0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학습하였으나 2020년 현재 24개 학교에서 4,497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등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연도	2014	2017	2018	2019	2020
학교 수	10	17	24	24	24
스마트 교실 수	10	17	24	24	24
한국어 학급 수	90	150	190	190	193
학습자 수	2,000	3,800	4,157	4,257	4,497
교사 수	16	26	36	40	54

<표3. 몽골 초중고등학교 스마트교실 현황>

몽골 내 초·중·고등학교의 한국어 학습자 수는 대한민국 교육부 통계 기준 세계 10위를 차지하여, 외형적으로는 그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조항록 외: 187)

이처럼 스마트교실 사업은 몽골 초·중·고등학교 내 한국어 교육 발전에 큰 성과를 가져다 주었는데, 27개(이중 3개는 대학교에 개설) 스마트교실이 개소되면서 한국어 학습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총 8단계, 24종의 교재 개발(5학년~12학년), 현지 교사 연수 및 초청 연수 참가자 수 확대, 학생 및 교원들의 스마트 교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매년 교원 및 학생 경진대회 개최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스마트교실 활용률은 2019년 기준 91%를 기록하였다.

## 2. 몽골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성과

교육의 3요소는 교사, 교육과정, 교재이다. 한국어 교육 발전을 결정하는 이 3요소를 중심으로

<sup>4</sup> Sainbilegt.D (2021: 389)에 따르면 현재 몽골 울란바타르에서는 3곳의 세종학당이 운영 중에 있으며 한 학당에서 매년 평균 1,600 여 명의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sup>5</sup> ‘몽골 한국어 스마트교실’ 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스마트교실 구축, 교육자료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교사 역량 개발 등의 목적으로 한국의 덕성여대, 상명대, 비정부기관 코피온(Copion), IT 기업으로는 삼성, 몽골 교육부 및 교육청의 협력으로 추진되었다.

한국어 교육 30년의 성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 1) 교사의 전문성

현재 한국어를 전공으로 가르치는 11개 대학교의 한국어 교원 수는 몽골인 50명, 한국인 24명이며,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몽골인 39명, 한국인 15명, 총 54명(이중 전임교원은 36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데, 전문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양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지식, 기술, 기능적 측면에서는 인성, 태도(강승혜: 2010)로 보는 경우가 많다. 교사 전문성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데<sup>6</sup> 국내적으로 몽골 내 한국어 교원은 지난 30년 동안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학위의 경우 대학 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40%, 나머지는 석사학위 소지자였으며, 경력의 경우 전체의 50%는 11년 이상, 36%는 6-10년의 경력자였으며, 한국인 교원의 경우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은 전체의 25%, 11년 이상의 경력자는 전체의 22%, 6-10년의 경력자는 40%, 박사학위 소지자는 18%였다. 한국어 교육 초기에는 한국인 교원들이 한국어 교육을 주도했다면 현재는 한국에서 유학한 몽골인들이 한국어 지식과 경력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볼 수 있다.

또한 몽골인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목표 언어의 유창한 구사 능력과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을 들 수 있는데, 몽골인 교원 중 64%는 한국어능력시험 6급, 17%는 5급, 8%는 4급 합격자였으며, 55%는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나머지 45%는 6개월 이상 한국 내 어학당에서 공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몽골인 교원의 경우 한국어 지식 및 한국 문화 이해 부족으로 한국어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은 적으며, 높은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한국어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어 교원들이 모여 연구 결과를 논의할 수 있는 학술회의나 세미나가 많이 개최되고 있지만, 한국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최신 한국어 교육 이론과 지식을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그 결과에 대한 공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54명 중 석사학위 10명, 나머지는 학사학위 취득자로 나타났으며, 스마트교실 사업 1단계에서 교사 역량 평준화,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 내 대학교에서 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5년 동안 연 2회, 1회 당 5일, 총 30시간의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 태도, 기술, 스마트교실 교육을 위한 ICT기기 활용, 플립 러닝의 적용 강좌 등을 진행하였는데, 2019년 실시된 2회 교육에는 총 73명이 참가하였으며, 2017년부터 총 6회, 191명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 이외에도 대한민국 교육부의 지원으로 한국어교사협회 자체 세미나, 워크숍 등이 개최되면서 교사 역량이 더욱 높아졌다.(조항록 외:2020).

<sup>6</sup> 방성원은 한국어교원 전문성에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외적 요인으로는 행정적 지원, 교사 재교육 시스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역, 교육기관의 유형, 학습자 집단의 특성 등을 꼽았다. 내적 요인으로는 한국어교원자격증, 한국어교육경력, 재교육, 비영어민(목표 언어의 유창한 구사 능력, 목표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등을 꼽았다.

## 2) 교육과정

대학교 학사과정 이수를 위한 120학점 중 교육부에서 정한 공통기초과목 30-36학점을 제외한 84-90 학점은 학과 및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한국어 과목이 개설된 주요 대학들의 교육과정 특징을 살펴보면 전공기초 및 전공선택과목 폭이 2010년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었다. 이는 대학 커리큘럼이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한국어 수업의 경우 전통적으로 통합 기능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기능별로 가르치는 곳도 있고, ‘듣기-말하기’, ‘읽기-쓰기’ 처럼 두 기능을 묶어 가르치는 등 여러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양성하는 한국어 통번역, 한국어 교육, 한국학 전공자들은 한국어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한국어 관련 교과목의 취득 학점은 각 대학교에서 36-52 학점을 차지한다. 이렇게 기본 한국어 교과목 시수를 제외하면 총 이수 학점의 45% 밖에 안 되는 세부전공 학점으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각 대학교들의 교육과정은 학교 이념, 목적, 전공에 따라 특색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한계로 인해 학교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며, 개별적 특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통번역 전공이든, 한국학 전공이든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한국어를 올바르게 학습해야 한국어 교육, 한국어 번역, 한국학 분야의 능숙한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밑바탕이 되는 한국어의 습득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대두되는 언어와 문화의 연관성에 대해 모든 대학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학습자들에게 한국학에 대해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며 그 특색을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육부에서 정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정규교과 및 특별활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 대학교와 비교할 때 교육과정의 변화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 지며 교육과정 개발 및 개정에 교사들의 권한은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다.

## 3) 교재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해 한국어 교재의 개발, 사용, 연구 활동은 중요하다. 몽골 내에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한국어 교원들은 자체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꾸준히 교재 개발 사업에 종사해 왔다. 한국어 교육 초기에는 한국어 교재가 부족하였고, 지원받은 교재 중 러시아어로 된 교재가 있어 이를 자습서로 활용하거나 러-한, 한-러 사전을 함께 이용하였는데, 이는 고등학교에서 러시아를 배우고 대학교에 입학한 학습자들에게 어느 정도 한국어 학습의 어려움을 덜어 주곤 했다. 1990 년 중반부터는 한국어 교재를 몽골어로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어학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학교에 남아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주도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교재가 몽골인 교수들에 의해 다양하게 개발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5년부터 교재 및 저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교재의 디자인 및 질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진전이 있었다.

첫째, 다양한 교수법을 기반으로 한 교재가 제작되고 있다. 그 동안 개발된 교재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타 외국어 교육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2000년대 초의 교재들의 경우 주로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 의존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교수 요목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상황 교수요목, 주제 교수요목, 기능 교수요목을 적용한 기능별 교재(울란바타르대학교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교재), 최근에 많이 채택되고 있는 혼합형 교수요목을 적용한 통합형 교재, 대학생을 위한 ‘몽골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교재 1권-6권’(방성원, 우인혜, 이영숙, Sainbilegt.D, Erdenesuren.D), ‘몽골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1권-8권’(조항록 외, Sainbilegt.D, Erdenesuren.D, Bolormaa.D)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다양한 목적의 학습자를 위한 교재가 개발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한국어 교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외에도 일반인 및 개인 학습자, 학원 학습자, 세종학당 학습자, 취업자 등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교재들이 개발되고 있다. 학습 수준에 있어서는 역시 초급 수준의 한국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중급과 고급에 갈수록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전문가들의 협력이 요구됨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대학교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전공자를 위한 한국 문화, 역사, 사회, 정치, 경제, 문학, 통번역 분야의 교재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를 표준화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재의 디자인 및 품질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교재들은 한국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은 교재를 제외하고는 재정 문제, 제작 수량의 한계로 인해 교내 인쇄소에서 출간되었고 출판의 질, 표지, 디자인 측면에서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몽골의 출판 시장 및 전문성과 환경이 개선되고, 출판사를 통해 책이 출간되어 그 질 및 디자인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교육의 새 패러다임으로 인해 온라인 교육, 이러닝, 스마트 교육 등 최신 장비와 프로그램을 활용한 디지털 교재, 한국어 교육 콘텐츠, e-book 등의 개발이 대학교 및 초·중·고등학교 등 전문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몽골에서는 모든 교육 활동이 대면 형태가 아닌, 온라인, TV를 통해 진행되었는데 앞으로 교육기관이나 교사들이 이러한 교육 형태에 맞추어야 하며, 이에 맞는 교재의 개선도 요구된다.

### 3. 몽골 내 한국어 교육의 과제

지난 30년간 한국-몽골 간 활발한 교류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적인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본 글에서는 다음을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세계적인 흐름, 사회 변화, 취업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한국어 교육 전공자는 줄어들고, 교양 한국어 학습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와 학과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점으로는, 대학교 차원에서는 학생 수로 인한 재정난보다는 사회적 책임에 더 중점을 두어 전공을 유지하는데 힘써야 하고, 학과 차원에서는 다양한 학습자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 능통한 타 전공자, 복수 전공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들 수 있다. 특히 복수 전공자의 경우 교육 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행정적 지원(허가)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교원들이 지식과 경험, 교육현장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현장에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와 협력 활동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어

교육 관련 통계와 연구 데이터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교육연구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며, 여기에 몽골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태도가 요구된다.

셋째, 몽골 대학교 내 한국어 교육 관련 세부전공으로는 한국어 교육(교사), 한국어 번역, 한국학 전공 등이 있다. 이들을 위한 기초 한국어 교재는 어느 정도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통일된 통번역, 한국어 교육, 한국학 교재가 부재하여 교수들이 각자 자료를 제작하여 강의에 사용하고 있다. 교재는 각 분야에서 많은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의 공동 작업 결과물이며, 여기에 교재개발 이론을 적용한, 몽골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 교재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따라 종이 교재 이외에도 교육 유형과 형태에 맞는 디지털 교재, 온라인 학습자료, 비디오 학습자료 등 다양한 교재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기자재의 활용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강승혜(2010), 한국어 학습자들이 지각한 좋은 한국어 교사의 특성, 한국어교육 21-1, 국제한국어 학회 10-27쪽
- 강신,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ба тулгарч буй асуудлууд, ‘몽골학’, 제 22호, 2007, 147-168쪽
- 권성훈, 몽골 대학의 한국어교육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제 53집, 2009, 71-96 쪽
- 방성원, 한국어교사 재교육의 쟁점과 과제, 제 44회 한국어국제학술회의 자료, 28-35쪽
- 조향록·정혜란, 몽골 초중고등학교의 스마트교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한국언어문화학’, 제 17권, 제 2호, 2020, 185-215 쪽
- Erdenesuren.D,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실태 및 방향, 연세대학교 영세영월포럼 국제학술대회 자료 집, 2011
- Erdenesuren.D, 몽골 대학교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 방안, ‘한국어문학과 문명 교류’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국제학술대회 자료, 2018
- Sainbilegt.D, 몽골에서의 한국학 교육·연구 동향과 과제, ‘신북방 시대, 한국 몽골학 30년의 회고와 전망’, 한문수교 30 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 2021.3.26, 386-400 쪽
- 몽골 초중등교육한국어교사협회 제공 통계 자료



#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 30 жилд - ололт амжилт, асуудал

Д.Эрдэнэсүрэн ( Хүмүүнлэгийн их сургууль)

Хураангуй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тай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р Монголын нийгмийн бүхий л салбарт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солилцоо эрчимтэй явагдахын хамт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салбарт ч багагүй ололт авчирчээ. Уг илтгэлд хоёр орны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с хойш Монголын албан сургалтын байгууллагуудад явагдаж байгаа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түүхийг нийгэм болон боловсролын өөрчлөлтийг харгалзан ангилж, тухайн нөлөөллийг авч үзэн, боловсролын 3 том хүчин зүйлс тус бүрээр ололт амжилтыг хэлэлцэж, цаашдын чиг хандлагыг тодорхойллоо.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чанарыг сайжруулах, цаашид хөгжүүлэхийн тулд боловсролын төрийн захиргааны байгууллагын захиргааны дэмжлэг, зөвшөөрөл, их дээд сургууль тэнхимийн хамтын хүчээр олон янзын хөтөлбөрт зориулсан сургалтын төлөвлөгөө зохиох, хэрэгжүүлэх, Монголы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агш нарын дунд нэтвок өргөжүүлэх, сургалт судалгааны дата бүрдүүлэх шаардлага байгаа, солонгос хэл дээр суурилж нарийн мэргэшүүлэх ийн тулд тухайн мэргэшүүлэх хичээлийн сурах бичиг зохиох, дэлхий нийтийн чиг хандлага, боловсролын шинэ парадигмд бэлэн байж цаасан сурах бичгээс гадна бусад хэлбэрийн сургалтад зориулсан сурах бичиг зохио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гааг санал болгон дэвшүүллээ.

Key Words: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агшийн ур чадвар,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ах бичиг,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төлөвлөгөө

Удиртгал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оёр орны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 нь эртнээс Курё болон Монголын эзэнт гүрний түүхээс эхлэлтэй гэж үздэг. 1921 оноос социалист орны замаар замнасан Монгол улс зөвхөн социалист орнуудтай хамтарч байсан бөгөөд 1949 онд БНСАУ-тай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ж, ялангуяа 1950-аад онд хоёр Солонгосын дайны үед Умард Солонгосоос өнчин хүүхдүүдийг авчирч өсгөж, мөн монгол оюутнууд БНСАУ-д сурах, хот, сургууль, цэцэрлэгүүд харилцан ах дүүсийн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х зэргээр харилцаж ирсэн ч 1990-ээд оноос энэхүү харилцаа зөвхөн билэгдэл төдий болж хувирчээ.

1990-ээд оноос социалист дэглэм нурж, Монгол улс нээлттэй бодлого хэрэгжүүлснээр БНСУ-тай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р Монголын нийгмийн бүхий л салбарт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эрчимтэй өрнөсөн бөгөөд түүний нэг н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салбар билээ.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 явагдаж эхэлсэнээс хойших 30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их дээд сургууль, ерөнхий боловсролын сургууль зэрэг албан сургалт, БНСУ-ын хэлний хүрээлэнгийн Сэжун институт, хувийн дамжаа зэрэг олон сургалтын байгууллагуудад солонгос хэлийг зааж сургаж байна.

Уг илтгэлд хоёр орны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с хойш Монголын албан сургалтын байгууллагуудад явагдаж байгаа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түүхийг нийгэм болон боловсролын өөрчлөлтийг харгалзан ангилж, тухайн нөлөөллийг авч үзэн, боловсролын 3 том хүчин зүйлс тус бүрээр ололт амжилтыг хэлэлцэж, цаашдын чиг хандлагыг тодорхойлох зорилготой.

## 1.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түүх

Монголд албан сургалттай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 нь 1991 оноос эхлэлтэй. Өмнө нь 1990 оны 10 сард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яамны харъяа дорно дахины судлалын хүрээлэн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дамжаа нээгдсэн нь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эхлэл гэж үзэж болно. Албан сургалттай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 нь анх 1991 оны 10 сард МУИС-д нээгдэж, тус сургуулий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дамжаанд суралцаж байсан оюутнууд дундаас 3-р курст шилжүүлэн сургаж, тэнхим байгуулжээ. Дараа жил нь 1992 оны 9 сард ГХДС (1999 оноос хойш Хүмүүнлэгийн Ухааны Их Сургууль (ХИС) болгож нэрээ өөрчилсөн)-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тэнхим байгуулагдаж, 1995 оны 4 сард Улаанбаатар их сургууль (зөвшөөрлөө авсан, одоо Олон Улсын Улаанбаатар Их Сургууль хэмээн нэрээ өөрчилсөн),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ын их сургууль, 1998 онд “Орхон”, “Оюу” зэрэг хувийн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удад тус тус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тэнхим нээгдэж сургалт явагдаж эхэлжээ.

Энэ мэтчилэн 1990-ээд оны үед ердөө 5 их дээд сургууль байсан нь 2021 оны байдлаар 11 их дээд сургуульд үндсэн мэргэжлээр, 2 их сургуульд сонгоноор солонгос хэлийг эзэмшүүлж байгаа бөгөөд анх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мэргэжилээр 15 оюутан суралцаж байсан бол одоо үндсэн болон сонгоноор 2700 гаруй оюутан суралцаж байна.

он	1991	1992	1995	1998	2000	2006	2008	2010	2018	2021
Тэнхим, сургуулийн тоо	1	2	4	6	8	17	25	25	10	11 (2)
Оюутны тоо	15	54	260	400	600	2507	1748 (1404)	1800 (1425)	805 (1761)	694 (2060)

<Хүснэгт1- Солонгол хэл заадаг их сургуулийн тоо болон оюутнуудын тоон өөрчлөлт><sup>1</sup>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энэхүү өөрчлөлтийг нийгэм, боловсролын томоохон чиг хандлагыг харгалзан үечилж, хүчин зүйлсийг авч үзлээ.

### 1)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эхлэлийн үе : 1990~1999он

1990-ээд он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тэнхимүүд байгуулагдан, солонгос хэлийг анх зааж эхлэн, суурьшуулахаар хичээж байсан үе. Суралцагчдын тоо болон боловсролын байгууллагуудын тоо аажмаар нэмэгдэж тоо өсч байсан бөгөөд үүнд Монгол улс дотооддоо эдийн засаг тааруу хэдий ч нээлттэй бодлогын хэрэгжсэнээр гадаадад чөлөөтэй нэвтрэх болсон нь гадаад хэлний хэрэгцээг ихээхэн нэмэгдүүлж, гадаад хэл сурах явдал хаа сайгүй өрнөж байсан, мөн боловсролын салбарт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их сургууль (тэнхим) байгуулах зөвшөөрлийг чөлөөтэй олгож эхэлсэн нь дотоод хүчин зүйл болж, харин гадаад хүчин зүйлүүдэд хоёр орны иргэд зорчих, Солонгосын компаниуд Монголд үйл ажиллагаагаа явуулах оролдлого идэвхижиж, Солонгос дахь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аажмаар нэмэгдэж байсан

<sup>1</sup>-тоон мэдээллийг (강신, 2007:151), 권성훈 (2009:76)-ийг ашиглан шинэчлэв.

- 2008оноос хойших оюутны тоонд хаалтад байгаа тоо нь сонгоноор солонгос хэл судалж буй оюутны тоо

нь нөлөөлсө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бодит орчинд солонгос хэл заах багш дутмагаас зарим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уд жил өнжиж оюутнуудыг сонгох, багш нар нь 2~3 сургуульд багшлах, сурах бичиг хангалтгүй байх зэрэг бэрхшээлүүд байлаа.

## 2)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өсөлтийн үе: 2000~2010 он

2000-аад оноос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байгууллага, суралцагчдын тоо эрс нэмэгдлээ. Энэхүү тоон өсөлтөд нөлөөлсөн дотоод хүчин зүйл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Боловсролын Яамнаас их дээд сургуульд суралцагчдын тоог тогтоодог квотын тогтолцоог халж, ялангуяа хувийн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уд квотоо чөлөөтэй тогтоох боломжтой болсон, мө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анги төгссөн хүмүүсийн ажил эрхлэлтийн түвшин англи хэлнээс бусад гадаад хэлтэй харьцуулахад хамгийн өндөр байлаа.<sup>2</sup> Харин гадаад хүчин зүйлд мөн л БНСУ-аас ирэх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нэмэгдэж, Солонгос компаниуд Монголд олноор ирж суурьшсан, хувь хүний болон байгууллага хооронд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солилцоог улам эрчимжсэн зэрэг нь нөлөөлжээ. Нэмж дурдахад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тэтгэлэг болон бусад Солонгосын их сургуулиудын тэтгэлэгээр суралцдаг монгол оюутнуудын тоо эрс нэмэгдэж үүнд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Олон улсын боловсролын үндэсний хүрээлэ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сан) 2005 оноос 2011 оны хооронд BRAIN KOREA төслийн хүрээнд хэрэгжүүлсэн гадаад оюутнуудыг татах төсөл нь маш их нөлөө үзүүлж, Солонгост суралцах хүсэлтэй хүмүүс Монголын их сургуулий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ангид элсэн орох эсвэл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анги төгсөөд Солонгост суралцахаар явжээ.

Ийнхүү Солонгост суралцахын тул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түвшин тогтоох шалгалтын 4-р түвшингээс дээш түвшинд тэнцсэн бай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олж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түвшин тогтоох шалгалтын оноо нь БНСУ-ын их сургуульд элсэх шалгуурын нэг болсон тул энэхүү шалгалт нь бас нэгэн гадаад хүчин зүйл болсон гэж үзэж байна.

жил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Сум
бүртгүүлсэн	200	263	183	300	287	289	486	584	925	936	866	1175	6494
Шалгалт өгсөн	153	215	135	250	242	234	406	480	825	818	774	997	5529
тэнцсэн	106	107	55	126	111	141	182	227	412	354	354	368	2543

<Хүснэгт 2 : 1999-2010 он хүртэлх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түвшин тогтоох шалгалтын мэдээлэл><sup>3</sup>

<Хүснэгт 2>-оос харахад жил бүр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түвшин тогтоох шалгалт өгж буй суралцагчдын шалгалтад тэнцсэн хувь нь дунджаар 45-50 %-тай байжээ.

## 3)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шинэ өөрчлөлтийн үе: 2010 он~өнөөг хүртэл

<sup>2</sup>ХИС-ийн хувьд гэхэд л эдгээр онуудад дунджаар 250 гаруй оюутан бэлтгэж гаргаснаас 90 хувь нь солонгос компани болон солонгос төрийн байгууллагуудад мэргэжлээрээ ажиллаж, энэ нь бусад хятад, япон, герман, франц зэрэг хэлүүдтэй харьцуулахад ажил эрхлэлтийн түвшин харьцангуй өндөр байлаа. (байгууллагын магадлан итгэмжлэлийн тайланг ашиглав)

<sup>3</sup> Erdenesuren.D,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실태 및 방향, 연세대학교 영세영월 포럼자료집, 2011, p130

2010-аад оноос эхлэн гадаад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 тэр дундаа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 ч ялгаагүй боловсролын шинэ парадигмтай тулгарч, боловсролын хэлбэр, арга, орчин, сурах бичиг зэрэг бүрдүүлэгч хэсгүүдэд шинэ өөрчлөлт гарч ирлээ. E-learning, smart learning, blended learning, U learning, Web based learning зэрэг нь үүний жишээ бөгөөд сургууль тус бүр боловсролын шинэ аргыг нэвтрүүлэхийг эрмэлзэж эхлэв. Ялангуяа 2020 оны 1-р сараас эхэлсэн цар тахлын нөлөө нь сургууль, тэнхимүүдэд цоо шинэ өөрчлөлтийг авчирлаа.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орчинд ч мөн адил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заах арга зүй ихээр өөрчлөгдөж, харилцаанд суурилсан заах арга зүйд тулгуурлаж, түүний дагуу сургалтын хөтөлбөр, сурах бичиг ч бас өөрчлөгдлөө.

Энэ үед Солонгос хэлээр тулгуурласан мэргэжлээр суралцах оюутнуудын тоо буурч, харин солонгос хэлийг сонгон судлах оюутнуудын тоо өссөн байна. Энэ мэтчилэн гадаад хэлийг гол мэргэжил болгох хэрэгцээ буурч байгаа дэлхий нийтийн чиг хандлага, гадаад хэлийг чадварлаг эзэмшсэн мэргэжилтнүүдийг бэлтг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хөдөлмөрийн зах зээлийн эрэлт хэрэгцээ зэрэг нь гадаад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д томоохон хүчин зүйл болж нөлөөлж, их сургуулиуд үүнийг анхаарч, гол мэргэжилээс гадна гадаад хэлний сонголтыг өргөжүүлж сонгон суралцах хичээлд гадаад хэлийг сонгох боломжтой байхаар сургалтын хөтөлбөрийг өөрчилж байна. Хөдөлмөрийн зах зээлийн эрэлт хэрэгцээтэй уялдуулан бэлтгэж гарса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төгсөгчид ч солонгос хэл дээрээ тулгуурлан нягтлан бодох бүртгэл, бизнесийн удирдлага, аялал жуулчлал, хүний нөөц зэрэг бусад мэргэжилийг эзэмших тохиолдол ч ихэслээ. Үүнд БНСУ-ын хэлний хүрээлэнгийн Сэжун институты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 бусад хувийн сургалтууды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онлайн сургалт зэрэг боломж нэмэгдсэн нь ч нөлөөлж байна. Иймээс их сургуулийн сургалтын төлөвлөгөөнд ч солонгос хэлэнд суурилса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агш, орчуулагч,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чиглэлээс гадна өөр мэргэжлээр суралцагчдад гадаад хэл сурах боломж олгох, мөн 2+2, 3+1 зэрэг хөтөлбөр хэрэгжүүлэх зэргээр өөрчлөлт гарч байна.

Энэ үеийн өөр нэгэн онцлох зүйл нь БНСУ-ын Кёнги мужийн Олон улсын хөгжл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 ODA) -ны төслийн хүрээнд хэрэгжүүлж эхэлсэн Монголын смарт анги төсөл<sup>4</sup> нь 2014 оноос эхлэн Монголын ЕБС-уудад смарт анги нээж өгсөнөөр ЕБС-д ч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 эрчимтэй явагдаж ирсэн явдал юм. Тухайлбал 2014 онд смарт ангийг нээж эхлэхэд эхэндээ 10 дунд сургуулийн 2000 гаруй сурагч солонгол хэл сурч байсан бол 2020 оны байдлаар 24 сургууль 4497 сурагч болж хурдацтай өсчээ.

он	2014	2017	2018	2019	2020
сургуулийн тоо	10	17	24	24	24
смарт ангийн тоо	10	17	24	24	24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ангийн тоо	90	150	190	190	193
суралцагчдын тоо	2000	3800	4157	4257	4497
багшийн тоо	16	26	36	40	54

<Хүснэгт 3> Монголын ЕБС-ийн смарт ангийн тоон үзүүлэлт

<sup>4</sup> Уг төсөл нь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март анги” нэрээр 2014 оноос эхэлсэн бөгөөд смарт анги нээр, сургалтын материал контент зохиох, түгээх, багшийн ур чадварыг сайжруулах зэрэг зорилгоор Солонгосын Догсон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их сургууль, Санмён их сургууль, Копион төрийн бус байгууллага, IT талаас Самсунг корпораци, Монголоос БСШУЯ, нийслэлийн боловсролын газар зэрэг байгууллаг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үр дүнд явагдсан.

Монгол дахь ЕБС-ийн солонгос хэл суралцагчдын тоо нь БНСУ-ын боловсролын яамны статистик мэдээллээс харахад 10-р байранд орох хэмжээний амжилттай үзүүлэлт гэж үнэлж болно. (조항욱 외: 187)

Энэ мэтчилэн смарт анги төсөл нь Монголын ЕБС-ий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г бэхжүүлэхэд ихээхэн хувь нэмэр оруулж, нэлээдгүй амжилтыг авчирсан бөгөөд уг төслийн үр дүнд смарт анги 27 (үүнээс 3 нь их сургуулиудад) нээж, оюутны тоо нэмэгдэн, 1~8-р түвшиний (5р ангиас 12 анги хүртэлх) 24 төрлийн сурах бичиг, багш нарын мэргэжил дээшлүүлэх сургалт болон БНСУ-д сургалтад хамрагдах боломжийг нэмэгдүүлж, багш сурагчдын смарт ангийн хэрэглээ, оролцоог нэмэгдүүлэх үүднээс жил бүр сурагч, багш нарын дунд олимпиад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зэрэг дэмжлэг болсноор Смарт ангийн хэрэглээ 91 хувьд хүрчээ.

## 2.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ололт амжилт

Боловсролын гурван том хүчин зүйл нь багш, сургалтын төлөвлөгөө, сурах бичиг байдаг.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хөгжлийг шийдвэрлэх дээрх 3 хүчийн зүйл тус бүрээр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30жилд гарсан ололт амжилтыг авч үзье.

### 1) Багшлах боловсон хүчин, мэргэжлийн ур чадвар

Солонгос хэл судлалаар мэргэжилтэн бэлтгэж буй 11 их сургуульд монгол 50, солонгос 24 багш, ЕБС-д монгол 39, солонгос 15 багш багшилж байна.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 амжилттай явагдахын тулд багшлах ур чадвар хамгийн чухал бөгөөд багшлах ур чадварын хүчин зүйлсийн талаар эрдэмтдийн ангилал бага зэрэг өөр ч агуулгын хувьд ерөнхийдөө мэдлэг, технологи, функционал тал, мөн хүн чанар, хандлага (강승혜: 2010) талаас нь авч үзэх тохиолдол их. Энэхүү багшлах ур чадварт олон хүчин зүйл нөлөөлөх бөгөөд дотоод хүчин зүйл<sup>5</sup>ээс харахад Монголын солонгос хэл судлалын багш нарын хувьд өнгөрсөн 30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багшлах ур чадварын тал дээр тодорхой дэвшил авчирчээ гэж үзэж болно.

Юуны түрүүнд эрдмийн зэрэг, багшилсан туршлагаас авч үзэхэд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йнх монгол багш нарын хувьд доктор (Ph.D) 40 %, бусад нь магистр, ажилласан жилийн хувьд 50% нь 11-ээс дээш жил, 36% нь 6-10жилийн туршлагатай, солонгос багш нарын 25% нь солонгос хэлээр багшлах эрхтэй, 22% нь 11-ээс дээш жилийн туршлагатай, 40% нь 6-10 жилийн туршлагатай, 18% нь доктор зэрэгтэй багш нар байна.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явагдаж эхлэх үед солонгос багш нар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г чиглүүлж байсан бол 2000-аад оны дунд үеэс хойш монгол багш нар Солонгост эрдмийн зэрэг хамгаалж ирж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г түүчээлж байна.

Багшийн чадварын хүчин зүйлд зорилтот хэлээр чадварлаг ярих, соёлын талаар ойлгох чадварыг хамруулах бөгөөд монгол багш нарын 64% н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түвшин тогтоох шалгалтын 6-р түвшин, 17% 5-р түвшин, 8% нь 4-р түвшинд тэнцсэн байх бөгөөд 55% нь Солонгост магистр, докторын хамгаалсан, үлдсэн хувь нь 6 сараас дээш хугацаагаар БНСУ-д солонгос хэл соёлын сургалтад

---

<sup>5</sup> Судлаач Пан Сонво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агшийн мэргэжлийн ур чадварт гадаад болон дотоод хүчин зүйл нөлөөлдөг бөгөөд гадаад хүчин зүйлд захиргааны дэмжлэг, багшийн мэргэжил дээшлүүлэх сургалтын тогтолцоо,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 явагдаж байгаа бүс нутгийн онцлог, байгууллагын хэлбэр, суралцагчдын онцлог зэргийг авч үзжээ. Дотоод хүчин зүйлд багшлах эрх, ажилласан жил, мэргэжил дээшлүүлсэн байдал, гадаад хүний хүчин зүйл (тухайн хэлээр чадварлаг ярих, соёлыг ойлгох чадвар) зэргийг авч үзжээ.

хамрагдаж тэнд амьдарч байсан хүмүүс байна.

Ийм нөхцөлд монгол багш нарын хувь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мэдлэг, соёлын ойлголт дутмагаас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чанарыг бууруулах боломжгүй бөгөө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өндөр чадвартайгаар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д хүчээ зориулж байна. Сүүлийн үе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агш нар судалгааны үр дүнгээсээ хуваалцах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 болон семинар нэлээдгүй зохиогдох болсон, багш тасралтгүй хөгжих үүднээс сүүлийн үеий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талаарх онол, мэдлэгийг боловсролын бодит орчинд туршиж үр дүнгээ хуваалцах талбар байнга үргэлжилж байх ёстой.

ЕБС-ийн багш нарын хувьд 54 багшийн 10 нь магистр бусад нь бакалавр зэрэгтэй бөгөөд смарт анги төсөл хэрэгжсэнээр ижил түвшинд багшлах чадварыг хүргэх, ур чадварыг дээшлүүлэх зорилгоор эхний шатанд солонгосын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й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агшлах онлайн сургалтад хамруулж гэрчилгээ олгосон бөгөөд түүнээс хойш 5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жилд 2 удаа, нэг удаа 5 хоног 130 цагийн сургалт явуулж багшид шаардлагатай мэдлэг, техник, хандлага, смарт ангийн сургалт явуулах ICT төхөөрөмжийг ашиглаж сурах, flip learning явуулах арга зэргээр семинар сургалт явуулсан бөгөөд 2019 оны байдлаар 2 удаагийн сургалтад 73 хүн, 2017 оноос хойш давхардсан тоогоор 6 удаагийн сургалтад 191 багш хамрагджээ. Түүнчлэн БНСУ-ын боловсролын яамны санхүүжилтээр багш нарын холбоогоороо дамжуулан өөрсдөө семинар , вокшоп хийх зэргээр багшлах ур чадвараа улам сайжруулж байна. (조항록 외:2020)

## 2) сургалтын хөтөлбөр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йн бакалаврын түвшинд судлагдах 120 кредитээс Боловсролын яамнаас тогтоосон ерөнхий суурь хичээлийн 30-36 кредитээс бусад 90-84 кредитийг тэнхим болон их сургуулийн эрхийн хүрээнд хэрэгжүүлдэг.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тай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йн сургалтын хөтөлбөрийн онцлогийг харвал мэргэжлийн суурь болон мэргэжлийн хичээлд сонгох хичээл 2010 оноос өмнөх үеэс илүү өргөжжээ. Энэ нь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йн сургалтын хөтөлбөр нь суралцагч төвтэй байж, суралцагчдад илүү их сонголт хийх боломжийг олгосонтой холбоотой.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хувьд уламжлалт арга болох нэгдмэл функцээр заах, эсвэл ярих, сонсох, бичих, унших гэх мэт функц тус бүрээр заах эсвэл сонсох ярих, унших бичих гэх мэтээр хоёр функцийг хамтад нь заах зэргээр хичээллэж байна. Гэвч их дээд сургуульд бэлтгэж байгаа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орчуулагч,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агш,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мэргэжлүүд нь солонгос хэл дээр тулгуурладаг тул солонгос хэлтэй холбоотой хичээлийн цагууд нь бүх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удад 36-52 кредит байна. Иймд ерөнхий суурь боло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хичээлүүдийг хасвал нийт судлах хичээлийн 45 хүртэлх хувьд дээрх мэргэжилтнүүдийг бэлтгэхэд олон талаар хязгаарлагдмал. Сургуулий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 зорилго, мэргэжлээс хамаарч эдгээр мэргэжилтэн бэлтгэж буй сургалтын хөтөлбөрүүд онцлогтой хэдий ч эдгээр хязгаарлагдмал байдлаас шалтгаалан бие биенээсээ нэг их ялгарахгүй, онцлог шинжүүд нь сул гэж үзэж болно.

Сургалтын хөтөлбөрийг үр дүнтэй хэрэгжүүлэхийн тулд боловсролын агуулга (юу заах) хамгийн чухал юм. Орчуулагч, багш эсвэл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мэргэжлээс үл хамааран гадаад суралцагчдын хувьд суурь хичээл нь солонгос хэл байдаг тул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орчуулга,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чиглэлээр мэргэшсэн мэргэжилтэн бэлтгэхийн тулд тухайн хэлийг сайн сурах нь хамгийн чухал юм. Сүүлийн үед бий болсон хэл соёлын уялдаа холбооны асуудлыг бүх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удад анхаарч, суралцагчдад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талаар шаардлагатай мэдлэг олгох замаар мэргэжлийн онцлогийг бэхжүүлж байна.

ЕБС-ийн хувьд солонгос хэлийг Боловсролын яамнаас тогтоосон сургалтын төлөвлөгөөний хүрээнд гүнзгийрүүлсэн сургалт эсвэл сонгон сургалтаар судалж байгаа бөгөөд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удтай

харьцуулахад сургалтын төлөвлөгөө харьцангуй тогтвортой, сургалтын төлөвлөгөө зохиох шинэчлэхэд багш нарын эрх мэдлийн хүрээ ч бага байдаг онцлогтой.

### 3) сурах бичиг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г хөгжүүлэхэ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ах бичиг зохиох, ашиглах, судлах нь чухал юм.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агш нар бие дааж эсвэл хамтарч зохиох зэргээр сурах бичиг зохиох тал дээр тууштай ажиллаж иржээ.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эхэн үе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ах бичиг маш их хомсдолтой, сургуульд тусламжаар ирсэн номнуудын дунд орос хэл дээр тайлбарласан сурах бичгийг бие дааж судлах, Орос-Солонгос, Солонгос-Орос хэлний толь бичгүүдийг ашиглаж байсан бөгөөд энэ нь дунд сургуульдаа орос хэл сураад их сургуульд элссэн суралцагчдын хувьд солонгос хэл сурах бэрхшээлийг тодорхой хэмжээгээр хөнгөвчилж байлаа. 90-ээд оны дунд үеэс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нийтийн сурах бичгийг монгол хэлнээ орчуулж хэрэглэж эхэллээ.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анги төгсөгчдөөс сургуульдаа үлдэж багшлан, магистр, докторын хөтөлбөрт хамрагдаж зэрэг хамгаалаа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чиглэлээр туршлага хуримтлуулж,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г Монголд түүчээлж эхэлсэн бөгөөд тэр үеэс Солонгос хэл, судлалын холбоотой олон сурах бичгийг монгол багш нар боловсруулж эхэлжээ. Ялангуяа 2005 оноос хойш сурах бичиг, номын төрөл олширч, сурах бичгийн хийц, дизайн, чанарт дараах дэвшил гарсан болохыг харж болно.

Нэгдүгээрт, янз бүрийн заах арга барилд тулгуурласан сурах бичгийг зохиож байна. Өнөөг хүртэл зохиосон сурах бичгүүдийн төрлийг авч үзэхэд бусад гадаад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нэгэн адил 1990-ээд он, 2000-аад оны эхэн үеийн сурах бичгүүд дүрэм орчуулгын сургалтын арга зүйд тулгуурлан зохиож байсан бол үүнээс хойш олон янзын силабуст тулгуурлан зохиожээ. Тухайлбал нөхцөл байдлын, сэдвийн, функционал силабусыг хэрэглэсэн функц тус бүрээр (ОУУБИС-ийн ярих, сонсох, бичих, унших сурах бичиг) зохиох,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өргөн хэрэглэгдэж байгаа холимог хэлбэрийн силабусд тулгуурласан цогц сурах бичиг,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удад "Монгол хүнд зориулса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ах бичиг" 1-6 боть (Sungwon Bang, Inhye Woo, Youngsuk Lee, Sainbilegt.D, Erdenesuren .D), ЕБС-д "Монгол сурагчдад зориулса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жишиг сурах бичиг" 1-8 боть (Hang-rok Cho et al., Sainbilegt.D, Erdenesuren.D, Bolormaa.D) –ийг дурьдаж болно.

Хоёрдугаарт, янз бүрийн зорилго бүхий суралцагчдад зориулсан сурах бичиг зохиох явдал чухал. Албан боловсролд зориулсан солонгос сурах бичгүүд нэлээд хувийг эзэлж байгаагаас гадна энгийн суралцагчид, бие даан суралцагч, дамжаанд суралцагчид, Сэжун Институтын суралцагчид, гэрээгээр ажиллагсдын гэх зэргээр янз бүрийн суралцагчдад зориулсан сурах бичиг зохиогдож төрөл нь нэмэгджээ. Гэсэн хэдий ч эдгээр дотроос анхан шатны номын эзлэх хувь их, дунд, ахисан түвшин дээшлэх тусам хувь нь илт буурч байна. Үүнээс харахад түвшин ахих тусам тухайн чиглэлээр мэргэшсэн мэргэжилтнүүдийн хамтын бүтээлийг шаардаж байна гэдгийг харж болно.

Гуравдугаарт,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уда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төдийгүй соёл, түүх, нийгэм, улс төр, эдийн засаг, утга зохиол, орчуулгын чиглэлийн сурах бичгийг хөтөлбөрийн хүрээндээ зохиож хэрэглэж байна. Гэхдээ цаашид үүнд жишиг тогтоох, боловсронгуй болгох шаардлага бий.

Дөрөвдүгээрт, сурах бичгүүдийн хийц, дизайн, чанарт ч ахиц гарсан. 1990-ээд онд Солонгосын төрийн байгууллагуудын дэмжлэгээр орж ирсэн сурах бичгийг эс тооцвол санхүүгийн боломж, тоо хэмжээний хязгаарлагдмал байдлаас шалтгаалан сурах бичгүүдийг сургуулийн хэвлэлийн цехээр дамжуулан хэвлүүлдэг байсан болохоор цаасны чанар, хавтас, дизайн талаасаа чанар муутай байлаа.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Монголын хэвлэлийн зах зээл, хэвлэлийн чадавх, орчин сайжирч хэвлэлийн газраар дамжуулан ном сурах бичиг хэвлүүлэх болсноор номын чанар, хийцэд нэлээдгүй өөрчлөлт гарсныг харж болно.

Тавдугаарт, боловсролын шинэ парадигмаас үүдсэн онлайн сургалт, И сургалт, смарт сургалт зэрэг сургалтын шинэ төхөөрөмж програм ашиглан явагдаж байгаа сургалтад зориулсан дижитал сурах бичиг, контент, цахим ном зэрэг төрөл бүрийн сурах бичиг боловсруулж, ашиглах ажил их дээд сургууль, бага, дунд, ахлах ангиудад өрнөж эхлээд байна. Ялангуяа сүүлийн 2 жилд Монгол улсад дэлхийд гарсан цар тахлын улмаас танхимаар бус теле, онлайн хэлбэрээр сургалт явагдсан нь цаашид сургалтын байгууллагууд, багш нарыг дээрх сургалтад бэлэн байж хөгжихийг шаардаж, энэ чиглэлийн сурах бичгийг улам боловсронгуй болгох шаардлага тулгарч байна.

### 3.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цаашдын асуудал

Өнгөрсөн 30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хоёр орны харилцаа эрчимжиж,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хүрээнд ч багагүй ахиц дэвшил гарч амжилт олжээ. Гэвч дэлхий даяарх өөрчлөлттэй хөл зэрэгцэхийн тул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 цаашид тасралтгүй хөгжих ёстой бөгөөд энэ үүднээс уг илтгэлд дурьдсан зүйлсээс дараахыг санал болгон дэвшүүлж байна.

Нэгдүгээрт, дэлхийн чиг хандлага, нийгмийн өөрчлөлт, ажлын байрны хомсдол зэрэг янз бүрийн нөлөөллөөс үзэхэд солонгос хэлээр мэргэшэх оюутны тоо цөөрч, харин эсрэгээр сонгож судлах оюутны тоо ихэсч байна. Ийм нөхцөлд их дээд сургууль, тэнхимийн хамтарч шийдвэрлэх ёстой зүйл нь байгууллагын хувьд оюутны тооноос хамаарсан санхүүгийн ашиггүй байдлаас илүүтэй нийгмийн хариуцлага, улс орнууд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өгжилд хувь нэмэр оруулж тухайн мэргэшлийг хадгалж хөгжүүлэх, тэнхимийн зүгээс янз бүрийн суралцагчдад зориулсан хөтөлбөр боловсруулж түүнд зохицуулан сургалтын төлөвлөгөө гаргах, тухайлбал солонгос хэлийг чадамгай эзэмшсэн бусад мэргэжилтэн бэлтгэх хөтөлбөр, хамтарсан хөтөлбөр, хос мэргэжил зэргээр бэлтгэх боломжийг нээх. Ялангуяа хос мэргэжлийн хувьд боловсролын төрийн захиргааны байгууллагатай хамтран захиргааны дэмжлэг (зөвшөөрөл) олж авах шаардлага тулгарч байна.

Хоёрдугаарт, багш нарын мэдлэг, туршлага, боловсролын орчин дахь мэдээллийг хуваалцах нэвчлөл бий болгож, боловсролын орчинд тулгарч буй асуудлыг хамтдаа шийдвэрлэхийн тулд хамтарсан судалгаа хийх,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шаардагдаж байна. Ялангуяа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талаарх статистик мэдээллээс эхлээд судалгааны датануудыг зангидаж мэдээллээ хуваалцаж байх орон зай тун чухал бөгөөд үүнд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агш нарын идэвхтэй оролцоо, хандлага чухал байна.

Гуравдугаарт, Монголын их дээд сургуульд одоогоор бэлтгэж байгаа солонгос хэлэнд суурилсан мэргэжилүүд н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агш, орчуулагч,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зэрэг мэргэжлүүд юм. Суурь болсо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оловсролын сурах бичгүүд харьцангуй зохиогдож хэрэглэгдэж байгаа ч мэргэшүүлж буй чиглэлийн хичээлийн материалыг тухайн багш бэлтгэж хичээл заадаг. Сурах бичиг бол тухайн салбарын онол туршлагатай мэргэжилтнүүдийн хамтын бүтээл тул сурах бичиг зохиох онол зарчимд тулгуурласан, суралцагчдын онцлогийг тусгасан жишиг сурах бичиг хэрэгтэй байна. Түүнчлэн боловсролын шинэ парадигм, дэлхий нийтийг хамарсан пандемд бэлтгэлтэй байх үүднээс цаасан сурах бичгээс гадна сургалтын төрөл хэлбэрт тохирсон дижитал сурах бичиг, онлайн хичээлийн материал, видео материал зэрэг янз бүрийн сурах бичиг зохиохыг зайлшгүй шаардаж байгаа бөгөөд цаашид ийм төрлийн контент бэлтгэх, сургалтын дэвшилтэт програм, тоногт төхөөрөмжийг чадамгай ашиглах шаардлага зүй ёсоор тулгарч байна.

강승혜(2010), 한국어 학습자들이 지각한 좋은 한국어 교사의 특성, 한국어교육 21-1, 국제한국어학회 10-27쪽

- 강신,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ба тулгарч буй асуудлууд, ‘몽골학’, 제 22호, 2007, 147-168 쪽
- 권성훈, 몽골 대학의 한국어교육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제 53집, 2009, 71-96 쪽
- 방성원, 한국어교사 재교육의 쟁점과 과제, 제 44회 한국어국제학술회의 자료, 28-35쪽
- 조항록·정혜란, 몽골 초중고등학교의 스마트교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한국언어문화학’, 제 17권, 제 2호, 2020, 185-215 쪽
- Erdenesuren.D, 몽골에서의 한국어교육실태 및 방향, 연세대학교 영세영월포럼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1
- Erdenesuren.D, 몽골 대학교 한국어교원의 역량 강화 방안, ‘한국어문학과 문명 교류’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8
- Sainbilegt.D, 몽골에서의 한국학 교육·연구 동향과 과제, ‘신북방 시대, 한국 몽골학 30년의 회고와 전망’, 한몽수교 30 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 2021.3.26, 386-400쪽
- Монголын ЕБС-ий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багш нарын холбооны статистик материал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한몽 인적 교류 현황과 향후 과제

이 평 래(한국의국어대학교)

## 1. 양국의 인적 교류 현황

1990년 3월 26일 외교관계 수립 후 한몽 간 교류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인적교류이다. 지난 30년 동안 진행된 한몽의 인적교류는 너무 급했다고 할 만큼 전 범위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양국국민의 상대국 방문자 수의 급격한 증가이다. 1990년 152명에 불과했던 몽골인의 한국 방문자 수는 2000년에 12,156명으로 증가하고 2019년에는 113,599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그 증가 폭도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놓고 보면 만약 2020년 초 코로나 19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한국을 방문한 몽골인 수는 계속 늘어났을 것이다.

표-1. 한국방문 몽골인 수

(단위: 명)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3	2015	2017	2019
152	3,792	12,156	23,939	41,958	48,004	63,740	77,918	103,916	113,599

출처: 한국관광공사, 2020년 4월 한국관광통계 공표,

몽골인 입국자 수 증가에 못지않게 지난 수교 이후 몽골을 방문한 한국인 수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즉 최초의 통계자료가 남아 있는 1999년 5,161명에 불과했던 몽골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2001년에 10,028명으로 늘어나고, 2019년에는 101,279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2. 몽골방문 한국인 수

(단위: 명)

1999	2001	2005	2008	2010	2011	2013	2015	2017	2019
5,161	10,028	30,787	43,396	42,231	43,994	45,178	47,213	74,921	101,279

출처: 몽골국통계청, 입국자 수

양국국민의 상대국 방문자 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것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불문하고 양국 간에 인적교류가 그만큼 빈번해졌음을 뜻한다. 물론 몽골인의 한국방문과 한국인의 몽골방문은 그 목적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공적영역도 그렇고 사적영역도 그렇다. 대표적인 공적영역인 KOIKA 사업의 경우 몽골인들의 한국입국은 대부분 각 지역별 그룹연수인데 반하여 한국인의 몽골입국은 전문가나 봉사단원의 파견이다. 사적영역의 경우 전체적으로 몽골인의 한국입국은 경제적 목적과 유학이, 한국인의 몽골입국은 관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 인적 교류의 확대 원인

1990년 공식수교 이후 양국 교류가 전면적으로 확대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수교 초기 몽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현실적인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이념

적인 이유로 갈 수 없었던 곳에 대한 호기심이 몽골에 대한 관심을 부추겼다. 몽골은 1921년 혁명 이후 소련의 가장 충직한 위성국으로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1989년까지 소련과 동구권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를 빼고는 외부세계와의 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있었다. 우리로서는 갈 수 없는 나라였고, 그런 만큼 이제 막 문이 열린 몽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1900년대 초기에 나타난 몽골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후반부터 유행한 동구권 및 구소련에 대한 관심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몽 간 수교 전부터 한국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북방외교의 확대와 북한 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대몽골 외교를 중시했고, 사업가들은 천연자원 등 원자재 확보와 시베리아 진출의 전진기지로서 몽골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둘째 이와 더불어 한국인과 몽골인 그리고 우리말과 몽골어가 한 뿌리에서 나왔고, 따라서 먼 옛날부터 역사를 공유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집단정서, 이른바 동류의식 또한 수교 초창기 양국 국민을 가깝게 만든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두 나라 국민의 상대방에 대한 이러한 집단정서가 지금도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계속 확대되고 재생산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촉트바타르(D. Tsogtbaatar) 전 몽골외교장관은 2020년 3월 26일 한몽 수교 30주년 기념 언론 인터뷰에서 “한몽관계사는 먼 옛날부터 흔적이 남아 있고, 양국국민은 오래전부터 교류해왔습니다. (우리는) 언어, 문화, 관습에서도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은 민족입니다.”라고 이 점을 애써 강조하였다. 이여홍 주몽골한국대사 역시 같은 날 나온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몽관계를 얘기할 때 언제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은 국민들 간의 긴밀한 관계와 교류입니다. 우리는 언어와 문화의 많은 공통점에 의거하여 민중의 교류를 심화시켜왔습니다.”라고 비슷한 말을 반복하였다. 두 사람의 발언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동류의식이라는 집단정서가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거한다.

수교 직후부터 학술 분야뿐만 아니라 공적 및 사적 분야를 막론하고 양국의 교류가 급속하게 발전한 이유도 상당 부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정부의 거의 모든 기관과 산하의 공공기관은 몽골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류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양국관계가 긴밀해졌다. 우리 정부의 ODA 사업과 NGO의 국제협력사업도 몽골이 빠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양국학자들 사이의 학술교류 역시 수교 초기의 언어, 민속, 역사, 문화 분야를 넘어 의학, 공학, 경제, 농축산, 복지, 교육 등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 2021년 현재 약 337만 명의 적은 인구와 몽골의 경제규모 및 한국과의 교역량에 비하면 대단히 이례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형제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사고가 자리한다. 1990년대 초부터 중소기업인들이 대거 몽골로 몰려간 것도 기독교와 불교를 비롯한 한국의 많은 종교 관계자들이 몽골에 진출한 것도 동류의식과 외모의 유사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한국인에 대하여 친밀감을 갖고 살갑게 대하기는 몽골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수교 이후 한몽 관련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 남긴 자료를 보면 몽골인들의 환대와 그들의 한국인에 대한 친밀한 정서를 특기한 경우가 많다. 물론 두 나라의 인적 및 물적 교류가 빈번해지고, 이와 함께 양자간에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면서 몽골인들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지만,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그들의 우호적 정서는 부인할 수 없다. 촉트바타르 장관의 말대로 몽골인에게 한국은 자기들과 언어와 문화 및 관습이 비슷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발전된 나라이다. 따라서 현재 양국관계의 실제상황과 관계없이 많은 몽골인들은 한국이 여러 측면에서 몽골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몽골의 경제사정과 양국 간 임금 격차, 노동환경 등 국민생활 문제 또한 인적 교류의 확

대를 가져온 주요 원인이다.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후 몽골 경제는 잦은 부침을 경험하였고 이 과정에서 몽골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나갔는데, 그중 몽골정부가 가장 먼저 노동력 송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가 한국이다. 몽골인 및 몽골정부가 이주노동지로서 한국을 선택한 데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외모도 한국인은 자신들과 외모가 유사하며 문화적으로 친숙하고 임금도 높은 편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집단정서 등의 이유로 그 동안 몽골인을 원만하게 수용해온 한국의 사회분위기도 몽골인들의 한국행 증가에 한몫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3. 인적 교류 확대의 필요성

단기간에 한몽 간 인적 교류가 급격히 확대된 결과 한국은 전통적인 몽골인 거주지, 즉 몽골국(외몽골), 러시아연방의 부랴트공화국과 칼미크공화국, 중국의 내이멍구자치구(내몽골)를 제외하면 이 세상에서 몽골인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2021년 2월 말 현재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몽골인은 41,852명이다. 절대적 수치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2021년 4월 15일 기준 몽골의 인구가 약 337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인구의 1.3% 정도가 한국에 살고 있는 셈이니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세계적 지식 사이트인 Wikipedia에는 아예 ‘Mongolians in South Korea’라는 항목이 있다. 오래 전에 나온 간단한 자료지만, 이는 한국 거주 몽골인은 우리만이 아니고 이제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례이다.

2016년 5월 18-20일 한국을 방문한 엘벡도르지(Ts. Elbegdorj) 전 몽골대통령도 이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그 해 5월 19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나서 행한 연설서두에서 한국과 몽골에 거주하는 몽골인과 한국인, 몽골인과 한국인의 생김새의 유사성, 민족계통과 언어의 유사성, 역사적 측면에서 양국의 특수 관계를 언급한 다음, 인적교류야말로 양국관계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힘주어 강조하였다.

그의 말대로 인적교류는 향후 양국 간 협력에서 핵심요소이다. 물론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 인적교류의 확대가 양국관계에 모두 긍정적인 역할만 했다고 할 수는 없다. 1990년대 수교초기의 들뜬 분위기가 사라지고 양국 간에 인적교류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인적교류에 비례하여 양국의 경제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가도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 인적교류의 확대에 걸맞게 몽골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는가도 따로 점검해보아야 할 사항이다. 그렇다고 해도 인적교류의 확대는 향후 양국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전체 인구의 약 1.3%에 이르는 한국 체류 몽골인의 존재는 다른 어떤 나라도 갖지 못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리고 이 자산들은 경제 및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대몽골정책을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한몽 간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할 이유가 있다.

### 4. 미래 30년의 한몽 관계를 위한 제언

지난 30년 동안 진행된 한몽의 교류와 협력을 평가해보면 너무 급했다고 할 만큼 외형적인 발전이 있었다. 공식수교가 이루어진 1990년 직후 몽골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한 해에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 연간 10여만 명으로 늘어났다. 또 당시 수백에 불과했던 한국에 상주하는 몽골인은 그 사이에 4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국 간 협력은 처음 두 나라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든다. 한국 기업의 몽골진출과 양국 간 교역량도 박스에 갇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고, 몽골에서 한국의 위상도 1990년대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열 가지 핑계가 있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백 가지 방법이 있다”는 몽골의 속담처럼 양국정부 및 비정부기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몽골에서 국제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고, 향후 30년에는 일본을 앞설 수도 있을 것이다. 반복하여 말하지만 한국인과 몽골인은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친밀한 감정을 갖고 있다. 또한 한국에는 몽골인구의 1.3%에 달하는 몽골인이 상주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체류 몽골인 자녀를 위한 재한몽골학교(초중고과정)까지 있다. 몽골 교육부가 인가한 정식학교이니 이런 학교는 아마도 세계적으로도 매우 특이한 사례일 것이다. 이 또한 그 어떤 나라도 갖지 못한 한국의 큰 자산이다. 이러한 자산을 토대로 하여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 지난 30년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엘벡도르지 전 몽골대통령의 말대로 인적교류는 향후 양국 간 협력에서 핵심요소이다. 물론 지난 30년의 한몽 관계가 무조건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당연히 크고 작은 문제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인적교류의 확대는 향후 양국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는 변함이 없다. 거듭 말하지만 한국 체류 몽골인의 존재는 다른 어떤 나라도 갖지 못한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다. 그리고 이 재산들은 향후 정치, 경제, 외교, 문화, 학술 등 모든 분야에서 한몽 협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한몽 간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할 이유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아래 몇 가지 사항을 미래 협력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양국 관계에서 매우 오래된 과제 중 하나인 비자문제에 대하여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몽골인들이 한국비자를 발급받을 때 생겨나는 불편사항은 오래된 민원이며, 양국 간 우호적 분위기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호무비자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등록 체류자 문제와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 등 여러 문제로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나온 대안으로 먼저 한국인에 대해 비자를 면제해 주고, 상황의 변화를 보면서 순차적으로 몽골인에게도 비자를 면제해 주는 이른바 차등적 비자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몽골은 현재 이러한 차등적 비자면제제도를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대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도 협의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 대신 한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몽골의 젊은이들에게 취업관광(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허용해 줌으로써, 미등록 체류자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먼저 한몽 협력과 양자 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가칭 “몽골한국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몽골학 연구자들은 오래 전부터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비롯하여 한국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한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한국문화원의 설립을 제안해 왔다. 왜 한국문화원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한국문화원의 설립이 어렵다면 세종학당 등 한국어 교육보급사업, 한국학과 유학생 네트워크 관리사업, 한국관광과 한류홍보사업, 한몽 경제협력 지원 사업 등을 통합관리하고, 한국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한국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기관으로서 가칭 “몽골한국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그리고 본 센터를 통하여 지난 30년 간 축적된 몽골 내 한국전문가와 한몽 협력사업 유경험자 및 기타 친한 인사들을 활용하여 몽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한몽 간 인적교류를 증진시킬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이 센터가 설립되면 몽골에서 한국문화의 센터 역할을 감

당할 수 있을 것이며, 몽골의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사와 교수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고, 이들이 친한 그룹으로 활동할 유인도 충분히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주몽골 한국대사관, 몽골의 한국전문가 그룹, 몽골의 한국 관련 단체 등을 포괄하는 인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대상은 KOICA 초청 공무원과 연수생, 국비장학생, 한국유학 경험자, 정부기관 및 지자체 교류 사업을 통한 장기체류 경험자, 사업가, 교수와 연구자 등 한국과 관련을 맺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기 보다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신뢰하고, 진정성을 갖고 한몽 관계 발전에 협력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 또는 분야별로 묶어 향후 한몽 간 현안 해결이나 발전방향을 도출하는데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절차는 기왕에 조직된 네트워크가 있으면 지원하고, 없으면 결성을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되 가급적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하도록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의 신북방정책에도 대학, 청년, 학술단체 교류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친한 네트워크 구축과 북방지역 전문가 양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적관리 시스템 구축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준비하게 되면 양국관계의 발전 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30년의 한몽 협력과 관련하여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몽골은 여전히 우리의 이익추구보다 우리의 지원이 더 필요한 나라라는 것,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충분한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인적교류 문제를 다룰 때도 상호주의 원칙보다는 조금은 우리가 양보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현재 몽골의 위치가 여전히 외국의 지원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이러한 양보는 국제관계에서 늘 있어 왔고 이러한 관행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 참고문헌

이평래(2020), 「한몽 인적 교류와 협력과제」, 『한국·몽골 미래협력의 비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Mongolians in South Korea”, [https://en.wikipedia.org/wiki/Mongolians\\_in\\_South\\_Korea](https://en.wikipedia.org/wiki/Mongolians_in_South_Korea)(검색일: 2021.4.23).  
ЛИ Ё ХУН: Айл хүний амь нэг, саахалт айлын санаа нэг”(검색일: 2020.10.23), <http://unuudur.mn/ли-ё-хун-айл-хүний-амь-нэг-саахалт-айлын-санаа-нэг/>(검색일: 2021.4.23).

“Д.ЦОГТБААТАР: ЭНЭ 30 ЖИЛД ИТГЭЛЦЛИЙГ БЭХЖҮҮЛЖ, ХАРИЛЦААНЫ ЭРХ ЗҮЙН ҮНДСИЙГ БҮРДҮҮЛСЭН”(검색일: 2020.10.23), <https://www.montsame.mn/mn/read/220164>(검색일: 2021.4.23).

이평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러시아·유라시아 이슈 심층 분석, 한-몽 협력을 위한 몇 가지 제언, <https://www.emerics.org/446>(검색일: 2021. 4.2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БНСУ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ны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ба цаашдын зорилт

И Пён Рэ (БНСУ-ын Хангүг Гадаад Судлалын Их Сургууль)

## 1. Хоёр улсын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ны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БНСУ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 1990 оны 3 дугаар сарын 26-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дараа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д хамгийн онцгой байсан салбар нь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 юм. БНСУ,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 нь өнгөрсөн 30 жилд маш хурдан гэж хэлж болохоор бүхий л хүрээ, салбарт өргөжсөн билээ. Үүнийг хоёр улсын иргэдийн харилцан зорчсон тоо эрс нэмэгдсэн байдал маш сайн харуулж байна. БНСУ-д зорчсон монголын иргэдийн тоо 1990 онд ердөө 152 хүнээс хэтрэхгүй байсан бол 2000 онд 12,156 хүн болон өсч, 2019 онд 113,599 хүн болж 10 дахин өсч, өсөлтийн хэмжээ нь жил ирэх тутам нэмэгдэж байна. Энэ чиг хандлагыг харвал хэрвээ 2020 оны эхэнд “ковид-19” гараагүй байсан бол БНСУ-д зорчих монголчуудын тоо үргэлжлэн нэмэгдэх байсан.

Хүснэгт 1. БНСУ-д зорчсон монголчуудын тоо

Хэмжих нэгж: хүн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3	2015	2017	2019
152	3,792	12,156	23,939	41,958	48,004	63,740	77,918	103,916	113,599

Эх сурвалж: БНСУ-ы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газар. 2020 оны 4 сар.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татистик.

(한국관광공사, 2020년 4월 한국관광통계 공표)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с хойш БНСУ-д зорчсон монгол иргэдийн тооны өсөлтөөс дутахгүй монгол улсад зорчсон солонгос иргэдийн тоо их хэмжээгээр нэмэгджээ. Тухайлбал, статистикийн мэдээлэлд анх тэмдэглэгдсэнээр 1999 онд 5,161 хүнээс хэтрэхгүй байсан монгол улсад зорчсон солонгос иргэдийн тоо 2001 онд 10,028 хүн болон нэмэгдэж, 2019 онд 101,279 хүн болж 10 дахин өсчээ.

Хүснэгт 2. Монгол улсад зорчсон солонгосчуудын тоо

Хэмжих нэгж: хүн

1999	2001	2005	2008	2010	2011	2013	2015	2017	2019
5,161	10,028	30,787	43,396	42,231	43,994	45,178	47,213	74,921	101,279

Эх сурвалж: Монгол улс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газар, зорчсон иргэдийн тоо (몽골국통계청, 입국자 수)

Хоёр улсын ард иргэдийн харилцан зорчсон тоо эрс өссөн нь төрийн салбар болон хувийн салбарыг үл харгалзан хоёр улсын хооронд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 тэр хэмжээгээр нэмэгдсэнийг илэрхийлж байна. Мэдээж монголчуудын БНСУ-д зорчих, солонгосчуудын Монгол улсад зорчих зорилго нь их ялгаатай байна. Төрийн салбарт ч хувийн салбарт ч тэр. Төрийн салбарын гол төлөөлөл болох КОЙКА төслийн хувьд монголчууд ихэнхдээ мэргэжил тус бүрээр бүлэг дадлагажигчид солонгос руу зорчиж, эсрэгээрээ солонгосчууд мэргэжилтэн

эсвэл сайн дурын ажилтны томилгоогоор монголд зорчжээ. Хувийн салбарын хувьд монголчууд солонгос руу эдийн засгийн зорилго ба гадаадад суралцахаар явж, солонгосчууд монгол руу явах зорилгод аялал жуулчлал хамгийн их хувийг эзэлж байна.

## 2.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 өргөжиж байгаа шалтгаан

1990 онд албан ёсны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с хойш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 бүх талаар өргөжиж байгаа хэд хэдэн шалтгаан байна. Нэгдүгээрт,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эхэн үед монголын тухай сонирхол анхаарал татах болсон шалтгаан нь бодит байдлаас эхэлсэн гэж хэлж болно. Өнгөрсөн хугацаанд үзэл суртлын шалтгаанаар зорчиж чадахгүй байсан газруудын талаарх сониуч сэтгэл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тухай сонирхлыг өдөөсөн билээ. Монгол улс 1921 оны ардын хувьсгалын дараа ЗХУ-ын хамгийн үнэнч дагуул улс байсан бөгөөд Берлиний хана нуран унах 1989 он хүртэл ЗХУ болон Зүүн европын бүс нутгийн социалист орнуудаас бусад гадаад ертөнцтэй харилцаа нь бараг тасарсан байсан. Бидний хувьд монгол нь очиж боломжгүй улс байсан бөгөөд хаалга нь нээгдсэн монголын тухайд хүмүүсийн сонирхол тэр хэмжээгээрээ их байхаас аргагүй байсан. Энэ талаасаа 1900-аад оны эхээр гарч ирсэн монголын тухай сонирхлыг 1980 оны сүүлийн хагасаас дэлгэрсэн Зүүн европ болон ЗХУ-ын талаарх сонирхолтой төстэй гэж үзэж болно. Тодруулбал, БНСУ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хоос өмнө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ба улс төрийн хүрээнийхэн нь умардын улсуудтай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гаа өргөжүүлэх тулд, мөн Хойд солонгосын асуудалд ач холбогдол өгч Монголтой харилцах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г чухалчилж байсан. Бизнес эрхлэгчид нь байгалийн баялаг, түүхий эдийг олж авах болон Сибирьт нэвтрэх суурь газар болохынх нь хувьд монгол улсын ач холбогдолд анхаарлаа хандуулж байсан.

Хоёрдугаарт, үүнтэй зэрэгцэн солонгос хүн ба монгол хүн, солонгос хэл ба монгол хэл нь нэг үндэснээс гарсан, тиймээс эрт үеэс эхлэн түүхээ хуваалцсан гэсэн баталгаажуулахгүй *бүлгийн үзэл бодол*, ерөнхийдөө үндэс нэгтэй гэсэн ойлголт нь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ны эхэн үед хоёр улсын ард түмнийг ойртуулж өгсөн чухал шалтгаан гэж хэлж болно. Үүнээс ч илүү сонирхолтой зүйл бол хоёр улсын ард түмний нэгэндээ хандах бүлгийн үзэл бодол нь одоо ч төрийн болон хувийн салбарт байнга өргөжин тэлж байгаа юм. Тухайлбал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хэргийн сайд асан Д.Цогтбаатар 2020 оны 3 сарын 26-нд БНСУ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30 жилийн ойд зориулан хэвлэлд өгсөн ярилцлагандаа “БНСУ, Монгол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 нь эрт дээр үеэс улбаатай, хоёр улсын ард түмэн нь өнө эртний түүхэн харилцаатай явж ирсэн. Бид хэл, соёл, зан заншлын хувьд ч ижил төстэй зүйл ихтэй үндэстнүүд юм” гэж онцлон хэлсэн. БНСУ-аас Монгол улсад суугаа Элчин сайд И Ёхун мөн энэ өдөр хэвлэлд өгсөн ярилцлагандаа “БНСУ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ын харилцааг ярихад хэзээ ч орхихгүй дурдах зүйл нь ард түмэн хоорондын нягт харилцаа, солилцоо юм. Бид хэл, соёлын олон нийтлэг зүйлдээ тулгуурлан ард түмнийхээ солилцоог гүнзгийрүүлж ирсэн” гэсэн төстэй үгийг хэлсэн. Энэ хоёр эрхмийн хэлсэн үг нь үнэн эсэхтэй хамааралгүйгээр үндэс нэгтэй тухай бүлгийн үзэл нь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д нөлөөлж байгааг баталж байна.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дараа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салбар төдийгүй төрийн болон хувийн салбарт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 хурдацтай хөгжиж байгаа шалтгааны нилээд хэсгийг эндээс харж болно. 2021 оны байдлаар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бүхий л байгууллага ба харьяа олон нийтийн байгууллагууд нь монголтой шууд болон шууд бус харилцаатай гэж хэлж болохоор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 гүнзгийрсэн.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Хөгжлийн албан ёсны тусламж ба Төрийн бус байгууллагуудын олон улс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төслүүдэд ч монгол улс орхигдсон тохиолдол бараг байхгүй юм. Хоёр улсын эрдэмтдийн хоорондхи эрдэм

судлалын солилцоо нь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эхэн үеийн хэл, ардын зан заншил, түүх, соёлын салбараас халин гарч анагаах ухаан, техник технологи судлал, эдийн засаг, хөдөө аж ахуй, нийгмийн хамгаалал, сургалт зэрэг бүхий л салбарт өргөжсөн байна. 2021 оны байдлаар 3.3 сая орчим цөөн хүн амтай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эмжээ болон БНСУ-тай хийж буй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хэмжээг харьцуулбал үнэхээр өвөрмөц үзэгдэл гэж хэлж болохоор бөгөөд, үүний цаана ах дүү үндэстэн гэсэн гүн гүнзгий бодол оршиж байдаг. 1990 оны эхэн үеэс эхлэн солонгос улсын жижиг дунд худалдаачид нэгэн зэрэг олноороо монгол руу явж, христ ба буддын шашин гэх зэрэг маш олон шашны ажилтнууд монголд нэвтрэн ороход үндэс нэгтэй гэсэн ойлголт ба гадаад төрхийн ижил байдал нь багагүй нөлөө үзүүлсэн.

Монголчууд ч мөн адил солонгос хүмүүст дотно, найрсагаар ханддаг юм.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дараа БНСУ ба Монгол улстай холбоотой ажлыг хариуцаж байсан хүмүүсийн үлдээсэн баримтуудаас харвал монголчуудын найрсаг зочломтгой байдал ба солонгос хүмүүст хандах ойр дотно мэдрэмжийг онцгойлон тэмдэглэсэн тохиолдол олон байдаг. Мэдээж хоёр улсын иргэд болон эд материалын солилцоо нь нэмэгдэж, үүний хамт хоёр талын хооронд том жижиг асуудлууд үүсч монголчуудын солонгос улс, солонгос хүний талаарх ойлголт ихээр өөрчлөгдсөн ч солонгос улс, солонгос хүнд хандах тэдний нөхөрсөг хандлагыг үгүйсгэх аргагүй юм. Д.Цогтбаатар сайдын хэлснээр солонгос улс нь монголтой хэл, соёл, заншил нь ойролцоо хүмүүс амьдардаг орон бөгөө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хувьд ч ихээхэн хөгжсөн улс юм. Тиймээс одоогийн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ы бодит байдалтай холбоогүйгээр монгол хүмүүс БНСУ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хөгжилд олон талаас тус дэм болж чадна гэж найдаж байна.

Гуравдугаарт,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айдал ба хоёр улсын хоорондхи цалингийн ялгаа, хөдөлмөрийн нөхцөл зэрэг ард түмний амьдралтай холбоотой асуудлууд нь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г өргөжүүлэх гол шалтгаан юм. Зах зээл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системд шилжсэний дараа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аг нь өсөлт бууралтыг туулж, энэ үйл явцад монголчууд ажлын байр хайн харийн улсууд руу явсан бөгөөд тэдгээрийн дундаас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амгийн анх БНСУ-тай ажиллах хүчнийг гадаадад илгээх тухай Харилцан ойлголцлын санамж бичиг байгуулсан юм. Монголчууд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ажиллах хүчнээ илгээх улсаар БНСУ-ыг сонгох шалтгаан байсан. БНСУ нь газар зүйн хувьд ойр, солонгос хүмүүс гадаад төрхөөрөө монголчуудтай нь ижил төстэй, соёл нь ойролцоо бөгөөд цалин нь өндөр талдаа байсан. Мөн дээр дурьдсанчлан бүлгийн үзэл бодол зэрэг шалтгаанаар энэ хугацаанд монголчуудыг найрсагаар хүлээн авч байсан солонгосын нийгмийн уур амьсгал ч монголчууд солонгос руу явахыг нэмэгдүүлэхэд тодорхой үүрэг гүйцэтгэсэн гэж үнэлж болно.

### **3.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г өргөжүүлэх шаардлага**

БНСУ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ын хооронд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эрс өргөжсөний үр дүнд БНСУ нь уламжлалт монгол хүмүүсийн амьдрах газар, өөрөөр хэлбэл Монгол улс, ОХУ-ын Бүгд Найрамдах Буриад улс,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Халимаг улс, Хятадын Өвөр монголын өөртөө засах орныг эс тооцвол энэ дэлхий дээр монголчууд хамгийн их амьдарч байгаа улс болсон. 2021 оны 2 сарын сүүлийн байдлаар БНСУ-д удаан хугацаагаар оршин сууж байгаа 41,852 монгол хүн байна. 2021 оны 4 сарын 15-ны байдлаар монгол улсын хүн ам 3.3 сая байгаагаас тооцож үзвэл нийт хүн амын 1.3% нь БНСУ-д амьдарч байгаа бөгөөд энэ нь үнэмлэхүй олон гэж хэлж чадахгүй ч бага тоо биш юм. Дэлхийн хэмжээний мэдлэгийн сайт болох Wikipedia дээр ‘Mongolians in South Korea’ гэсэн гарчиг байдаг. Нилээд эрт гарсан энгийн материал боловч, энэ нь БНСУ-д амьдарч байгаа монголчууд нь зөвхөн бидний төдийгүй дэлхий нийтийн сонирхлыг татах болсон жишээ гэж хэлж болно.

БНСУ-д 2016 оны 5 сарын 18-20-ны өдрүүдэд айлчилсан Монголын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 асан Ц.Элбэгдорж ч бас энэ талыг чухалчилсан. Тэрээр 2016 оны 5 сарын 19-нд БНСУ-ын Хангүг Гадаад Судлалын Их Сургуулийн “Улс төрийн ухааны хүндэт доктор” цолыг хүртээд хэлсэн үгнийхээ эхэнд БНСУ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ад оршин сууж байгаа монголчууд ба солонгосчууд, монгол хүн болон солонгос хүний гадаад төрхийн адил байдал, үндэстний гарал үүсэл ба хэлний төстэй байдал, түүхийн талаас хоёр улсын онцгой харилцааг дурдсаны дараа,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 нь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ы ирээдүйн хамгийн чухал баялаг болохыг онцлон чухалчилсан билээ.

Түүний хэлснээр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 нь цаашид хоёр улс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гол хүчин зүйл юм. Мэдээж өнгөрсөн 30 жилийг эргэн харвал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 өргөжсөн нь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д зөвхөн эерэг үүрэг гүйцэтгэсэн гэж хэлж чадахааргүй байна. 1990-ээд оны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ны эхэн үед байсан уур амьсгал байхгүй болж хоёр улсын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 нэмэгдэнгээ олон янзийн таагүй явдал үүсч эхэлсэн юм.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 өргөжсөнтэй зэрэгцэн хоёр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хялбаршсан эсэхийг тооцож үзэх,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ны өргөжилтийн хүрээнд монгол улсад БНСУ-ын байр суурь нэмэгдсэн эсэхийг ч бас тусад нь судалж үзэх хэрэгтэй юм. Тэглээ ч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 өргөжсөн нь цаашид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г сайжруулахад хамгийн чухал хүчин зүйл гэдэг нь өөрчлөгдөхгүй. Ялангуяа нийт хүн амын 1.3% нь болох солонгост оршин сууж буй монголчууд нь бусад ямар ч улсад байхгүй бидний үнэт баялаг юм. Энэ баялаг нь эдийн засаг, улс төр,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талаасаа ч манай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Монгол улсын талаарх бодлогыг хэрэгжүүлэх суурь болох болно. Яг энд БНСУ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г илүү өргөжүүлэн хөгжүүлэх шалтгаан оршиж байна.

#### **4. Ирээдүйн 30 жилд БНСУ ба Монгол улсын харилцааг сайжруулах тухай санал**

Өнгөрсөн 30 жилийн турш үргэлжилсэн БНСУ, Монгол улсын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дүгнэж үзвэл гаднаас нь харахад маш хурдан байсан гэж хэлэхээр хөгжиж байсан. Албан ёсны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он 1990 оны дараа монголд зочилсон солонгосчуудын тоо нэг жилд хэдэн арван хүнээс хэтрэхгүй байсан ч 30 орчим жилийн хугацаа урсан өнгөрсний дараа жилд 100 мянган хүн болж нэмэгдсэн. Мөн тэр үед хэдэн зуугаас хэтрээгүй байсан солонгост амьдардаг монголчуудын тоо энэ хугацаанд 41,000 хүн болж нэмэгдсэн. Гэвч одоо хоёр улс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нь анх хоёр улсын ард түмний найдаж байсан түвшинд хүрч чадаагүй гэсэн мэдрэмж төрж байна. Монголд орсон БНСУ-ын компаниуд болон хоёр улсын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хэмжээ нь гацаж тогтмол хүрээнээс даван гарч чадахгүй, монгол дахь БНСУ-ын нэр хүнд ч 1990 оныхтой бараг ялгаа байхгүй харагдаж байна.

Харин “Ажил хийхгүй гэж байгаа хүнд арван шалтгаан байдаг, ажил хийх гэж байгаа хүнд зуун арга байдаг” гэсэн монголын зүйр үгтэй адил хоёр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бус байгууллагууд хичээн зүтгэвэл монголд олон улс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гол жишээ болдог Япон улсыг гүйцэж, 30 жилийн дараа Япон улсын өмнө гарч чадна. Давтан хэлэхэд солонгосчууд ба монголчууд нь бусад ямар ч орны хүмүүст байхгүйгээр бие биендээ найрсаг дотно сэтгэлийг агуулж байдаг. Мөн БНСУ-д монголын нийт хүн амын 1.3% болох монгол иргэд байнга оршин сууж байна. Түүгээр зогсохгүй БНСУ-д оршин сууж буй монголчуудын хүүхдүүдэд зориулсан Монгол сургууль (бага, дунд, ахлах сургуулийн сургалт) хүртэл байна. Энэ сургууль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Боловсролын яамнаас зөвшөөрсөн албан ёсны сургууль бөгөөд ийм сургууль магадгүй дэлхийн хэмжээнд маш онцлог жишээ болох юм. Энэ нь бусад ямар ч улсад байхгүй солонгос улсын томоохон баялаг юм. Энэ баялгийг суурь болгон харилцан

илтгэлцлийг бий болгож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өргөжүүлбэл өнгөрсөн 30 жилээс илүү их амжилтанд хүрэх болно.

Монголын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 асан Ц.Элбэгдоржийн хэлснээр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 нь цаашид хоёр улс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чухал хүчин зүйл юм. Мэдээж өнгөрсөн 30 жилд БНСУ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ын харилцаа ямагт эв найртай байгаагүй. Мэдээж том жижиг асуудлууд багагүй байсан. Тэгсэн ч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 өргөжсөн нь цаашид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г сайжруулахад хамгийн чухал хүчин зүйл гэдэг нь өөрчлөгдөхгүй юм. Дахин хэлэхэд БНСУ-д оршин сууж байгаа монголчууд нь бусад ямар ч улсад байхгүй бидний үнэт баялаг юм. Энэ баялаг нь хойшид улс төр, эдийн засаг,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 соёл,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 зэрэг бүхий л салбарт БНСУ, Монгол улс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суурь болох болно. Чухам энд БНСУ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г илүү өргөжүүлэн хөгжүүлэх учир шалтгаан байна. Үүнтэй холбогдуулан дараах хэдэн зүйлийг ирээдү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зорилт болгон дэвшүүлж байна.

Нэгдүгээрт,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д хамгийн удаан оршиж байгаа асуудлын нэг болох визийг өөрчлөн шийдвэрлэх арга замыг олох хэрэгтэй байна. Монгол иргэд солонгосын виз авахад учирч байгаа бэрхшээлүүд нь ужгирсан асуудал бөгөөд, хоёр улсын найрсаг уур амьсгалд бодит нөлөө учруулж байна. Зарим нь харилцан визгүй зорчих хэлэлцээрийг байгуулах хэрэгтэй гэсэн санал дэвшүүлж байгаа ч бүртгэлгүй оршин суугчдын асуудал ба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ийн түвшний ялгаа зэрэг олон асуудлаар цаг нь болоогүй гэсэн санал ч багагүй байна. Тиймээс энд гарч байгаа саналын дагуу эхлээд солонгос иргэдийн визийг чөлөөлөөд, нөхцөл байдлын өөрчлөлтийг харж дэс дараалалтайгаар монгол иргэдийн визийг чөлөөлөх, ерөнхийдөө визийг ялгаатай чөлөөлөх хэрэгтэй гэсэн санал байна. Монгол нь одоогоор визийг ялгаатай чөлөөлөх системийг АНУ, Япон зэрэг улсуудтай хэрэгжүүлж байгаа учраас БНСУ ч хэлэлцээ хийх бүрэн боломжтой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Үүний хариуд БНСУ-ын авах арга хэмжээ нь монголын залуучуудад ажиллаж аялах (working holiday) визийг зөвшөөрч, бүртгэлгүй оршин суугчдын асуудлыг хамтад нь шийдвэрлэж болох арга замыг идэвхтэй эрэлхийл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на.

Хоёрдугаарт, юуны өмнө БНСУ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ба хоёр талын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г нэмэгдүүлж бодитоор сайжруулах арга зам болгон “Монгол-Солонгос төв” (가칭 “몽골한국센터”) байгуулахыг санал болгож байна. Монгол судлалын судлаачид эртнээс солонгос соёл ба солонгос хэлийг хамруулан солонгосын тухай нэгтгэн танилцуулж, БНСУ-ын тухай мэдээллийг өгөх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н төв (한국문화원) байгуулахыг санал болгож ирсэн. Яагаад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н төв байгуулах ажил хэрэгжихгүй байгааг мэдэхгүй байна. Хэрвээ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н төв байгуулах нь бэрхшээлтэй байгаа бол Сэжүн хагдан зэрэг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болон солонгост суралцсан оюутнуудын сүлжээг удирдах ажил, солонгосы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 ба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г сурталчлах төсөл, БНСУ ба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дэмжих үйл ажиллагаа зэргийг нэгтгэ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солонгос улстай холбоотой мэдээллийг системтэйгээр түгээж, солонгос улсын тухай нэгтгэн танилцуулах байгууллага “Монгол-Солонгос төв” байгуулахыг санал болгож байна. Энэ төвөөр дамжуулан сүүлийн 30 жилд бэлтгэгдээд байгаа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судлаачид, хоёр улс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төслийн туршлагатай ажилтнууд, бусад холбогдох ойр дотны хүмүүсийг ашиглан монголчуудад бодитоор тусалж, БНСУ ба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г сайжруулах хөтөлбөр хэрэгжүүлэхийг санал болгож байна. Энэ төв байгуулагдвал монгол улсад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н төвийн үүргийг хариуцаж болох бөгөөд, монголын сургалтын байгууллагад солонгос хэл зааж байгаа профессор, багш нарын бүлгийг бүрдүүлэн эдгээр бүлгүүдээр дамжуулан үйл ажиллагаагаа хангалттай явуулж чадна.

Гуравдугаарт, БНСУ ба Монгол улс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30 жилийн ойг угтаж

БНСУ-аас Монгол улсад суугаа элчин сайдын яам, монголын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мэргэжилтнүүдийн бүлэг, монголын солонгостой холбоотой байгууллага зэргийг хамарсан хүний нөөцийг удирдах системийг бий болгохыг санал болгож байна. Объект нь КОЙКА-д уригдаж байсан төрийн албан хаагч, дадлагажигч, БНСУ-ын тэтгэлгээр суралцсан оюутнууд, бусад суралцаж байсан оюутнууд,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байгууллага болон орон нутгийн өөрөө удирдах байгууллагын солилцооны төслөөр солонгост урт хугацаанд байсан хүмүүс, бизнес эрхлэгчид, профессор ба судлаачид зэрэг солонгос улстай холбоотой хүмүүс юм. Эдгээр хүмүүс ямар нэгэн төлөөс хүсэхээс илүүтэй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 чухал гэдэгт итгэж, үнэнч сэтгэлээр БНСУ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ы хөгжлийн төлөө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боломжтой хүмүүс юм. Эдгээр хүмүүсийг нэг болгон нэгтгэж эсвэл салбараар нь бүлэглэж цаашид БНСУ ба Монгол улсын хооронд шийдэгдээгүй асуудлыг шийдвэрлэх болон хөгжлийн чиглэлийг тодорхойлоход идэвхтэй ашиглахыг санал болгож байна. Дарааллын хувьд аль хэдийн байгуулагдсан сүлжээ байвал түүнийг дэмжих, байхгүй бол үүсгэн байгуулахыг нь дэмжих арга замаар аль болох бие даасан, сайн дурын оролцоотой байхаар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ыг зөвлөмж болгож байна. БНСУ-ын Шинэ умардын бодлогод их сургууль, залуу үе,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айгууллагын солилцоо болон ажиллах хүчин бэлтгэхийг дэмжих, ойр дотнынхны сүлжээг бий болгох ба умард бүс нутгийн мэргэжилтнүүд бэлтгэхийг дэмжинэ гэсэн утга санаа агуулагдаж байдаг. Хүний нөөцийг удирдах системийг бий болгоход бага зэрэг анхаарал тавибал хоёр улсын хөгжил төдийгүй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ба монголд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ж буй солонгос иргэдэд ихээхэн тус дэм болох болно.

Цаашдын 30 жилд БНСУ, Монгол улс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д санаж явах ёстой зүйл нь монгол улс нь бид ашгийг эрмэлзэхээс илүүтэй бидний дэмжлэг илүү хэрэгтэй улс, харин урт хугацааны байр сууринаас харахад бидэнд хангалттай ашиг авчирч өгөх улс юм. Тиймээс хоёр талын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ны асуудлыг шийдэхдээ харилцан үйлчлэх зарчмаас илүү бид бага зэрэг буулт хийх нь зүйтэй юм. Одоогийн монголын байр суурь нь урьдын адил гадаад улсын дэмжлэг хэрэгтэй хөгжиж буй улс гэдгийг бодож үзсэн ч тэр билээ. Ийм буулт хийх нь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д үргэлж байсаар ирсэн бөгөөд ийм хэвшил одоо ч үргэлжилсээр байна.

#### Ашигласан материалын жагсаалт

이평래(2020), 「한몽 인적 교류와 협력과제」, 한국·몽골 미래협력의 비전,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Mongolians in South Korea”, [https://en.wikipedia.org/wiki/Mongolians\\_in\\_South\\_Korea](https://en.wikipedia.org/wiki/Mongolians_in_South_Korea)(검색일: 2021.4.23).

ЛИ Ё ХУН: Айл хүний амь нэг, саахалт айлын санаа нэг”(검색일: 2020.10.23), <http://unuudur.mn/ли-ё-хун->

айл-хүний-амь-нэг-саахалт-айлын-санаа-нэг/(검색일: 2021.4.23).

“Д.ЦОГТБААТАР: ЭНЭ 30 ЖИЛД ИТГЭЛЦЛИЙГ БЭХЖҮҮЛЖ, ХАРИЛЦААНЫ ЭРХ ЗҮЙН ҮНДСИЙГ БҮРДҮҮЛСЭН”(검색일: 2020.10.23), <https://www.montsame.mn/mn/read/220164>(검색일: 2021.4.23).

이평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러시아·유라시아 이슈 심층 분석, 한-몽 협력을 위한 몇 가지 제언, <https://www.emerics.org/446>(검색일: 2021.4.2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한국 체류 몽골인의 현황과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

D. 막마르(몽골과학아카데미, 국제관계연구소)

## 요약

한국과 몽골 관계는 외교 관계 수립 이후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적 교류 분야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글은 바로 이 주제의 범위에서 몽골 국민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와 당해국에 합법 또는 불법으로 근로 중인 몽골 국민들에게 당면한 어려움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는데 주목해야 사항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 이후 인구이동 수치가 회복되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간주하고, 이 글은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키워드: 한국, 몽골 국민, 계약근로자, 비자, 노동시장, 고용주, 불법체류자, 인구이동

## 통계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1990년에는 157명의 몽골 국민이 한국을 방문하였으나 2019년에는 118,977명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2020년 현재 한국에는 42,511<sup>1</sup>명의 몽골 국민이 체류하고 있으며, 몽골에는 2,209<sup>2</sup>명의 한국 국민이 체류하고 있다. 한국 거주 몽골인들의 성별 인원을 살펴보면 남성 20,646명, 여성 21,865명이다. 이를 비자 종류에 따라 분류하면 단기체류 17,254명, 유학 6,008명, 어학연수 2,399명, 구직 1,075명, 합법 취업 5,058명, 동반 가족 5,322명, 영주권 690명, 한국 국민과의 결혼 1,864명, 기타 목적의 거주 2,841명이다.

[표1] 한국 체류 몽골인 수

No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	체류	29920	28634	26461	24175	24561	30527	35206	45744	46286	48185	42511
2	방문	41889	48632	61771	65446	64096	81201	82780	108139	118783	118977	22535

[표2] 몽골 경제 성장률(2010-2020년)<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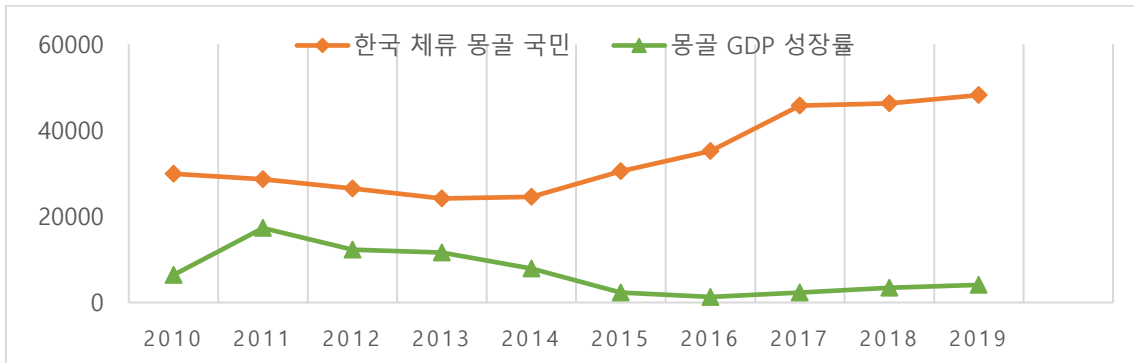
No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	경제 성장률	6.4	17.3	12.3	11.6	7.9	2.3	1.3	2.3	3.4	4.1	-5.3

[그림 1] 한국 체류 몽골 국민 수 및 몽골 GDP 성장률

<sup>1</sup> www.immigration.go.kr,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홈페이지

<sup>2</sup> 몽골 통계청, 1212.mn

<sup>3</sup> http://vip76.mn/content/41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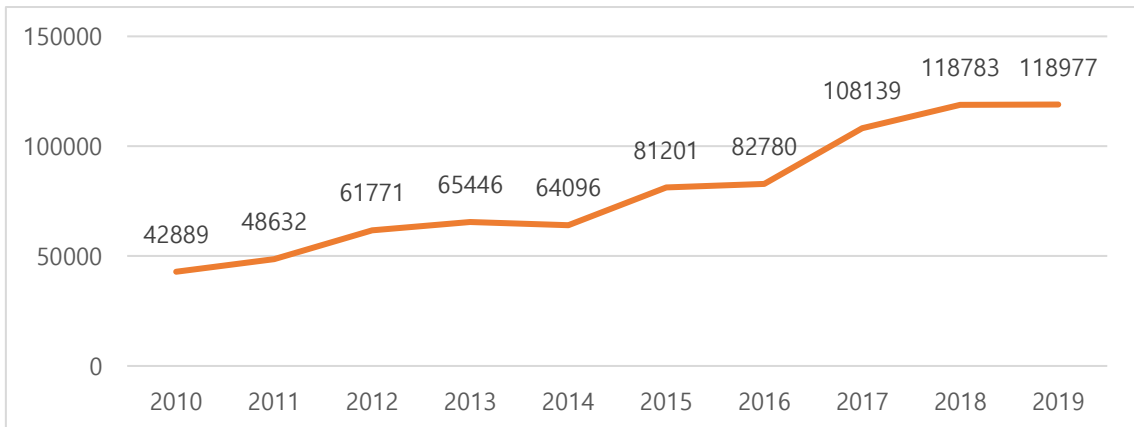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보듯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시기에 한국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의 수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체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몽골의 경제 위기로 인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몽골 국민의 이동은 몽골 경제 및 실업 수준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에서 일하면서 거주 중인 몽골 국민

#### 1. 단기 근로자

[그림2] 방한 몽골인 수(2010-2019년)



한국을 방문한 몽골 국민의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방면에 걸친 양국 교류의 확대와 관련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단기 근로 목적의 방문자 수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2019년에는 96,764명의 몽골 국민이 단기(최대 90일)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들 중 의료, 관광, 비즈니스, 회의 참석 등의 사유로 입국한 국민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다. 비자 기간을 위반하지 않고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외국 국적 국민은 한국 비자 발급 규정에 따라 3년 또는 5년 기간의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복수비자를 받은 몽골 국민들이 매년 2~3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예전에는 한국에 거주했거나, 한국어를 알고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방식을 선택하였다. 또한 계절적 성격 및 단기 알바를 하는 몽골 국민도 적지 않다. 이들은 취업허가 없이 불법으로 근로하기 때문에 스스로 많은 위험을 떠안고 있다.

## 2. 고용 계약에 따라 일하고 있는 근로자

양국 정부 간 협약에 따라 1998년 한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몽골 기업 'Zag'과 처음으로 몽골 국민 500명의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였다.<sup>4</sup> 본 협약에 따라 1998년 5월 처음으로 몽골 근로자 200명이 한국 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sup>5</sup> 한국으로의 근로자 파견을 공식적으로 허가 받은 16개국 중 몽골은 근로자 수에서 11위를 차지한다.<sup>6</sup> 한국에서 근로 및 거주를 희망하는 몽골 젊은이들은 많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해외 파견 근로자 정원은 한정되어 있다. 한국을 선택하는 몽골 젊은이들이 고용 계약으로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사항들이 영향을 미친다.

- 임금 수준이 몽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 생활비가 들지 않아 저축할 기회가 많음
- 4대 보험이 되고 (각종) 국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국인과 몽골인은 외모가 서로 유사하고, 피부색으로 차별 받는 경우가 없음
- 양국의 기후 조건이 비슷함
- 지리적으로 가까움

한국 젊은이들은 제조업 및 농업 분야에서의 노동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동 시장의 공백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최저월급은 1,795,310원<sup>7</sup>이다. 몽골 젊은이들은 대부분 자동차 부품, 전자 제품, 조선업, 플라스틱, 섬유, 식품 제조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봉급 인상, 승진, 고향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단기적으로 가족을 초대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몽골인들의 체력, 업무 습득 능력, 끈기 있는 태도를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처음 한국을 방문한 젊은이들이 한국어, 한국문화,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높은 작업량, 식단 적응의 어려움, 타인의 유혹 등의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미등록 체류를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계약 기간 만료, 음주 외에, 법률과 풍습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한국 사회에서 몽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반대로 한국 기업에서 몽골 근로자 채용 인원이 줄어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나아가 관광, 단기 방문, 어학연수 명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일하는 몽골인들의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sup>8</sup>

<sup>4</sup> 몽골 외교부 중앙기록보관소, XD-112, HD-29, p.2.

<sup>5</sup> 몽골 외교부 중앙기록보관소, XD-112, HD-30, p.27.

<sup>6</sup> <http://www.moel.go.kr/> 대한민국 고용노동부홈페이지.

<sup>7</sup> 대한민국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minimumwage.go.kr)

<sup>8</sup> 몽골 외교부 중앙기록보관소, XD-112, HD-188, p.67-70.

### 3. 불법체류자(미등록체류자)

1994년 서울-울란바타르 간 직항 노선이 운행되기 시작하면서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동이 늘어나고, 몽골 국민들이 점차 한국에 등록하지 않고 체류하기 시작하였다. 그 숫자는 1994년 124명에서, 1995년 640명, 1996년 3,457명으로 증가하여 2019년 현재 17,510명이 한국에 미등록체류하고 있다. 매년 자진 출국 유도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강제로 많은 몽골 국민이 귀국시키고 있지만 최근 미등록체류를 선택한 몽골 국민의 수가 귀국한 국민의 수보다 더 많다.

[표3] 한국 내 미등록체류 몽골 국민

No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1	미등록체류자	8274	10146	12719	15919	17510
2	자진귀국자	723	1367	1171	1975	1191
3	강제귀국자	695	1013	995	1191	776

이들은 대부분 가족 또는 동거인과 거주하고 있다. 미등록체류자들은 등록체류자와 달리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 모든 종류의 보험 및 국가 제공 서비스에 가입 불가, 이로 인한 위험 및 어려움
- 독신 거주자들이 동거하거나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음. 이혼과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
- 한국의 생활 환경에 익숙해져 귀국에 대한 관심이 낮아짐
- 미등록체류자 자녀들이 몽골과 한국 양쪽의 정체성 상실
- 법적 능력이 없고, 제한된 환경에서 거주
- 다른 국가의 방문이나 국경 통과 불가
-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축 기회가 적음

미등록체류자에게 위에서 언급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거주를 희망하는 구체적인 사유 및 긍정적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 일부 미등록체류자들의 경우 한국에서는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하지만 몽골에 귀국하게 되면 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몽골의 임금이 한국보다 적다는 것이 귀국하지 않는 주요 이유가 된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아래의 요인들이 미등록체류자들이 귀국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로 작용한다.

- 온라인 बैं킹을 통해 양국 간 송금에 장벽이 사라짐
- 온라인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게 됨
- 적십자, 인도주의, 종교 단체를 통해 보건 서비스를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고용주가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본국으로 보낼 가능성이 적음
- 법률 위반 행위가 발생해도 큰 주목을 받지 않는다면 출입국사무소 또는 경찰의 수사를 받거나 체포될 확률이 낮음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은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9년에 몽골로 1억 2,040만

달러 규모의 개인송금을 진행하였다. 여기에 단기 근로자들의 수입과 비금융권을 통한 현금 송금액을 더하면 적지 않은 수치가 나온다. 미등록 및 근로계약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몽골인들 중 공장장 또는 부서장을 맡아 높은 월급을 받는 국민들이 많다. 또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몽골에서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다.

[표4] 한국 체류 몽골 국민의 연령별 인구

No	연령	인구 수
1	0-4	1776
2	5-9	1410
3	10-14	778
4	15-19	1964
5	20-24	4937
6	25-29	8036
7	30-34	9331
8	35-39	6347
9	40-44	4683
10	45-49	3934
11	50-54	2357
12	55-59	1462
13	60세 이상	1170
	총	48185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에는 배워야 할 나이대의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약 300명의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공식적인 몽골 교육 프로그램 운영되는 학교에 재학 중이다. 다른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한국의 유치원과 학교는 미등록체류 몽골인에게도 열려 있다. 한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국어로 자유롭게 말하고 쓸 수 있지만 몽골어로 말하거나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새롭게 몽골어를 학습해야 하고, 몽골의 생활환경, 사회 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들고, 한국에서의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

## 결론

몽골인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며 벌어들인 수익은 국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임 연령 및 노동 생산의 정점의 나이에 외국으로 떠난 젊은이들이 수년간 해외에서 체류하는 것은 몽골 인구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장기에 걸친 미등록체류자 생활은 위험이 뒤따를 뿐 아니 단점도 있다. 근로 계약 기간 동안 재무 관리를 잘하여 목표를 세워 5년 일한 뒤 귀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꾸준히 근무하며 계약 기간을 마치면 인내력과 업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 위에 저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은 젊은이들의 미래에 큰 이점이 될 것이다.

한국 체류 몽골 국민들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미등록체류 및 근로 계약으로 체류 중인 국민들의 귀국 시 일자리 마련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
2. 계약 근로자들을 몽골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직종에 종사시키는 데 주목함. 이렇게 함으로써 습득한 기술을 몽골에서 그 가치를 잃지 않게 할 수 있음
3. 처음 한국에 가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근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과 미등록으로 일하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소개함
4.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이 몽골에 귀국하게 될 경우 적절한 사회화 및 적을 과장을 돕는 방안 마련.

## 제언

오늘날 몽골에는 한국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문 지식을 습득한 젊은이 많다. 이러한 인적자원, 한국의 기술, 몽골의 천연자원을 결합한 합작회사를 세울 다양한 가능성이 양국 비즈니스 경영자에게 열려 있다. 몽골은 가축과 목축 관련 저렴한 원자재, 건강향토양, 넓은 영토 등 상대적으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유럽연합 GS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몽골에서 생산된 다양한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낮은 관세 조건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일반인들의 상호 무비자 방문에 대한 문제가 양 정부 간에 논의되고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외국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한국에 미등록체류자 수가 급증한 사례가 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와 단기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에서는 몽골 국민들에게 단기(최대 6개월) 근로허가비자를 발급하면 양측 모두에 적절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는 단기노동 일자리가 많아 이러한 형태의 종사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몽골 국민에게 사증을 면제한다면 한국에 미등록체류자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양국 모두에 증가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단기 사증을 발급한다면 미등록체류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관련 사회적 문제도 감소하며, 주몽골 한국대사관 및 세관의 어려움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몽골 국민의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다. 몽골의 인구는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러한 사증을 신규로 발급한다고 하여 한국 노동시장 구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몽골 외교부 기록보관소 문서
2. [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3. <https://www.1212.mn/>
4. <https://www.mk.co.kr/>
5. [www.mongolbank.mn](http://www.mongolbank.mn)
6. HTTP.VIP76.MN/content/41650
7. <http://www.moel.go.kr/>

8. [http.minimumwage.go.kr](http://minimumwage.go.kr)
9. [hudulmur-halamj.gov.mn](http://hudulmur-halamj.gov.mn)
10. 한국 서울, 대구시 거주 또는 귀국한 몽골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СОЛОНГОС ДАХЬ МОНГОЛЧУУД, ТЭДЭНД ТУЛГАМДСАН АСУУДЛУУД

Д.Мягмар (ШУХ, ОУХХ)

## Товч агуулга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 нь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он цагаас хойш олон чиглэлээр, тэр дундаа иргэд хоорондын харилцаа жил ирэх тусам өргөжиж байна. Энэхүү сэдвийн хүрээнд монгол иргэд олноороо БНСУ-ыг зорьдог шалтгаан, тус улсад хууль ёсоор болон хууль бусаар хөдөлмөр эрхлэн оршин сууж буй монгол иргэд, тэдэнд тулгардаг хүндрэл бэрхшээлүүдийг тодорхойлж, түүнийг шийдвэрлэхэд анхаарах зүйлсийг тогтоохийг зорилоо. Цар тахлын дараа иргэдийн хөдөлгөөн сэргэж өмнөх байдалдаа орно гэж үзэн ковид гарахын өмнөх оны/2019/ тоон мэдээлэлд тулгуурласан болно.

*Түлхүүр үгс: БНСУ, монгол иргэд, гэрээт ажилтан, виз, хөдөлмөрийн зах зээл, ажил олгогч,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гч, иргэдийн хөдөлгөөн.*

## Тоон үзүүлэлт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он 1990 онд 157 монгол иргэн БНСУ-д зорчиж байсан бол 2019 оны байдлаар 118.977 иргэн тус улсад зорчсон байна. 2020 оны байдлаар БНСУ-д Монгол Улсын 42.511<sup>1</sup> иргэн оршин сууж байгаа бол Монгол Улсад БНСУ-ын 2.209<sup>2</sup> иргэн оршин сууж байна. Үүнээс хүйсээр ангилбал эрэгтэй 20.646, эмэгтэй 21.865, визний төрлөөр ангилбал түр оршин суух 17.254, оюутан 6.008, хэлний бэлтгэл 2.399, ажил хайгч 1.075, гэрээт ажилтан 5.058, оршин суугчийн гэр бүл, хамаатан садан 5.322, байнга оршин суух эрхтэй 690, солонгос иргэнтэй гэр бүл болсон 1.864, бусад зорилгоор оршин сууж буй 2.841 иргэн байна.

Хүснэгт 1. БНСУ-д оршин суугаа болон зорчсон монгол иргэд.

№	Он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	Оршин суугаа	29920	28634	26461	24175	24561	30527	35206	45744	46286	48185	42511
2	Зорчсон	41889	48632	61771	65446	64096	81201	82780	108139	118783	118977	22535

Хүснэгт 2.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sup>3</sup>

№	Он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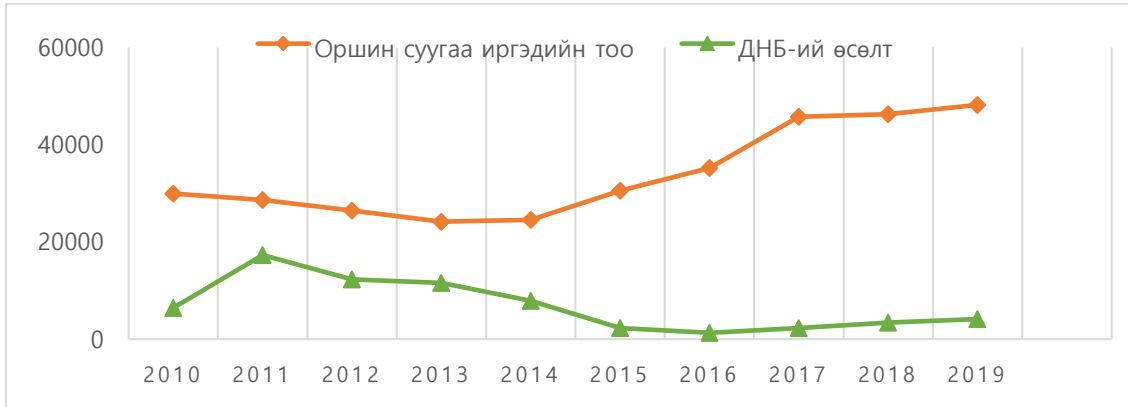
<sup>1</sup> [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БНСУ-ын Хууль зүйн яамны Цагаачлалын албаны вэб хуудас.

<sup>2</sup> [Үндэсний статистикийн хороо \(1212.mn\)](http://www.kostat.go.kr)

<sup>3</sup> [HTTP.VIP76.MN/content/41650](http://www.vip76.mn/content/41650)

1	Дүн	6.4	17.3	12.3	11.6	7.9	2.3	1.3	2.3	3.4	4.1	-5.3
---	-----	-----	------	------	------	-----	-----	-----	-----	-----	-----	------

График 1. БНСУ-д оршин суугаа иргэдийн тоо, Монгол улсын ДНБ-ий өсөлтийн харьца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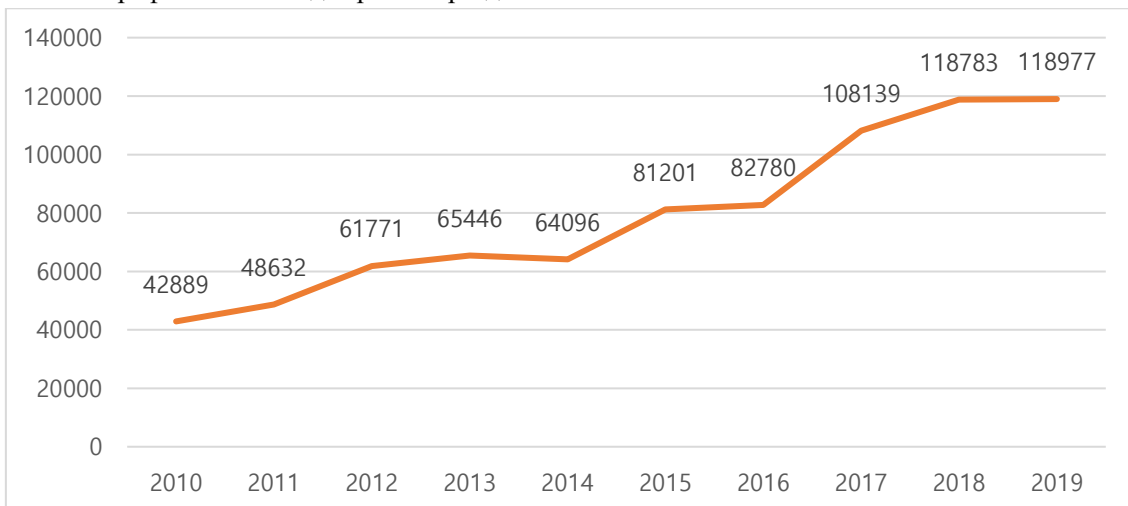


Эдийн засаг өндөр өсөлттэй жилүүдэд БНСУ-д оршин суух иргэдийн тоо буурч байсан. Гэвч 2014 оноос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 буур эхлэхэд оршин суух иргэдийн тоо өсч байна. Ялангуяа 2015 оны эдийн засгийн хямралыг дагаад тус улсад оршин суух иргэдийн тоо эрчимтэй нэмэгдэж байна. Солонгосыг зорих иргэдийн хөдөлгөөн нь улс орны эдийн засгийн нөхцөл байдал, ажилгүйдлийн түвшинтэй шууд хамааралтай байна.

#### БНСУ-д ажиллаж амьдарч буй монгол иргэд

#### 4. Богино хугацаагаар хөдөлмөр эрхлэгчид

График 2. БНСУ-д зорчсон иргэдийн тоо



БНСУ-д зорчих иргэдийн тоо жил бүр тасралтгүй өсч байгаа нь хоёр орны харилцаа олон чиглэлээр өргөжиж байгаатай холбоотой боловч нөгөө талаар богино хугацаагаар хөдөлмөр эрхлэгчдийн тоо өссөнтэй холбоотой. 2019 онд 96,764 иргэн түр оршин суух 3 сар

хүртэл\ визээр нэвтэрсэн байна. Үүнээс эмчилгээ, аялал жуулчлал, бизнес, хурал семинар зэрэг тодорхой зорилгоор нэвтэрч буй иргэд байгаа ч дийлэнх нь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 зорилгоор нэвтэрдэг. Визний хугацаа хэтрүүлэлгүй олон удаа зорчсон иргэд БНСУ-ын виз олгох журмын дагуу 3 болон 5 жилийн олон удаа нэвтрэх зөвшөөрөл авдаг. Олон удаа нэвтрэх зөвшөөрөл\multi visa\ авсан иргэд жилд 2-3 удаа Солонгос улсад нэвтэрч ажиллах нь түгээмэл болсон. Өмнө нь БНСУ-д оршин сууж байса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мэдлэгтэй, бэлэн ажлын байртай иргэд энэ замыг сонгох нь элбэг. Мөн улирлын чанартай болон өдрийн ажил\арбайт\ хийдэг иргэд ч цөөнгүй. Тэд хууль бусаар хөдөлмөр эрхэлдэг учир асар олон эрсдэл үүрдэг.

#### 5.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гээр ажиллаж буй иргэд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ын тохиролцооны дагуу 1998 онд БНСУ-ын” Жижиг дунд үйлдвэрийн холбоо” Монголын талын хэрэгжүүлэгч “Заг” компанитай Монгол улсаас 500 хүн илгээх гэрээг анх байгуулсан<sup>4</sup>. Уг гэрээний дагуу 1998 оны 5 сард монголын анхны 200 ажилчид БНСУ-ын жижиг дунд үйлдвэрүүдэд ажиллаж эхэлсэн<sup>5</sup>. БНСУ-д албан ёсоор ажиллах хүч илгээх зөвшөөрөлтэй 16 улсаас илгээж буй ажилчдын тоогоор манай улс 11 дүгээр байранд орж байна<sup>6</sup>. БНСУ-д ажиллаж амьдрал ахуйгаа дээшлүүлэх хүсэлтэй монгол залуучууд олон байдаг боловч тус улсын “Жижиг дунд үйлдвэрийн холбоо”-ны гадаад ажилчин авах квотоор хязгаарлагддаг. Монгол залуучууд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гээр Солонгосыг зориход дараах хүчин зүйлүүд нөлөөлдөг.

Үүнд:

- Хөдөлмөрийн хөлсний түвшин Монгол улсынхаас харьцангуй өндөр
- Амьжиргааны зардал гарахгүй учир хуримтлал үүсгэх боломж их
- 4 төрлийн даатгал, төрийн үйлчилгээнд хамрагдах боломжтой
-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хүмүүсийн царай төрх төстэй, арьс өнгөөр ялгаварлан гадуурхах явдал байдаггүй
- Хоёр орны цаг уурын нөхцөл ойролцоо
- Газарзүйн байршлын ойр дөт байдал.

Солонгос залуучууд үйлдвэрийн болон хөдөө аж ахуйн хүнд хүчир ажил хийх сонирхолгүй байдаг учир хөдөлмөрийн зах зээлийн энэхүү орон зайг гадаад ажилчид нөхдөг. Солонгос улсад сарын цалингийн доод хэмжээ 2020 оны байдлаар 1.795.310 вон<sup>7</sup> байна. Монгол залуусын дийлэнх нь автомашины эд анги, цахилгаан бараа, усан онгоц, хуванцар, нэхмэл даавуу болон хүнсний үйлдвэрүүдэд ажиллаж байна. Тууштай, тогтвортой, сайн ажилладаг залууст цалин хөлс нэмэх, тушаал дэвшүүлэх, нутагт нь амраах, гэр бүлийн гишүүдийг нь түр хугацаагаар урих зэрэг урамшууллыг ажил олгогчдын зүгээс олгодог. Монголчуудын хүч чадал, ажил хурдан сурдаг, тэвчээртэй чанарыг ажил олгогчид үнэлдэг. Гэсэн ч Солонгос улсад анх очиж буй залуусын солонгос хэл, соёл, дүрэм журмын мэдлэг дутмаг байдал, ажлын өндөр ачаалал, хоол унд тохирохгүй байх, мөн бусдын ятгалга нөлөөнд автах зэрэг үндсэн шалтгаануудаас үүдэн ажлын байраа орхин хууль бусаар амьдрах замыг сонгох явдал дорвитой буурахгүй байна. Мөн гэрээний хугацаа хэтрүүлэх, архидан согтуурахаас гадна, хууль дүрэм, ёс заншлыг мэдлэг

<sup>4</sup> ГХЯ-ны төв архив ХД-112, НД-29, Хуудас 2.

<sup>5</sup> ГХЯ-ны төв архив ХД-112, НД-30, Хуудас 27.

<sup>6</sup> <http://www.moel.go.kr/> БНСУ-ын Хөдөлмөр эрхлэлт, хөдөлмөрийн яамны вэб хуудас.

<sup>7</sup>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wage.go.kr\)](http://www.minimumwage.go.kr/) БНСУ-ын цалингийн доод хэмжээний Хорооны вэб хуудас.

дутмаг байдлаас болж гэмт хэрэгт ихээр холбогдож байгаа нь БНСУ-ын нийгэмд Монголын талаар сөрөг ойлголтыг төрүүлэх учир шалтгаан болж байна. Энэ нь эргээд Солонго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үүд монгол ажилчдыг авах захиалга буурах шалтгаан болж, улмаар монгол иргэд аялах, түр хугацаагаар зорчих, хэлний сургалтад сурах нэрээр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 явдал жил бүр улам өсөн нэмэгдэж байна<sup>8</sup>.

#### 6. Хууль бусаар ажиллаж амьдарч буй иргэд

1994 онд Улаанбаатар Сөүлийн чиглэлийн иргэний агаарын шууд нислэг үйлдэж эхэлснээр хоёр орны хооронд иргэдийн урсгал нэмэгдэж улмаар монгол иргэд БНСУ-д хууль бусаар ажиллаж амьдарч эхэлсэн. 1994 онд 124, 1995 онд 640, 1996 онд 3457 гэхчилэн нэмэгдсээр 2019 оны байдлаар 17.510 иргэн Солонгос улсад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ж байна. Жил бүр сайн дураараа болон солонгосын цагаачлалын албаны шугамаар олноороо нутаг буцдаг боловч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х замыг сонгосон иргэдийн тоо нь нутаг буцсан иргэдийн тооноос илүү байна.

Хүснэгт 3. БНСУ-д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гаа монгол иргэд.

№	Он	2015	2016	2017	2018	2019
1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гаа иргэд	8274	10146	12719	15919	17510
2	Сайн дураараа нутаг буцсан иргэд	723	1367	1171	1975	1191
3	Албадан буцаасан иргэд	695	1013	995	1191	776

Тэдний дийлэнх нь гэр бүлээрээ эсвэл хамтран амьдрагчтайгаа амьдардаг. Хууль бусаар амьдарч байгаа иргэдэд хууль ёсны дагуу амьдарч байгаа иргэдтэй харьцуулахад дараах бэрхшээлүүд тулгардаг. Үүнд:

- Бүх төрлийн даатгал болон төрийн үйлчилгээнд хамрагдах боломжгүй, түүнийг дагасан аюул эрсдэл, бэрхшээл.
- Ганц биеэрээ амьдардаг иргэд хоорондоо хамтран амьдарч, үр хүүхэдтэй болох нь элбэг. Улмаар гэр бүл салалт, түүнээс үүдсэн нийгмийн олон асуудал.
- Солонгосын амьдрал, ахуй орчинд дасал болж нутаг буцах сонирхол буурдаг.
-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гчдын хүүхдүүд хоёр орны хооронд завсардах.
- Эрх зүйн чадамжгүй, хязгаарлагдмал орчинд амьдардаг.
- Бусад улсад зорчих, хил давах боломжгүй.
- Бүх зардал болон эрсдэлээ үүрч амьдардаг учир хуримтлал үүсгэх боломж хомс.

Тэдэнд дээр дурдсан бэрхшээлүүд байдаг ч гэсэн түүнийг үл харгалзан Солонгос улсад ажиллаж амьдрах тодорхой шалтгаан, эерэг хүчин зүйлүүд байгаа учир нутаг буцах сонирхолгүй байдаг. Хууль бус оршин суугчид нь эрхэлсэн ажилдаа гаршин ажлын байрандаа үнэ цэнтэй мэргэжилтэн болдог ч Монголд ирэхээр хэн ч биш болдог нь харамсалтай. Хамгийн гол нь Монголд цалин бага байгаа нь тэдний нутаг буцахгүй байх үндсэн шалтгаан болдог. Түүнээс гадна дараах хүчин зүйлүүд нь хууль бусаар амьдардаг иргэдийн нутаг буцах сонирхлыг бууруулдаг.

<sup>8</sup> ГХЯ-ны төв архив ХД-112, НД-188, Хуудас 67-70.

Үүнд:

- Цахим банкаар дамжуулан улс хооронд гуйвуулга хийхэд саадгүй болсон.
- Цахим орчинд ойр дотны хүмүүстэйгээ чөлөөтэй харьцах боломжтой болсон.
- Улаан загалмайн, хүмүүнлэгийн, шашны байгууллагын шугамаар эрүүл мэндийн үйлчилгээг хямд болон үнэгүй авах боломж байдаг.
- Мэргэшсэн, туршлагатай ажилтнаа ажил олгогч нь явуулах сонирхол бага байдаг.
- Хэрэг зөрчил гаргаж олны анхааралд өртөхгүй л бол цагаачлалын алба болон цагдаад шалгуулах, баригдах магадлал бага байдаг.

БНСУ-д ажилладаг монголчууд банкны системээр дамжуулан 2019 оны дүнгээр 120 сая 400 мянган долларын хувийн шилжүүлэг Монгол улс руу хийсэн<sup>9</sup> байна. Үүн дээр богино хугацаагаар хөдөлмөр эрхлэгчдийн орлого, банкны бус системээр дамжуулсан мөнгөн дүнг нэмбэл багагүй тоо гарна. Хууль бусаар болон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гээр тогтвортой, тууштай сайн ажиллаж буй монголчууд дунд цех, тасгийн ахлагч хийж өндөр цалин урамшуулал авдаг иргэд олон байгаа. Мөн Солонгос улсад олж авсан мэдлэг ур чадвараа ашиглан эх орондоо жижиг дунд бизнес амжилттай эрхэлж буй иргэд олон байгаа.

Хүснэгт 4. БНСУ-д оршин суугаа иргэд насны ангиллаар.

№	Нас	Тоо
1	0-4	1776
2	5-9	1410
3	10-14	778
4	15-19	1964
5	20-24	4937
6	25-29	8036
7	30-34	9331
8	35-39	6347
9	40-44	4683
10	45-49	3934
11	50-54	2357
12	55-59	1462
13	60-аас дээш	1170
	Нийт	48185

Хүснэгтээс харахад Солонгос улсад сургуулийн насны олон хүүхэд оршин сууж байна. Үүнээс 300 орчим хүүхэд Сөүл хотод албан ёсны монгол сургалтын хөтөлбөртэй сургуульд сурдаг. Бусад хүүхдүүд солонгос сургуульд сурахаас өөр аргагүй байдаг. Солонгос улсын цэцэрлэг, сургуулиуд нь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гаа монгол хүүхдүүдэд нээлттэй байдаг. Солонгос сургуульд сурдаг хүүхдүүд солонгосоор чөлөөтэй ярьж бичдэг ч төрөлх хэлээрээ сайн ярьж бичиж чадахгүй байх нь элбэг. Дунд болон ахлах сургуульд сурдаг хүүхдүүдийн дийлэнх нь Солонгос улсад амьдрах сонирхол давамгайлсан байдаг. Тэд эх орондоо ирэхэд монгол хэл бичгийн дүрэм сурах шаардлага гарч, монголын ахуй орчин, нийгэм соёлд дасан зохицоход

<sup>9</sup> [www.mongolbank.mn](http://www.mongolbank.mn) Монгол банкны вэб хуудас.

хүнд хэцүү байх, найз нөхдөө санаж ганцаардах зэрэг хүндрэлүүд тулгардаг.

## ДҮГНЭЛТ

Монголчуудын БНСУ-д хөдөлмөрлөж олсон орлого нь улс орны эдийн засагт тодорхой хувь нэмэр оруулж байгаа нь сайн талтай. Гэвч нөгөө талаар нөхөн үржихүйн болон хөдөлмөрийн чадварын оргил насан дээрээ яваа залуус маань олон жилээр гадаадад ажиллаж амьдрах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хүн амын өсөлтөд сөргөөр нөлөөлөх талтай. Хууль бусаар олон жил ажиллаж амьдрах нь маш эрсдэлтэйн дээр олон сул талтай.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т хугацаанд санхүүгийн сахилга баттай, тавьсан зорилготойгоор 5 жилээс хэтрэхгүй ажиллаад нутаг буцах нь хамгийн тохиромжтой хугацаа юм. Тууштай ажиллаж гэрээгээ дуусгаснаар тэсвэр хатуужил, ажлын ачаалал даах чадвар сууж, дээр нь хуримтлалтай болсноор залуусын цаашдын амьдралд давуу том тал болно.

Солонгос улсад оршин сууж байгаа монгол иргэдийн өмнө тулгамдсан асуудлуудыг шийдвэрлэхэд дараах зүйлүүд дээр анхаарах хэрэгтэй байна.

1. Хууль бусаар болон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гээр амьдардаг иргэдийг эх орондоо ирэхэд нь ажлын байраар хангах талаар дорвитой арга хэмжээ авах.
2. Гэрээт ажилчдыг Монголын хөдөлмөрийн зах зээлд эрэлттэй мэргэжлээр ажиллуулах тал дээр анхаарах. Ингэснээр эзэмшсэн ур чадвар нь Монголд үнэ цэнээ алдахгүй байх боломжтой.
3. Анх удаа явж буй залууст хөдөлмөрийн гэрээгээр ажиллах, хууль бусаар ажиллаж амьдрахын давуу сул талуудыг харьцуулан сайтар таниулах.
4. Солонгост төрж өссөн хүүхдүүдийг эх орондоо ирэхэд нь нийгэмших, дасан зохицоход нь туслах арга хэмжээ авах.

## Санал

Солонгос улсад их дээд сургууль төгссөн, мөн ажил мэргэжлийн ур чадвар эзэмшсэн залуучууд өнөөдөр Монгол улсад олон байна. Хүн хүчний энэхүү нөөц, БНСУ-ын техник технологи, мөн Монгол улсын байгалийн нөөц баялагийг хослуулан хамтарсан үйлдвэр байгуулан баялаг бүтээх өргөн боломж хоёр улсын бизнес эрхлэгчдэд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 нь бэлчээрийн мал, малын гаралтай хямд түүхий эд, эрүүл хөрс, өргөн уудам газар нутаг зэрэг харьцангуй давуу тал ихтэй. Европын холбооны GSP+ хөтөлбөрийн хүрээнд Монгол улсад үйлдвэрлэсэн олон нэр төрлий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Европын холбооны зах зээлд гааль татварын нэн хөнгөлөлттэй нөхцөлөөр экспортлох боломж бий.

Иргэдийг харилцан визгүй зорчуулах тухай асуудал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 яригдаж байгаа. 2018 оны Пёнчаны өвлийн олимпод гадаадын жуулчдийг татах зорилгоор виз чөлөөлсний улмаас тус улсад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гчдийн тоо огцом өссөн жишээ бий. Жил ирэх тусам нэмэгдэж буй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гчид, мөн богино хугацаагаар хөдөлмөр эрхлэгчдийн асуудлыг цэгцлэх үүднээс БНСУ-ын талаас монгол иргэдэд богино хугацаатай/6 хүртэл сар/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 зөвшөөрөл бүхий виз олгох нь аль талдаа оновчтой шийдэл байж болох юм. БНСУ-д богино хугацаагаар хөдөлмөр эрхлэх орон зай байгаа учир энэ төрлийн хөдөлмөр эрхэлдэг иргэдийн тоо жил ирэх тусам өсч байна. Монгол иргэдийг визээс чөлөөлснөөр БНСУ-д хууль бусаар оршин суугч иргэдийн тоо нэмэгдэж, түүнийг дагасан олон хүндрэл бэрхшээл хоёр улсын аль алинд нэмэгдэх эрсдэлтэй. Энэ төрлийн виз

олгосноор хууль бус оршин суугчдын тоо буурч түүнийг дагасан асуудал багасах, БНСУ-ын ЭСЯ, хил гаалийн ачаалал буурах, монгол иргэдийн хувьд даатгалд хамрагдах, хуримтлалаа өсгөх зэрэг давуу талууд их. Монгол улсын хүн амын тоо цөөн тул энэ төрлийн визийг шинээр олгосноор БНСУ-ын хөдөлмөрийн зах зээлийн бүтэцэд нөлөөлөхгүй.

Ашигласан материал:

1.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яамны архивын баримтууд.
2. [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3. <https://www.1212.mn/>
4. <https://www.mk.co.kr/>
5. [www.mongolbank.mn](http://www.mongolbank.mn)
6. HTTP.VIP76.MN/content/41650
7. <http://www.moel.go.kr/>
8. [http.minimumwage.go.kr](http://minimumwage.go.kr)
9. [hudulmur-halamj.gov.mn](http://hudulmur-halamj.gov.mn)
10. БНСУ-ын Сөүл, Дэгү хотуудад оршин суугаа болон нутаг буцсан иргэдээс асуумж судалгаа авса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한·몽 경제교류 30년: 평가와 전망

김 홍 진(순천향대학교)

## 1. 서론: 몽골의 전략적 가치

한국과 몽골은 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였다. 한·몽 양국은 그동안 경제, 정치외교, 인적교류, 문화교류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남북한 동시 수교 국가이다. 한반도의 약 7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목축업이 발달하였고, 국민 평균 교육수준도 높은 편이다. 몽골은 인구 330만 명, 총 GDP 약 140억 달러, 1인당 GDP 4200달러 수준(2019년 기준)의 소규모 경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북방시대 몽골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몽골의 미래 발전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몽골이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연간 5~6%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1</sup>

둘째, 몽골의 국제적 위상과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몽골은 1990년 시장경제체제 전환 이후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이며, 중·몽·러 정치외교 및 경제협력 관계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셋째, 한국인과 몽골인은 서로 문화적 친근성 및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5만 명에 가까운 재한 몽골인들이 한국사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재 몽골 한인사회도 차츰 성장하고 있다. 정서적 친근성과 이로 인한 우호적 감정은 양국 미래협력의 기초로서 중요한 요소이다.

본고의 2장에서는 양국 경제교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며, 2장에서 적시된 양국 교류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양국 미래협력의 비전과 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몇 가지 제언과 함께 결론을 제시한다.

## 2. 한·몽 경제교류 30년: 성과와 한계

### 가. 양국 무역관계의 성과와 한계

한국과 몽골은 무역규모가 1990년 260만 달러에서 2002년 1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짧은 기간에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2013년 5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이때까지 양국 무역규모가 증가한 주된 이유로는 몽골경제의 성장,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몽골의 제반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업의 원자재 수요 증가, 몽골에 대한 한국기업의 직접투자 증가와 수입 수요 유발, 한류로 인한 파생수요 증가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sup>1</sup> IMF(2019a), p. 31.

그러나 양국 무역은 2013년 정점을 찍은 이후 급격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양국 무역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몽골의 경제성장 둔화,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 및 투그릭화의 평가절하(2013~2019년 사이 약 75% 평가절하)<sup>2</sup>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표1. 몽골의 대 한국 무역추이(백만 달러)

	2007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무역	161.1	212.3	520.4	366.1	325.3	206.4	209.3	283.6	294.8
수출	41.5	30.5	13.0	13.5	66.6	8.5	11.6	21.2	27.8
수입	119.6	181.8	507.4	352.6	258.7	197.9	197.7	262.4	267.0
무역수지	-78.1	-151.3	-494.4	-339.1	-192.1	-189.4	-186.1	-241.2	239.2

자료 :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19, pp.607-609

다행히 2018년부터 한·몽 무역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2019년 규모가 2013년 대비 60%에도 미달하고 있다. 몽골의 총 무역규모는 2013~2019 기간 동안 30% 증가하였는데, 주요 대상국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무역규모가 감소하였다. 한국은 2019년 기준 몽골의 총 무역에서 2.1%, 몽골의 총수입에서는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순위로는 중국, 러시아, 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한·몽 무역관계의 성과를 보면 첫째, 양국 무역규모는 나름의 부침이 있었지만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이후 양국 무역규모가 일정 부분 감소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몽골의 제4위 무역 대상 국가다. 둘째, 무역상품의 내용을 보면 몽골이 한국으로부터 건설기계, 자동차부품 등 산업용 수입품을 늘리고 있으므로, 이것은 양국 간 산업연관관계가 좀 더 밀접해지는 증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 무역관계의 한계로는 첫째, 한국이 몽골의 4번째 교역 상대국이지만 1, 2위 국가인 중국 및 러시아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나고 있으며, 둘째 무역수지 측면에서 몽골이 줄곧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 나. 양국 투자협력의 성과와 한계

몽골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는 1994년부터 시작되어 2006년 처음으로 1천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2008년에는 6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대체로 증가 추세를 이어왔다. 그 후 몽골경제와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어 왔지만, 2012년 다시 5천만 달러를 넘는 등 2019년까지 약 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대 몽골 직접투자 감소의 배경에는 몽골경제의 성장률 저하와 몽골정부 발주공사 건수의 감소, 외국인투자법 개정 논란으로 인한 전반적인 외국인투자 감소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몽골의 가파른 환율 상승은 한국기업에게 큰 불확실성을 안겨준 측면이 있다. 1994~2019년 기간 동안 총 662개의 한국 투자기업이 몽골에

<sup>2</sup> 몽골 투그릭화의 대 달러 환율은 2013년 평균 1525투그릭에서 2019년 약 2670투그릭으로 상승하였다. World Bank(2020), p. 26

서 설립되었으며, 그 중에서 342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sup>3</sup>

한국의 산업별 대 몽골 직접투자 현황을 보면, 2018년까지 누계 기준으로 광업이 26.3%로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데, 광업 중에서는 금과 은, 백금 비중이 크다. 이어서 도소매업 18.6%, 건설업 11.8%, 부동산업 11.6% 순으로 비중이 높다.<sup>4</sup> 최근 진출한 대형 유통기업 중에서 이마트는 원스톱쇼핑(one stop shopping)을 선보이면서 새로운 유통문화 보급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몽골은 광대한 국토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앞으로 철도와 도로 건설 등 SOC 사업 수요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업은 건설공사와 플랜트 건설에서 우수한 해외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자원개발과 연계된 투자 및 민간투자 측면에서 양국의 투자협력 분야는 잠재력이 크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논의한 한·몽 투자협력의 주요 성과를 보면 첫째, 한국의 직접투자는 2019년 현재 누적 금액 5억 달러에 근접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몽골 내 5대 투자국가에 포함되고 있다. 둘째, 몽골에 진출한 많은 한국기업이 품질과 서비스, 기술 등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마트와 같이 기업경영과 사회공헌 양면에서 성공적인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양국 투자협력의 한계로는 몽골과의 투자협력 총규모가 여전히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 타결을 위해 양국이 정부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 등 긴밀한 경제협력의 틀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 3. 한·몽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협력과제

#### 가. 양국 경제협력의 비전 설정

한·몽 양국이 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튼튼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은 신북방정책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몽골은 『비전 2050』에서 9개 주요목표 중 6개가 직간접적으로 경제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그만큼 경제발전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한·몽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양국의 ‘포용적 동반성장’으로 설정해 본다. ‘동반성장’은 경제규모에 차이가 있는 국가끼리 상생과 협력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몽골도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몽골과 공유하는 것은 몽골의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포용적’이라는 수식어를 넣은 것은 한국이 투자협력과 기술지원 등 일정 영역에서 몽골의 발전에 대해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 방향은 ‘포용적 동반성장’이라는 비전을 지향점으로 하면서, 양국의 협력환경과 몽골의 장기발전계획을 이해하는데서 협력과제를 모색하면 좋을 것이다.

<sup>3</sup> 총 662개 기업 중 305개는 중소기업, 314개는 개인기업, 42개는 대기업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20. 5. 15).

<sup>4</sup>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김홍진 외(2020), p. 94 [표3-11] 참조

## 나.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한·몽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양국 EPA를 추진하는 것은, 무역규모 확대와 투자협력 증진, 인적교류 활성화와 같은 추가적 효과도 수반하는 포괄적 협력의 틀/framework을 만들기 위함이다. 따라서 양국 EPA 추진은 다방면에서 양국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다목적 실현방안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과 몽골은 2016년 EPA 추진에 합의하였고,<sup>5</sup> 2018년 9월 양국 간 공동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양국 정부가 이에 대해 동의하고 국회에서 비준되면 본 협정은 발효될 수 있다. EPA 추진이 양국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몽 무역규모 확대라는 협력과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실현방안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한·몽 양국 무역상품 중에서 현시비교우위를<sup>6</sup> 산출해 보면, 양국의 수출품 구성과 수입품 구성이 차별화되어 있어서, 양국이 EPA를 체결하고 상호 관세를 면제하게 되면 무역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중력모형을 이용해 양국 EPA의 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계수가 매우 큰 양수로 추정되고 있으며, EPA 체결 후 무역규모가 약 5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7</sup> 한·몽 EPA에 대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 무역규모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둘째, EPA 체결은 한국기업의 진출 및 투자협력 증진이라는 협력과제를 위해서도 매우 유효한 방안이다. 몽골은 광대한 국토개발을 위한 각종 SOC 투자 프로젝트가 많이 발주될 것이 예상되므로, 양국 EPA를 체결하여 먼저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몽골과 EPA 체결은 투자 분야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셋째, 양국 EPA 추진은 인적교류 확대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한 실현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인적교류를 포함한 제반 교류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양국이 EPA를 체결하면 관광과 유학 등 인력 이동이 활발해지고, 자본과 서비스의 이동도 더욱 원활해질 것이다.

종합하면 양국은 경제구조와 부존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에서 차별성이 있고 상호 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한·몽 EPA 체결은 양국의 협력관계와 미래협력의 비전 관점에서, 그리고 포괄적 경제협력의 틀로서 조속히 타결될 필요가 있다.

## 다. 투자협력 증진과 적정기술이전센터 설립

<sup>5</sup> 2016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ASEM 정상회의 겸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다.

<sup>6</sup>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한다. 몽크나산·어트경사이항(2020), p.

64

<sup>7</sup> 위의 논문, pp. 61~63.

한국의 대 몽골 경제협력은 몽골 특유의 정서를 반영하는 몽골의 전통산업 육성과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분야에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몽골기업에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몽골은 제조업 중에서도 오랜 전통을 가진 식품가공업과, 캐시미어를 비롯한 섬유산업 육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육류를 많이 생산하는 몽골이 한국의 우수한 가공·포장·냉장 기술을 도입한다면, 몽골의 식품가공업은 수출산업으로 한층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몽골은 품질이 우수한 캐시미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상품에서 광물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최근에는 디자인과 색상에도 발전이 이루어져 한국에도 많이 수입되고 있다.

이러한 몽골 전통산업과 투자협력 증진을 위해 가칭 한·몽 적정기술이전센터를 설치하여, 제조업 적정기술과 농업기술, 의료기술을 전수·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몽골은 산업발전의 단계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적정기술이전센터를 설립하여 기술이 부족한 몽골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 투자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성장 공간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몽골에 이러한 센터가 설치되면, 광대한 국토에 산재한 지역산업단지와 몽골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북방정책 추진 방안에서도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시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독 진출보다 산업간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센터 설립은 농업-산업단지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과 제언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 과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요 실현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포괄적 경제협력의 틀로서 양국 경제동반자협정(EPA)에 대한 본격 타결이 필요하다. 양국이 EPA를 체결하면 제반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무역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미 몽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관세 인하와 투자보호 등 적지 않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기업의 활발한 대 몽골진출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인적교류와 문화교류 증대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몽골의 전통산업인 목축업과 섬유산업, 제조업과 투자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가칭 적정기술이전센터를 설립하여, 적정기술이전과 스타트업 지원 등 경제협력과 산업협력을 연계하는 방안이 요망된다. 한국기업이 기술을 전수하면서 몽골 내 협력기업을 설립하거나 수출상품 개발에 도움을 준다면, 실질적 경제협력의 틀로서 EPA의 유용성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적정기술 지원은 몽골의 광대한 지역에 산재한 지방기업 발전에도 분명히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몽골 자원개발이나 대규모 SOC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국기업이 외국기업과 컨소시엄을 형성하거나 몽골 현지에 직접 투자하고자 할 때, 상호 협의할 수 있는 민관협력채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자원개발에 참여할 때 기존 정보가 막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와 현지 기관, 몽골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 협력채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홍진, 김보라, 박정후, 유원수, 이평래. 2020. 『신북방시대 한국·몽골 미래협력의 비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몽크나트산, 어트경사이향. 2020, 「한·몽 EPA 체결이 양국 무역규모에 미치는 영향: 중력 모형과 현시비교우위를 활용한 실증분석」, 한국몽골학회·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동세미나.
- 정동연. 2020. 「몽골,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 확정」, EMERiCs 동향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월29일).
- IMF. 2019. *Mongolia: 2019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No. 19/297, September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2020.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19*
- World Bank. 2020. *Mongolia Economic Update*, Januar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БНСУ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рилцааны 30 жил: Үнэлгээ ба хэтийн төлөв**

Ким Хун Жинь (БНСУ-ын Сүньчонь Их Сургууль)

### **1.Өмнөх үг. Монгол улсын стратегийн үнэ цэнэ**

БНСУ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 нь 2020 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30 жилийн ойгоо угтлаа. БНСУ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 нь энэ хугацаанд эдийн засаг, улс төр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 соёлын солилцоо зэрэг олон чиглэлд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аа хөгжүүлж ирсэн бөгөөд одоо “Иж бүрэн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тай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 нь дэлхийд 10-т орох байгалийн баялагтай, Зүүн хойд азид газарзүйн хувьд чухал байрлалд оршдог, өмнөд ба хойд солонгос улстай хоёулант нь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он улс юм.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оос бараг 7 дахин том газар нутгийг эзэмшиж, мал аж ахуй хөгжсөн, ард түмний сургалтын түвшин нь дунджаас өндөр түвшинд байдаг. Монголын хүн ам нь 3.3 сая, ДНБ нь 14 тэрбум доллар, нэг хүнд ногдох ДНБ нь 4200 долларын (2019 оны байдлаар) хэмжээний жижиг эдийн засагтай. Гэсэн хэдий ч “шинэ умард”-ын цаг үед монгол улсын стратегийн үнэ цэнийг өндрөөр үнэлж байгаагийн учир шалтгаан нь юу вэ?

Нэгдүгээрт, Монгол улсын ирээдүйн хөгжлийн нөөцийг өндрөөр үнэлж байгаа юм. Олон улсын валютын сан зэрэг олон улсын байгууллагууд монголын арвин баялаг нөөцийг үндэслэн дунд болон урт хугацаанд жилд 5-6%-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өнд хүрнэ гэж төсөөлж байна.<sup>1</sup>

Хоёрдугаарт, Монгол улсын олон улсын байр суурь болон ач холбогдол нь аажмаар өсч байгаа юм. Монгол улс 1990 онд зах зээл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системд шилжсэний дараа улс төрийн ардчилалд хүрсэн улс бөгөөд Хятад-Монгол-Орос гурван улсын улс төрийн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 боло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аараа дамжуулан олон улсын байр суурь нь нэмэгдэж байна.

Гуравдугаарт, Солонгосчууд ба монголчууд нь хоорондоо соёлын ойролцоо шинж, сэтгэл санааны дотно мэдрэмжийг агуулж байдаг. Одоо 50 мянга шахам монгол хүмүүс солонгосын нийгмийн нэгэн хэсгийг бүрдүүлж,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чуудын нийгэм ч аажмаар өсөн тэлж байна. Сэтгэл санааны дотно ойр дотно шинж ба үүнээс улбаалсан найрсаг сэтгэл нь хоёр улсын ирээдү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суурь үндэс болох чухал хүчин зүйл юм.

Энэ өгүүллийн хоёрдугаар бүлэгт хоёр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рилцааны 30 жилийн үр дүн ба хязгаарлагдмал талыг шинжлэн үзэж, 2-р бүлэгт гарсан хоёр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рилцааны хязгаарлагдмал тал дээр үндэслэн 3-р бүлэгт хоёр улсын ирээдү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алсын хараа ба зорилтыг эмхлэн харуулна. Сүүлийн 4-р бүлэгт хэд хэдэн санал дэвшүүлж, дүгнэлтийг өгүүлнэ.

### **2.БНСУ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рилцааны 30 жил: Үр дүн ба хязгаарлагдмал тал**

#### **А. Хоёр улсын худалдааны харилцааны үр дүн ба хязгаарлагдмал тал**

БНСУ ба Монгол улсын худалдаа хэмжээ нь 1990 онд 2.6 сая доллар байснаас 2002 онд

<sup>1</sup> IMF(2019a), p. 31.

100 сая долларыг давж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өндөр өсөлтөнд хүрсэн бөгөөд, 2013 онд 500 сая долларыг давсан. Энэ хүртэл хоёр улсын худалдааны хэмжээ нэмэгдсэн гол шалтгаанаар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 солонгос барааны талаарх мэдлэг дээшилсэн зэргийг дурдаж болно. Мөн монголын бүх төрлийн үйлдвэрлэл хөгжин компаниудын түүхий эдийн эрэлт өссөн,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ын компаниудын шууд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нэмэгдсэн, импортын эрэлт илүү их болсон, солонгосын соёлын урсгалаас үүдэлтэй үүсмэл эрэлт өссөн зэрэг нь тодорхой үүрэг гүйцэтгэсэн гэсэн дүн шилжилгээг хийлээ.

Харин хоёр улсын худалдаа нь 2013 онд оргилдоо хүрсний дараа огцом буурсан чиг хандлагатай байсан. Хоёр улсын худалдаа буурсан гол шалтгаанаар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 саарсан, гадаад валютын нөөц буурсан, төгрөгийн ханш унасан (2013-2019 оны хооронд 75% орчим ханш буурсан)<sup>2</sup> зэргийг дурдаж болно.

Хүснэгт 1.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удалдаа (сая доллар)

	2007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нийт худалдаа	161.1	212.3	520.4	366.1	325.3	206.4	209.3	283.6	294.8
экспорт	41.5	30.5	13.0	13.5	66.6	8.5	11.6	21.2	27.8
импорт	119.6	181.8	507.4	352.6	258.7	197.9	197.7	262.4	267.0
худалдааны тэнцэл	-78.1	-151.3	-494.4	-339.1	-192.1	-189.4	-186.1	-241.2	239.2

Эх сурвалж: Монгол улсын статистикийн эмхэтгэл. 2019, pp.607-609

2018 оноос эхлэн БНСУ ба Монгол улсын худалдааны хэмжээ нэмэгдсэн боловч 2019 оны хэмжээг 2013 онтой харьцуулахад 60%-д нь хүрэхгүй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ын худалдааны нийт хэмжээ нь 2013-2019 оны хооронд 30% өссөн боловч, худалдааны гол орнуудаас ганцхан БНСУ-тай хийх худалдааны хэмжээ буурсан байна. БНСУ нь 2019 оны байдлаар монголын нийт худалдааны 2.1%, нийт импортын 4.4%-ийг эзэлж, хятад, орос, япон улсын дараа 4-рт бичигдэж байна.

БНСУ ба Монгол улсын худалдааны үр дүнг харвал нэгдүгээрт, хоёр улсын худалдааны хэмжээ нь өсч, буурч байсан боловч хэмжээний хувьд мэдэгдэхүйц өссөн гэж үнэлж байна. 2013 оноос хойш хоёр улсын худалдааны хэмжээ нь тодорхой хэмжээгээр буурсан боловч БНСУ нь урьдын адил монгол улсын 4 дүгээрт орох худалдааны түнш орон хэвээр байна. Хоёрдугаарт, худалдаалагдаж буй барааг харвал монгол улс нь солонгосоос барилгын тоног төхөөрөмж, автомашины эд анги зэрэг үйлдвэрлэлийн зориулалттай импортын бараагаа нэмэгдүүлж байна. Энэ нь хоёр улсын хооронд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олбоо харилцаа арай илүү ойртон нягтарсны нотолгоо гэж үнэлж болно. Хоёр улсын худалдааны харилцааны хязгаарлагдмал тал нь нэгдүгээрт, БНСУ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4-рт орох худалдааны түнш орон боловч 1, 2-рт орж буй хятад, орос улстай харьцуулахад маш их ялгаа гарч байна. Хоёрдугаарт, худалдааны тэнцлийн хувьд монгол улс байнга алдагдалтай гарч байгаа байдал юм.

## 2. Хоёр улс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үр дүн ба хязгаарлагдмал тал

<sup>2</sup> Ам.доллартай харьцах монгол төгрөгийн ханш 2013 он дунджаар 1525 төгрөг байснаас 2019 онд 2670 төгрөг болж өссөн. World Bank(2020), p. 26.

Монгол дахь БНСУ-ын шууд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нь 1994 оноос эхэлж 2006 онд анх удаа 10 сая долларыг давж, 2008 онд 60 сая долларыг даван ерөнхийдөө өссөн хандлагатай байсан. Үүний дараа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аг болон дэлх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өөрчлөлтийг даган өсч, буурч байсан бөгөөд, 2012 онд 50 сая доллар, 2019 онд 500 сая доллар болсон байна.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буурахад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өсөлт буурсан,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захиалгат ажлууд цөөрсөн, гадаад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хуульд орсон нэмэлт өөрчлөлтийн маргаанаас үүдсэн уур амьсгал зэрэг нөлөөлсөн. Ялангуяа монгол улсын валютын ханшийн огцом өсөлт нь солонгосын компаниудыг ихээхэн тодорхой бус байдалд оруулсан тал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ад 1994-2019 оны хооронд БНСУ-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тай 662 компани байгуулагдсанаас одоо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ж буй 342 компани байна.<sup>3</sup>

БНСУ-ын монгол дахь шууд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өнөөгийн байдлыг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 тус бүрээр харвал 2018 он хүртэл нийлбэр дүнгээрээ уул уурхай 26.3%-иар хамгийн их хувийг эзэлж, уул уурхай дотроо алт, мөнгө, цагаан алтны уурхайн эзлэх хувь өндөр байна. Үүний дараа бөөний ба жижиглэн худалдаа 18.6%, барилга 11.8%, үл хөдлөх хөрөнгө 11.6% хувийг эзэлж байна.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томоохон хэмжээний түгээлтийн компаниудаас И-Март нэг цэгийн худалдаа (one stop shopping) анхлан гарч ирж шинэ хэлбэрийн түгээлтийн соёлыг дэлгэрүүлэн өндрөөр үнэлэгдэж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 нь энгүй уудам газар нутгаа тэнцвэртэй хөгжүүлэхийн тулд цаашид төмөр зам болон автозамын ажил зэрэг дэд бүтцийн ажлын эрэлтээс гадна сэргээгдэх эрчим хүчний үйлдвэрлэл, усны нөөц ашиглалт, хот төлөвлөлт зэрэгт их хэмжээний хөрөнгө оруулна гэж тооцоолж байна. БНСУ-ын компаниуд нь барилга угсралт, үйлдвэрийн цогцолбор барих ажлаараа гадаад орнуудад ажиллаж байсан шилдэг туршлагатай билээ. Байгалийн баялаг ашиглалттай холбоотой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болон хувийн салбар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талаасаа хоёр улс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салбарыг нөөц ихтэй гэж үздэг.

БНСУ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гол үр дүнг харвал нэгдүгээрт, БНСУ-ын шууд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нь 2019 онд нийлбэр дүнгээрээ 500 сая доллар дөхөж очтолоо өссөн бөгөөд, монгол улсын эхний тава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гч улсад багтаж байна. Хоёрдугаарт, монголд орсон солонгос улсын олон компаниуд чанар, үйлчилгээ, технологи зэргээрээ өндөр үнэлгээ авч, И-Март нь компанийн менежмент болон нийгэмд оруулах хувь нэмэр гэсэн хоёр талаасаа амжилттай жишээ болсон. Хоёр улс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язгаарлагдмал тал нь монгол дахь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нийт хэмжээ нь урьдын адил маш бага хувийг эзэлж байгаа юм. Энэ асуудлыг шийдвэрлэхийн тулд хоёр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дээд хэмжээний уулзалтын байнгын болгох ба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нягт хүрээг бий болго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на.

### **3.БНСУ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рилцааг идэвхжүүлэх алсын хараа б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зорилт**

А. Хоёр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алсын харааг тогтоох

БНСУ ба Монгол улсын урт хугацааны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идэвхжүүлэхийн

<sup>3</sup> Нийт 662 компаниас 305 нь жижиг дунд хэлбэрийн компани, 314 нь хувийн компани, 42 нь том компани юм. БНСУ-ын эксим банк, гадаадын шууд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статистик. (хайлт хийсэн: 2020. 5.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20. 5. 15).

тулд эхлээд алсын харааг хэлэлцэж харилцан бат бэх итгэлцлийн суурийг эхэлж тавих хэрэгтэй юм.

БНСУ нь Шинэ умардын бодлогоороо дамжуулан энх тайван ба хөгжил цэцэглэлтийн төлөө “Умард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нийгэмлэг” байгуулахыг алсын хараа болгон дэвшүүлж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ын “Алсын хараа 2050” бодлогын 9 гол зорилгоос 6 нь шууд болон шууд бусаар эдийн засгийн асуудалтай холбогдож байгаа бөгөөд тэр хэмжээгээрээ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ийг чухалчлан үзэж байна. Үүнтэй адил хоёр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одлогод суурилан, БНСУ ба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идэвхжүүлэх алсын харааг хоёр улсын “Хүртээмжтэй хамтын өсөлт” гэж тогтоож болно. “Хамтын өсөлт” нь эдийн засгийн хэмжээ нь ялгаатай улсуудын хооронд өдөр тутмын амьдрал б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аараа дамжуулан зэрэгцэн өсөхөд хэрэглэдэг нэр томъёо юм. Монгол улс ч БНСУ-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ийн туршлагын тухай сонирхол их байдаг бөгөөд, үүнийг монгол улстай хуваалцах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г өсгөхөд чухал хувь нэмэр болох юм. “Хүртээмжтэй” гэдэг тодотгох үгийг нэмж байгаа нь БНСУ нь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ба технологийн дэмжлэг зэрэг тодорхой хүрээнд монгол улсын хөгжлийг дэмжинэ гэсэн утгыг агуулж байгаа юм.

Тухайлбал, БНСУ ба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чиглэл нь “Хүртээмжтэй хамтын өсөлт” гэсэн алсын харааг зорьж, хоёр улс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орчин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ын урт хугацааны хөгжлийн төлөвлөгөөг тусгаса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зорилтыг эрэлхийлбэл сайн байна.

## **Б.Эдийн засгийн түншлэлийн хэлэлцээрийг (ЭЗТХ) урагшлуулах**

БНСУ ба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идэвхжүүлэхийн тулд хоёр улсын ЭЗТХ-ийг урагшлуулах нь худалдааны хэмжээг өргөтгөх,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сайжруулах,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г идэвхжүүлэх зэрэг нэмэлт үр дүнг авчрах иж бүрэ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үрээг бий болгоно. Тиймээс хоёр улсын ЭЗТХ-ийг урагшлуулах нь аль ч талаасаа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д нөлөөлж олон талын зорилгыг хэрэгжүүлэх арга зам гэж ойлгох хэрэгтэй байна.

БНСУ ба Монгол улс нь 2016 онд ЭЗТХ байгуулах тухай харилцан тохиролцож<sup>4</sup>, 2018 оны 9 сард хоёр улсын хамтарсан судалгааны үр дүнгийн тайланг хүлээлгэн өгсөн. Хоёр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энэ талаар санал нэгдэж улсын их хурлаас хэлэлцээрт гарын үсэг зурагдвал энэ хэлэлцээр нь хүчин төгөлдөр болох болно. ЭЗТХ-ийг урагшлуулснаар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идэвхжүүлэхэд хувь нэмэр оруулж чадах салбарыг судлахад дараах байдалтай байна.

Нэгдүгээрт, БНСУ ба Монгол улсын худалдааны хэмжээг өргөжүүлэх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үйл явцад хамгийн үр нөлөөтэй бодит арга зам юм. Үүнтэй холбоотой судалгаанд БНСУ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ын хооронд худалдаалдаг барааны харьцангуй давуу талыг<sup>5</sup> тооцоолж үзэхэд хоёр улсын экспортын ба импортын бүтэц нь ялгаатай байгаа бөгөөд, хоёр улсын хооронд ЭЗТХ байгуулж харилцан гаалийн татвараа чөлөөлбөл худалдааны хэмжээ ихээр нэмэгдэхээр таамаглагдаж байна. Мөн Гравити загварыг ашиглан хоёр улсын ЭЗТХ-ийн үр нөлөөг таамаглаж үзсэний үр дүнд коэффициент маш том эерэг тоогоор таамаглагдаж байгаа

<sup>4</sup> 2016онд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од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дсан АСЕМ-ийн дээд хэмжээний уулзалтын үеэр хоёр улс дээд хэмжээний уулзалтаараа харилцан тохиролцсон.

<sup>5</sup> Энэ үзүүлэлт 1-ээс их байвал давуу талтай гэж дүгнэнэ. Мөнхнасан·Отгонсайхан (2020). 몽크нат산.어트경사이항(2020), p. 64.

бөгөөд, ЭЗТХ байгуулсны дараа худалдааны хэмжээ 50% орчим өснө гэж гарсан байна.<sup>6</sup> БНСУ, Монгол улсын ЭЗТХ-ийн тухай хийгдсэн олон судалгаануудын ихэнх нь худалдааны хэмжээ өсөх тухай эерэг үр дүнг урьдчилан таамаглаж байна.

Хоёрдугаарт, ЭЗТХ байгуулах нь солонгос компаниуд монголд нэвтрэх боло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сайжруулах хамтын үйл явцад ч маш үр дүнтэй арга зам юм. Монгол улс өргөн уудам газар нутгаа хөгжүүлэхийн тулд төрөл бүрийн дэд бүтций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төслийг олноор захиалахаар төсөөлөгдөж байгаа тул хоёр улс ЭЗТХ байгуулбал эхлээд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найрсаг орчныг бүрдүүлэх хэрэгтэй байна. БНСУ нь аль хэдийн ихэнх томоохо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бүсүүдтэй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хэлэлцээрийг байгуулсан учраас бодит байдал дээр монгол улстай ЭЗТХ байгуулахдаа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салбарыг чухалчлахаар өөр аргагүй юм.

Гуравдугаарт, хоёр улсын ЭЗТХ нь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 өргөжих болон нийгэм соёлын салбарт харилцаагаа өргөжүүлэх бодит арга замаар ашиглагдаж болно. Мэдээж ковид-19-өөс шалтгаалан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д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г хамруулан бүхий л харилцаа хязгаарлагдахаас өөр аргагүй. Харин урт хугацаанд хоёр улс ЭЗТХ-ийн байгуулбал аялал жуулчлал, гадаадад суралцах зэргээр хүний нөөцийн шилжилт идэвхжиж, хөрөнгө болон үйлчилгээний хөдөлгөөн илүү хялбарших болно.

Нэгтгэн дүгнэвэл хоёр улс нь эдийн засгийн бүтэц ба нөөц, газар зүйн байрлал зэрэг ялгаатай шинжтэй, харилцан нөхөх шинж чанар өндөр билээ. Тийм учраас БНСУ болон Монгол улсын хооронд ЭЗТХ байгуулах тухайд хоёр улс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ба ирээдүйд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алсын хараа талаасаа, мөн иж бүрэ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үрээнд ч хурдан хугацаанд тохиролцоонд хүр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юм.

**В.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сайжруулах ба Зохистой технологи дамжуулах төв (적정기술이전센터) байгуулах**

БНСУ-ын Монгол улстай хийх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өвөрмөц орчныг тусгасан, монголын уламжлалт үйлдвэрлэлийг сайжруулах ба дэмжихэд чиглэсэн байх нь чухал юм. Энэ салбарт солонгос улсын компаниуд нэвтрэхдээ монгол компаниудад технологийн дэмжлэг үзүүлэх арга зам нь хамгийн чухал зүйл гэж харагдаж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 үйлдвэрүүдээсээ үндсэн уламжлалаа шингээсэн хүнс боловсруулах үйлдвэрлэл, ноолуур болон нэхмэлий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сайжруулахад ихээхэн хүчин чармайлт гаргаж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 нь малын мах ихээр үйлдвэрлэдэг учраас солонгос улсаас боловсруулах-савлах-хөлдөөх тэргүүлэх технологийг татаж оруулбал, хүнс боловсруулах үйлдвэрлэл нь экспорты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увьд нэг шат хөгжих боломж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 нь шилдэг чанарын ноолуурыг үйлдвэрлэж байгаа бөгөөд энэ нь экспортын бүтээгдэхүүн дотроос уул уурхай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дараа орж, эзлэх хувь нь өндөр юм.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дизайн ба өнгөний хувьд хөгжиж солонгос улс руу ихээр импортлогдож байна.

Иймд монгол улсын уламжлалт үйлдвэрлэл боло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сайжруулахын тулд түр нэрээр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ын зохистой технологи дамжуулах төв”-ийг байгуулж, үйлдвэрлэлийн зохистой технологи болон хөдөө аж ахуйн технологи, эмнэлгийн технологи дамжуулалты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арга хэлбэрийг санал болгож байна. Монгол улсы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өгжлийн үе шат нь солонгос улсаас өөр учраас Зохистой технологи дамжуулах төвийг байгуулж технологи хомс монголын компаниудыг дэмжих нь бодитой ажил гэж харж байна. Үүгээр дамжуулан хоёр улсын компаниудын хооронд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хамтын

<sup>6</sup> Дээрх судалгаа, pp. 61~63.

ажиллагааг сайжруулж, солонгос жижиг дунд компаниудад өсөлтийн шинэ орон зайг эзэмшихэд туслах болно.

Монгол улсад энэ төвийг байгуулбал, өргөн уудам газар нутагт тархсан бүс нутгий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цогцолбор болон монголын бүс нутг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илд томоохон туслалцаа болж чадна. Шинэ умардын бодлогыг урагшлуулах зорилтод ч солонгос компаниуд гадаадад нэвтрэхдээ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үр нөлөөг дээшлүүлэхийн тулд дангаараа нэвтрэхээс илүүтэйгээр үйлдвэрлэл хоорондын уялдаа холбоог чухалчилж байна. Энэ төвийг байгуулах нь хөдөө аж ахуй боло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цогцолборын уялдаагаар дамжуула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үр нөлөөг бий болгож чадах юм.

#### 4. Дүгнэлт ба санал

Хоёр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идэвхжүүлэх үйл явцыг нэгтгэн бодит арга замуудыг цэгцлэн үзвэл дараах байдалтай байна.

Юуны өмнө, иж бүрэ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үрээнд хоёр улсын ЭЗТХ-ийн талаар үндсэн тохиролцоо хэрэгтэй байна. Ихэнх судалгааны үр дүнд ЭЗТХ байгуулбал худалдааны хэмжээ нэмэгдэнэ гэж үзэж байна. Монголд нэвтэрсэн солонгосын компаниудын байр суурьнаас харвал гаалийн татвар буурах боло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г хамгаалах зэрэг багагүй өгөөжийг хүртэх болно. Мөн солонгос улсын компаниуд монгол улсад идэвхтэй нэвтрэхийг өдөөх шалтгаан болж нөлөөлөх бөгөөд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 ба соёлын солилцоо нэмэгдэх эерэг үр дүнг хүлээж болно.

Хоёрдугаарт, монгол улсын уламжлалт үйлдвэрлэл болох мал аж ахуй ба нэхмэлийн үйлдвэрлэлтэй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сайжруулахын тулд түр нэрээр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ын зохистой технологи дамжуулах төв”-ийг байгуулж, зохистой технологи дамжуулах ба “старт ап”-ыг дэмжих зэрэг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боло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уялдуулах арга зам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на. Солонгос компани технологогоо дамжуулангаа монголд хамтарсан компани байгуулах болон экспортын бүтээгдэхүүн хөгжүүлэхэд тус дэм өгч чадвал бодит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үрээнд ЭЗТХ-ийн ашигтай байдлыг улам нэмэгдүүлэх болно. Мөн солонгос улсын зохистой технологийн дэмжлэг нь монголын өргөн уудам нутагт тархсан орон нутгийн компаниудын хөгжилд ч гарцаагүй их хувь нэмэр болно.

Гуравдугаар, монгол улс нь нөөцийн ашиглалт болон том хэмжээний дэд бүтцийн төсөлд оролцож байгаа солонгос улсын компани гадаадын компанитай консорциум байгуулах болон монголд шууд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оруулахад харилцан хэлэлцэх боломжтой төр, хувийн хэвшлийн түншлэлийн сувгий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ад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түвшний дэмжлэг хэрэгтэй. Ялангуяа нөөцийн ашиглалтанд оролцоход үндсэн мэдээлэл хаалттай байх тохиолдол их байдаг. Иймд солонгос компаниудыг дэмжихийн тулд засгийн газар болон монголд байгаа байгууллагууд, монголтой холбоотой мэргэжилтнүүдийг багтаасан төр, хувийн хэвшлийн түншлэлийн сувгий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на.

#### Ашигласан материал

김흥진, 김보라, 박정후, 유원수, 이평래. 2020. 「신북방시대 한국-몽골 미래협력의 비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몽크натсан, 어트경사이항. 2020. 「한-몽 EPA 체결이 양국 무역규모에 미치는 영향: 중력 모형과 현시비교우위를 활용한 실증분석」, 한국몽골학회·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

동향세미나.

정동연. 2020. 「몽골,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 확정」, EMERiCs 동향세미나,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5월29일).

IMF. 2019. *Mongolia: 2019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No. 19/297, September.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2020.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19*.

World Bank. 2020. *Mongolia Economic Update*, Januar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몽골과 한국의 경제 교류: 도르노드의 아이막 전략지구 설정 가능성

I. 앵호볼드(몽골과학아카데미 국제관계연구소)

## 요약

지난해 한몽 외교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 기간에 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광범위한 내용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문턱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교류의 향후 30년을 전망하고, 동북아시아 통합을 시행하며, 해당 지역에 평화 수립 프로세스를 시행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거리, 시간, 속도라는 세 가지 지표를 낮추기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역인 몽골 최동단 도르노드 아이막을 양국 교류의 전략 지구로 설정하는 가설로서 “광역도르노드개발계획”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주제어:** 동북아시아, 도르노드 아이막, 노동 파트너, 전략적 동반자, 대한민국, 몽골, 경제통합, 개성공단, 광역 도르노드 개발계획

## 도르노드 아이막

국제무역 이론 중 하나로 양국 간 거리가 무역량과 반비례한다는 중력 모형(gravity model)이 있다. 만일 ‘몽골-한국 간 이해관계의 공간이 가까워지면 양국 관계는 중력 법칙에 따라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몽골의 최동단 행정구역인 도르노드 아이막을 선정하였다. 도르노드 아이막은 몽골의 최동단에 위치한 면적 124,000km<sup>2</sup>의 행정구역(한국과 거의 같은 규모이다)으로 크기가 몽골 전체 아이막 중 3위이다. 현재 도르노드 아이막 인구는 8만 6,100명이다.<sup>1</sup> 러시아 자바이칼,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후룬베이얼(呼伦贝尔)시, 싱안맹(兴安盟), 시린귀러맹(锡林郭勒盟)과 접경하며 동북아시아의 통합체에 동참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는 지역이다. 울란바타르-인천의 거리는 2,000km인 반면, 도르노드 아이막-인천국제공항 간 거리는 1,300km이다.

## 도르노드 지역에 대한 국가 정책

몽골은 현재 러시아 및 중국과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일본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한국과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이웃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접국과의 이러한 관계 및 몽골의 지리적 위치는 인접국들과의 무역과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대규모 제품 운송 물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르노드 아이막의 장래 개발 전망은 몽골국가안보개념, 녹색개발정책, 지역개발중기전략, 동부지역개발프로그램, 비전

<sup>1</sup> <https://dornod.gov.mn/p/4>

2050<sup>2</sup> 등의 정책 문서들에 구체화되었다. 예를 들어, 몽골 지역별개발개념에 관한 몽골 국회 2001년 57번 법령에는 ‘지역 개발의 목적은 국가 문화를 승상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 정착 체제를 가진 자연 원형 및 생태계 시스템의 균형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고, 경제 구조의 다각화, 전문화 기반의 녹색생산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통합에 참여하는 경쟁력 있고 상대적인 균형 개발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sup>3</sup>

비전 2050에서 언급된 것처럼 정부 정책 개발의 목적에는 인프라([표1]과 [그림1] 참고) 및 도로, 철도, 에너지, 통신 네트워크를 건설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의 경제 협력에 참여할 기반을 조성하고, 국경 관문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철도를 운영하며, 국경 검문소들을 국제 기준에 맞추어 개선하여 물류운송 네트워크와 연결하고, 농목축업 물류 센터를 지역 중심지에 건설하고 도로를 연결하여 식자재, 농산물 및 가공제품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고,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고, 몽골 역사관광센터를 설립하고,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연구를 활성화하여 자원을 증대시키고, 중소규모의 지역 중심지에 기술 인프라,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건물 및 시설의 품질, 서비스 가용 수준을 정부 사회서비스 표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1] 도르노드 지역의 도로, 철도 (건설)계획

	2020-2030년	km
도로	초이발산-하비르가	124
	초이발산-에렌차브	232
	초이발산-숨베르	410
철도	초이발산-후트-비칙트	414
	후트-숨베르	380
	에렌차브-후트-비칙트	520

출처: [www.legalinfo.mn/](http://www.legalinfo.mn/)

[그림1] 도르노드 아이막의 도로와 철도



동북아시아 내 협력과 지정학 동북아시아역사재단

<sup>2</sup> <https://www.legalinfo.mn/>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up>3</sup> <https://vip76.mn/content/70574>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대규모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중심으로 경제 규모로 세계 2위인 중국, 세계 에너지 주요 공급 국가인 러시아, 기술과 혁신을 선도하는 일본과 한국 등 국가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다. 한편으로 두 강대국이 동북아시아에 영향력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과 한국이 안정적인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자국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경제협력에 참여하기를 열망하는 몽골, 그리고 자국의 입지와 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개발의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북한 등 당해 지역에는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중첩되어 있다.

향후 (경제) 협력체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각자 자기의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할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서로 연계된 동북아시아를 포함하는 경제 네트워크 건설의 중요성은 모두 인정한다. 어떤 한 나라가 자국의 이익 때문에 다른 약소국을 차단하는 것은 상호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현대 글로벌 사회는 잘 인식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이익도 동북아시아의 바로 이러한 경쟁에 크게 뒤쳐지지 않은 채 참여하게 되었다. 향후 유라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거대한 경제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한 나라도 뒤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 중심에 위치한 국가들은 주변부로, 주변부에 위치한 국가들은 중심으로 이동하기를 열망하는 것은 국가의 가치와 이익에 모두 부합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의 중첩은 동북아시아의 통합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몽골은 유라시아의 이러한 이익의 주요 교차점의 중심에 있다.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몽골은 내륙(land locked)국이 아닌 대륙을 연결하는 가교(Land Linked)국이 될 수가 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경제와 정치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경제발전의 중심과 시장 또한 세계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지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내 자유무역을 점차 확대하고, 경제 공동체의 통합 공간을 강화하여 유럽연합과 같은 대규모 시장을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좁은 양국 관계에 갇혀 치열한 이해의 경쟁에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에는 유럽연합, 아세안이라는 대규모 협력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협력체는 동북아시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협력체에서 배제할 수 없는 한 부분은 도르노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한몽) 양국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골 정부에서는 이미 해당 지역을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선언하였고, 법률과 관련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협력을 강화하고 다가올 30년의 교류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해 몽골 도르노드 아이막에서 시행할 “광역도르노드개발계획”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 Tumen Initiative), 중·몽·러 경제회랑, 신북방정책, 개성공단, 일대일로 계획의 연장선으로써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의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자 한다.

### 광역도르노드개발계획(Great Dornod initiative)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은 1990년 중국 지린성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 기술경제협력소회의에서 발의되고, 그 후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 하에 몽골,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등 5개국의 참여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 개발계획은 한반도 안보 문제와 기타 이유로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척되고 있다. 그래서 본 개발계획의 2단계에 해당하는 “광역도르

노드개발계획”을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시작으로 설정하려는 의견이 학자들로 부터 나오고 있다. 해당 지역은 [표2]에서 보듯 시장 규모와 경제력 측면에서 세계에서 상위권에 드는 거대 지역이다.

지역명		인구, (천명)	천km <sup>2</sup>	주요 산업
몽골	도르노드 아이막	223	287	목축업, 농업, 석탄, 구리, 원유, 비철금속, 관광, 건축 자재
한국	동부 국경	5,300	3	자동차, 정보통신, 물류, 정유, 선박, 철, 관광
러시아	프리모르스 크	2,069	165	에너지, 전력, 식품, 어류, 기계, 목재, 관광
중국	헤이룽장성	36,168	454	에너지, 장비, 식품, 목재, 석유화학, 의약품
	싱안닝	23,843	1,183	농업, 화학, 에너지, 철, 의류, 의약품
	지린성	27,085	187	자동차, 에너지, 금속, 화학, 의류, 관광
	랴오닝성	42,170	2	전자제품, 기계, 금속, 화학

출처: <http://www.tumenprogramme.org/>

국제 제재 해제 이후 참여하는 조건으로 북한도 당해 개발계획의 회원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많은 국제 프로젝트에서도 제재가 해제된 이후 참여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정책을 따르고 있다. 동시에 각국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관광을 기반으로 시행한다면 더 빠른 통합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30년 동안 한국과 몽골 관계의 명칭은 "노동 파트너", 미래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지역 협력은 "광역도르노드개발계획", 세 가지 가교는 관광, 광업, 농업, 연결 방식은 항공 운송, 협력 국가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시행 기관은 새롭게 세워질 ‘동북아시아센터’, 그 중심지는 도르노드 아이막 동부에 위치한 할흐골(khalkh-gol) 습의 경제자유무역지대가 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	이름
교류명	노동 파트너
파트너십	전략적 동반자
협력	광역도르노드개발계획
주요 산업	관광, 광산, 농업
회원국	몽골, 한국,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중심 지역	할흐골 습 경제자유무역지대 (할흐골 습-인천국제공항까지의 거리는 대략 1,300km)
시행기관	동북아시아센터, 한국-몽골 센터
기타 개발계획	초원길 개발계획, 광역두만강개발계획, 몽리중 경제회랑, 신북방 정책, 슈퍼그리드 등
유사 모델	개성공단, 유럽연합, 아세안

개발 분야	철도, 도로, 항공, 국경 검문소, 서비스업, 가공업, 에너지, 스포츠(골프장), 전문 및 대학교, 의료 서비스, 건축업
-------	---

개성공단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총 12억 달러를 투자하였지만<sup>4</sup> 한반도 안보 불안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모델에 따라 몽골 지역에 한국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고, 북한의 인력을 이용한 지역경제 협력을 시작해 볼 수 있다. 영구 제재란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는 우리 두 나라가 이러한 형태의 협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골의 토지와 인력,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이 투입된 3국의 이익을 높이는 공단을 건설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통합을 시작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평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아 다른 국가의 투자를 유치하고, 동북아시아 통합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른 국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개성공단 내 120여 개의 공장이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재정적인 피해는 약 10억달러<sup>5</sup> 이상으로 추산될 뿐만 아니라 북한에 6억 달러의 이익이 되었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이로 인한 피해로 약 5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총 20억 달러 규모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는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 이 글 서두에서 언급한 국제무역에서의 중력이론<sup>6</sup>을 바탕으로 양국 간 무역의 단순모형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국가	수치
중국	0.750
홍콩	1.045
일본	1.027
북한	1.164
한국	1.013
러시아	0.988

[표4]에서 한국과 한국의 무역 가능성은 다른 제3의 이웃 국가들과 같이 정수 부분이 1로 나왔지만 만약 도르노드 아이막에 전략지구를 건설할 경우 거리가 약 700km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무역 가능성은 약 0.9라는 수치가 나왔다. 이는 러시아와 비슷한 높은 수치이다.

## 결론

국제무역이론에 따르면 거리의 근접성은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열쇠이다. 그래서 몽골 국내 지역 중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르노드 아이막을 협력지구로 선정하였다. 이는 양국 간 향후 30년 개발계획의 협력을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경제 통합에 기여할 “광역도르노드개발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국제 경

<sup>4</sup> <https://www.kinu.or.kr/>

<sup>5</sup>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6172400030>

<sup>6</sup>  $T_{ij} = A * Y_i Y_j / D_{ij}$ ,  $Y_i Y_j$ - 양국 경제 규모,  $D_{ij}$ - 양국 간 거리

제 제재가 해제될 경우 회원국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여기에 가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은 몽골, 한국,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의 이익이 중첩될 곳일 뿐 아니라 유럽 연합과 아세안이라는 두 개의 협력체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지구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 이 때문에 가장 먼저 관광을 개발하는 것은 다른 분야 개발의 기반이 되며, 개성공단 모델을 개선하여 양국 경제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 비전 또한 이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국제무역에서의 중력이론에 따르면 거리상 측면에서 양국이 가까울 경우 무역 규모가 증대될 것이라는 가정을 확인 시켜 준다.

#### 참고문헌

1. <https://www.legalinfo.mn/>
2. <https://vip76.mn/content/70574>
3. <https://dornod.gov.mn/p/4>
4. <http://www.tumenprogramme.org/>
5. <https://www.kidmac.or.kr/index>
6. <https://www.unikorea.go.kr/>
7. <https://www.unescap.org/>
8. Dierkes, J. and Jargalsaikhan, M. (2018) “Mongolia In An Emerging Northeast Asian Region”, *Mongo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0, pp. 91-100. doi: 10.5564/mjia.v20i0.1026.
9. Enkhbold.I.(2018).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удалдааны харилцаа.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 101-121. <https://doi.org/10.5564/jis.v0i1.99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ООРОНДОХ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РИЛЦАА: ДОРНОД АЙМАГ СТРАТЕГИЙН БҮС БОЛОХ БОЛОМЖ

И.Энхболд(ШУА, ОУСХ, ЭША)

### Хураангуй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30 жилийн ой өнгөрсөн онд болж өнгөрлөө. Энэ хугацаанд өөр ямарч орноос илүү өргөн агуулгаар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хөгжсөөр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д хүрэх босгон дээр ирээд байна. Тиймээс хоёр орны харилцааны ирээдүйн 30-н жилийг төлөвлөх, ЗХА-ийн интеграцийг эхлүүлэх, тус бүс нутагт энхтайван тогтоох үйл явцыг эхлүүлэх санаачилга гаргаж болох юм. Тиймээс орон зай, цаг хугацаа, хурд хэмээх гурван хэмжээсийг багасгах үүднээс ЗХА-ийн бүс нутагт хамгийн ойр цэг болох Монгол Улсын хамгийн зүүн цэг Дорнод аймгийг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ы стратегийн бүс болгох таамаглал дэвшүүлэн “Их Дорнод Санаачилга” хэмээх хөтөлбөр байж болох юм.

**Түлхүүр үгс:** Зүүн Хойд Ази, Дорнод аймаг, Хөдөлмөрийн хөрш,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 БНСУ, Монгол Улс, Эдийн зэсгийн интеграци, Кэсоны аж үйлдвэрийн цогцолбор, Их Дорнод санаачилга.

### Дорнод аймаг

Олон улсын худалдаанд хоёр улсын хоорондох зайтай урвуу, худалдааны хэмжээтэй шууд хамааралтай болохыг харуулсан таталцлын Гравити онол гэж бий. Хэрэв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оорондын ашиг сонирхлын орон зайг хамгийн ойр цэгт төвлөрүүлбэл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 таталцлын хуулийн дагуу илүү хөгжих боломжтой хэмээх таамаглал дэвшүүлсний үндсэн дээр Монгол Улсын хамгийн зүүн захын засаг захиргааны нэгж болох Дорнод аймгийг сонгов. Тус аймаг нь Монгол улсын хамгийн зүүн хязгаарт оршдог 124000 км<sup>2</sup> газар нутагтай /БНСУ-ын газар нутгийн хэмжээтэй ойролцоо/ бөгөөд хэмжээгээрээ аймгуудаас эхний 3-т ордог. Дорнод аймгийн хүн ам одоогийн байдлаар 86.1 мянган хүн амтай. <sup>1</sup> ОХУ-н Өвөрбайгалийн хязгаар, БНХАУ-н ӨМӨЗО-ны Хөлөнбуйр, Хянган, Шилийн гол аймгуудтай хиллэдэг ЗХА-ийн интеграцид нэгдэх боломжтой стратегийн байрлал бүхий бүс юм. Улаанбаатар-Инчон хоёрын хооронд 2000 км байдаг бол Дорнод аймаг-Инчоны онгоцны буудал хоёрын хооронд ойролцоогоор 1300 км байдаг.

### Дорнод бүсийн талаар төрөөс баримтлах бодлого

Монгол Улс ОХУ, БНХАУ-тай иж бүрэн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 Япон улстай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тэй, БНСУ-тай Иж бүрэн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нд хүрч хөрш орнууд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эрчимжиж байгаа өнөө үед хил залган оршдог улсуудтай худалдаа,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үлжээнд нэгдэх, бараа бүтээгдэхүүн дамжин өнгөрөх тээвэр, ложистикийн томоохон төв болон хөгжих боломжийг олгож байна. Дорнод аймгийн хөгжлийн хэтийн ирээдүйг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 Бүсчилсэн хөгжлий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 Ногоон хөгжлийн бодлого, Бүсүүдийн хөгжлийн дунд хугацааны стратеги, Зүүн бүсийн хөгжлийн хөтөлбөр, Алсын хараа 2050<sup>2</sup> зэрэг бодлогын баримт бичгүүдэд тодорхойлсон байдаг. Тухайлбал, Монгол Улсын Бүсжилсэн хөгжлий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ын талаар МУ-ын Их Хурлын 2001 оны 57 дугаар тогтоолд: Бүсчилсэн хөгжлийн эрхэм зорилго нь үндэсний соёлоо дээдэлсэн, хүн амын нутагшилт, суурьшлын тогтвортой тогтолцоотой, байгалийн унаган төрх, экосистемийн тэнцвэрт байдлыг хадгалан хойч үедээ өвлүүлсэ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төрөлжилт, дагалт, хоршилт бүхий ногоон үйлдвэрлэлийг хөгжүүлж, бүс нутг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интеграцад нэгдсэн, өрсөлдөх чадвартай, харьцангуй тэнцвэртэй бүсүүдийг

<sup>1</sup> <https://dornod.gov.mn/p/4>

<sup>2</sup> <https://www.legalinfo.mn/>

хөгжүүлэхэд оршино хэмээн заажээ.<sup>3</sup> Алсын хараа 2050-д дурдагдсанаар төрийн бодлогын хэрэгжүүлэх зорилтуудад дэд бүтэцийн тэнхлэг/Хүснэгт 1 болон Зураг 1-ийг үзнэ үү/ болох авто зам, төмөр зам,

Хүснэгт-1, Дорнод бүсийн зам, тээврийн төслүүд		
	2020-2030 онуудад	км
Авто зам	Чойбалсан-Хавирга	124
	Чойбалсан-Эрэнцав	232
	Чойбалсан-Сүмбэр	410
Төмөр зам	Чойбалсан-Хөөт-Бичигт	414
	Хөөт-Сүмбэр	380
	Эрэнцав-Хөөт-Бичигт	520
Эх сурвалж: www.legalinfo.mn/		

эрчим хүч, холбоо мэдээллийн үндсэн сүлжээг барьж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орнууд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д оролцох суурь нөхцөлийг бүрдүүлэх, хилийн боомт чиглэсэн авто зам, төмөр замуудыг ашиглалтад оруулж, боомтуудыг олон улсын стандартад нийцүүлэн шинэчилж, бүс дамнасан тээвэр логистикийн сүлжээнд холбогдох, ХАА-н тээвэр логистикийн төвүүдийг микро бүсийн төвүүдэд байгуулж, авто замаар холбон хүнсний бараа бүтээгдэхүүн, хөдөө аж ахуйн түүхий эд,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үйлдвэрлэл, экспортыг дэмжих,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дэд бүтцийг хөгжүүлэн, Монголын түүхэн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төв бүс болох, Газрын тос, байгалийн хийн хайгуул судалгааны ажлыг эрчимжүүлж, нөөцийг нэмэгдүүлэх,

Зураг 1, Дорнод аймгийн автозам, төмөр замын зураг



мезо, микро бүсүүдийн төвийн инженерийн дэд бүтэц, нийгмийн үйлчилгээний барилга, байгууламжийн чанар, үйлчилгээний хүртээмжийг төрөөс үзүүлэх нийгмийн үйлчилгээний жишиг нормативт нийцүүлэн иргэдийн эрүүл, аюулгүй ажиллаж, амьдрах орчин, нөхцөлийг бүрдүүлэх зэргийг багтаажээ.

<sup>3</sup> <https://vip76.mn/content/70574>

### **ЗХА дахь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ба геополитик**

Зүүн Хойд Ази нь дэлхийн хамгийн том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ааз суурьтай бүс нутаг юм. Байгалын асар их нөөц агуулсан төдийгүй дэлх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голлох том гүрнүүд болох дэлхийн хоёр дахь том эдийн засагтай Хятад, дэлхийн эрчим хүчний том нийлүүлэгч орон болох Орос, технологи, инновацийн лидер болох Япон, БНСУ зэрэг улсууд зэрэгцэн оршин тогтнодог. Нэг талаас хоёр их гүрний хувьд Зүүн Хойд Азид нөлөөллөө ихэсгэх сонирхол, нөлөө талаас Япон, Солонгосын байгалийн найдвартай эх сурвалжтай болох, өөрийн бүтээгдэхүүн үйлчилгээний шинэ зах зээл нээх, мөн эрдэс баялгийн том ордуудаа нээн ашиглахыг эрмэлзэж буй Монгол Улс, өөрийн байр суурь, аюулгүй байдлаа баталгаажуулах, хөгжлийн шинэ гарцаа хайж буй Хойд Солонгос зэрэг бүс нутгийн бусад орнуудын сонирхлууд энэхүү бүс нутагт давхцаж байна.

Цаашид интеграцид нэгдэн хамтарч ажиллах уу, эсвэл өөр өөрсдийн замаар явах уу гэдгээ тогтоох чухал цаг үе тулгараад байна. Харин хоорондоо уялдаа холбоотой ЗХА-ыг хамарса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сүлжээ байгуулахын чухлыг бүгд хүлээн зөвшөөрдөг. Аль нэгэн улс зөвхөн өөрийн ашиг сонирхлын улмаас бусад жижиг улсыг боож хаах нь харилцан ашиггүй гэдгийг орчин үеийн даяаршлын нийгэм хүлээн зөвшөөрсөн. Европын холбоо, АНУ-ын ашиг сонирхол ч ЗХА дахь энэхүү өрсөлдөөнд дутахааргүй оролцох болсон. Цаашид Еврази, Номхон дала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аварга том интеграци явагдах төлөвтэй тул аль ч улс хоцрохыг хүсэхгүй нь мэдээж. Өөрөөр хэлбэл эдийн засгийн төвд байрлах улсууд зах руу, захад байрлах улсууд төв рүү тэмүүлэх нь улсуудын үнэт зүйл, эрх ашигт хоёуланд нь нийцэж буй тул энэхүү сонирхлын давхцал ЗХА-ын интеграци илүү хурдтай явагдах нөхцөлийг бүрдүүлж байна. Евразийн энэ том ашиг сонирхлын зангилааны төвд Монгол Улс оршдог. Цаашид ЗХА-ын бүс нутагт эрэлт хэрэгцээ нэмэгдэх хандлагатай тул Монгол Улс нь Лэнд локед(Land locked-Далайд гарцгүй) улс бус Лэнд линкед(Land linked-Хоёр тивийг холбогч) улс болох боломж бүрэн бий. Дэлхийн эдийн засаг, улс төрд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эрс өөрчлөлтүүд гарч байна.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ийн төв, зах зээл дэлхийн бөмбөрцгийн баруун хэсгээс зүүн хэсэг рүү шилжиж эхэллээ.

Иймд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орнууд бүс нутгийн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г алхам алхмаар өргөжүүлж, эдийн засгийн нэгдмэл орон зайг бататгах замаар Европын холбоо шиг том зах зээлийг байгуулах уу, эсвэл таслагдмал, зөвхөн хоёр талын харилцааны явцуу хүрээлэлдээ хүлэгдсэн хэвээр үлдэж, эрх ашгийн төлөөх хурц өрсөлдөөнд татагдан орох эсэхээ шийдвэрлэх тун хариуцлагатай цаг үед тулж ирээд байна. Өнөөдөр дэлхий дээр Европын холбоо, АСЕАН гэсэн хоёр том интеграци амжилттай явагдсаар байна. Харин гуравдахь интеграци ЗХА-ийн бүс нутагт явагдах боломжтой. Тус интеграцид хүлхэц болох салшгүй нэг хэсэг нь Дорнод мөн тул цаашид стратегийн ач холбогдол бүхий бүс нутаг болгон хөгжүүлэхэд манай хоёр улс хамтран ажиллаж болох юм.

Нэгэнт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энэхүү бүс нутгийг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гийн чухал бүс болгон зарлаж, хууль, төсөл, санаачилга эхлэлийн шатандаа явж байгаа тул цаашид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аа нэгтгэх, цаашдын 30 жилийн харилцааг үр өгөөжтэй өнгөрүүлэх үүднээс Монгол Улсын Дорнод аймагт хэрэгжүүлж болох “Их Дорнод санаачилга”-ыг Их түмэн санаачилга, Гурван улсын коридор, Шинэ Умардын бодлого, Кэсоны аж үйлдвэрийн цогцолбор, Бүс ба зам санаачилгын үргэлжлэл болгон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бэлэг тэмдэг, гүүр болгох зорилгоор дараах саналыг тавьж байна.

#### **Их Дорнод санаачилга /Great Dornod initiative/**

Их Түмэн санаачилга /Great Tumen Initiative/ анх 1990 онд Хятадын Гирич мужид болсон ЗХА-ийн Техник,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бага хурлын үер санаачилга гаргаж, улмаар 1991 онд НҮБХХ-ийн санхүүжилтээр Монгол, Орос, Хятад, Хойд Солонгос, Өмнөд Солонгос гэсэн таван орон гишүүнээр элссэнээр үйл ажиллагаа эхэлж байсан түүхтэй. Харин энэхүү мега төсөл нь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асуудал болон бусад шалтгааны улмаас өнөөдрийг хүртэл хэрэгжилт харьцангуй удаашралтай явж ирлээ. Тиймээс энэхүү санаачилгын хоёр дахь хэсэг болох “Их Дорнод санаачилга”-ыг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ийн эхлэл болгон

хэрэгжүүлэх саналыг судлаачийн зүгээс тавьлаа. Энэхүү бүс нутаг нь Хүснэгт 2-т үзүүлсний адил зах зээлийн нөөц, эдийн засгийн чадавхаараа дэлхийд дээгүүрт орох том бүс нутаг юм.

Хүснэгт 2, ЗХА-ийн бүс нутаг				
Газар нутаг		Хүн ам мянга	(km2) мянга	Гол үйлдвэрлэл
Монгол	Дорнод аймаг	223	287	ХАА, Газар тариалан, нүүрс, зэс, нефть, өнгөт төмөрлөг, аялал жуулчлал, барилгын материал
БНСУ	Зүүн Боомтууд	5,300	3	Автомашин, Мэдээлэл технологи, Логистик, Газрын тос боловсруулалт, Усан онгоц, төмөр, аялал жуулчлал
ОХУ	Приморск тойрог	2,069	165	Эрчим хүч, цахилгаан, хүнс, загас агнуур, машин, мод, аялал жуулчлал
Хятад	Хейлунжиан муж	36,168	454	Эрчим хүч, төнөг төхөөрөмж, хүнс, мод, петро хими, эм
	Хянган аймаг	23,843	1,183	ХАА, Хими, Эрчим хүч, төмөр, хувцас, эм
	Гирин муж	27,085	187	Автомашин, эрчим хүч, металлурги, хими, хувцас, аялал жуулчлал
	Лианин муж	42,170	2	Цахилгаан бараа, машин, металлурги, хими
Эх сурвалж: <a href="http://www.tumenprogramme.org/">http://www.tumenprogramme.org/</a>				

Олон улсын хориг тавигдсаны дараа оролцуулах нөхцөлтэйгөөр БНАСАУ-ыг ч мөн гэрээний нэг хэсэг болгох боломжтой. Ер нь өөр бусад олон төсөлд хориг тавигдсаны дараа оролцуулах нөхцөл тавих нь бодлого баримталж болох юм. Ингэхдээ аль аль улсын хөгжлийн түвшинг харгалзах үүднээс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г суурь болгон хэрэгжүүлэх нь илүү хурдан интеграцид орох магадлалтай.

Ирэх 30-н жилд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оорондох харилцааны оноосон нэр нь “Хөдөлмөрийн хөрш, цаашдын харилцаа нь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 бүс нут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нь “Их Дорнод санаачилга”, гурван гүүр нь аялал жуулчлал, уул уурхай, ХАА, холбоос нь агаарын тээвэр,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улсууд нь ОХУ, БНХАУ, БНАСАУ, Япон улс, хэрэгжүүлэх байгууллага нь шинээр байгуулж болох ЗХА-ийн төв, төвлөрөх газар нь Дорнод аймгийн зүүн цэг болох Халхгол сум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чөлөөт бүс байх боломжтой юм. Үүнийг хүснэгтээр харуулбал дараахтай адил юм. Үүнд:

Хүснэгт 3, Цаашдын гучин жилийн төлөв	
Агуулга	Нэр
Харилцааны нэр	Хөдөлмөрийн хөрш
Түншлэл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Их Дорнод санаачилга
Гурван гүүр	Аялал жуулчлал, УУ, ХАА
Гишүүн улс	МУ, БНСУ, ОХУ, БНХАУ, БНАСАУ, Япон
Төвлөрөх газар	Халхгол сум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чөлөөт бүс /Халхгол сум-Инчоны ОУНОБ хүртэлх зай ойролцоогоор 1300 км/
Хэрэгжүүлэх байгууллага	ЗХА-ийн төв,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төв
Бусад санаачилга	Хөгжлийн зам, Их Түмэн санаачилга, Монгол-Орос-Хятад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коридор, Шинэ умардын бодлого, Супергрид.гм
Төстэй загвар	Кесоны аж үйлдвэрийн парк, Европын Холбоо, АСЕАН
Хөгжүүлэх салбар	Төмөр зам, авто зам, агаарын тээвэр, боомт, үйлчилгээний салбар, боловсруулах аж үйлдвэр, эрчим хүч, спорт/голфийн талбай/,

2000 онд Кэсоны аж үйлдвэрийн цогцолборын эхлэл тавигдсаж 2016 он хүртэл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ж, нийт 1.2 тэрбум ам.доллар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sup>4</sup> хийсэн боловч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ийн тогтворгүй байдлаас болоод үйл ажиллагаа зогссон. Тиймээс Кэсоны аж үйлдвэрийн цогцолборын загварын дагуу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зар нутагт БНСУ-ын хөрөнгө, технологээр БНАСАУ-ын ажиллах хүчнийг ашигласан бүс нутг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эхлэл тавих боломж бий. Гэхдээ мөнхийн хориг гэж үгүй тул Хойд Солонгосын эсрэг хориг тавигдах хүртэл манай хоёр улс хэрэгжүүлээд явах боломжтой.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зар нутаг, боловсон хүчин,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хөрөнгө, технологи, БНАСАУ-ын боловсон хүчний оролцсон гурван улсын үр ашгийг дээшлүүлэх цогцолбор байгуулагдсанаар ЗХА-ийн интеграцийг эхлүүлэх, харилцан итгэлцлийг бий болгож, энхтайван тогтооход хувь нэмэр оруулах, олон улсын анхаарлын төвд орсноор бусад улс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г татах, ЗХА-ийн интеграцийн бүсэд үйлдвэрлэсэн бүтээгдэхүүнийг бусад улсад хөнгөлттэй үнээр борлуулах боломжтой. Дашрамд дурдахад Кэсоны аж үйлдвэрийн цогцолбор 2016 онд 120 орчим компан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 хаагдсанаар хөрөнгийн хохирол ойролцоогоор 1 тэрбум ам.доллар<sup>5</sup> давсан төдийгүй БНАСАУ-д 600 сая ам.долларын ашиг өгсөн гэж үздэг. Дээр нь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нь хохирол барагдуулахад ойролцоогоор 500 сая ам.доллар зарцуулсан аж. Нийтдээ 2 тэрбум ам.долларын үр дүн муутай гэж хэлж болохоор зардал,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 хийгджээ. Өгүүллийн эхэнд дурдагдсан олон улсын худалдааны Гравити онолоор<sup>6</sup> хоёр улсын худалдааны энгийн загварыг бусад улсуудтай харьцуулан регрессийн шинжилгээ хийхэд дараах үр дүн гарч байна. Үүнд:

Хүснэгт 4, Монгол Улсын худалдааны регрессийн шинжилгээ		
Улс	Харьцаа	
Хятад		0.750
Гонг Конг		1.045
Япон		1.027
БНАСАУ		1.164
БНСУ		1.013
ОХУ		0.988

Хүснэгт 4 дээр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удалдааны боломж бусад гуравдагч хөрш орнуудын нэгэн адил 1 бүхэлтэй байгаа боловч хэрэв хэрэв Дорнод аймагт стратегийн бүс байгуулсан тохиолдолд орон зайны хувьд 700 орчим километрээр багасах тул боломжит худалдааны харьцаа 0.900 орчим болох тооцоо гарав. Энэ нь өнөөдрийн ОХУ-тай хийж буй худалдааны харьцаатай дүйх өндөр үзүүлэлт юм.

#### Дүгнэлт

Гадаад худалдааны таталцлын онолын дагуу газар нутаг ойр байх нь эдийн засгийн хөгжлийг хурдасгах, цаг хугацаа хэмнэх түлхүүр юм. Тиймээс Монгол Улсын БНСУ-тай хамгийн ойр цэг Дорнод аймгийг сонгож болох бөгөөд энэ нь хоёр улсын цаашдын 30 жилийн төлөвлөгөөндөх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тодорхойлоод зогсохгүй ЗХА-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интеграцид хувь нэмэр оруулах “Их Дорнод санаачилга”-ыг хэрэгжүүлэх боломжтой. БНАСАУ-ыг олон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ориг цуцлагдсан тохиолдолд гишүүн орны нэг болгох нөхцөлтэйгээр оролцуулж болно. Энэ бүс нутагт Монгол Улс, БНСУ, ОХУ, Хятад, Хойд Солонгос, Япон улсуудын ашиг сонирхол давхцаад зогсохгүй Европын холбоо, АСЕАН хэмээх хоёр том интеграцийн дараа орох дэлхийн хамгийн том эдийн

<sup>4</sup> <https://www.kinu.or.kr/>

<sup>5</sup>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6172400030>

<sup>6</sup>  $Tij = A * YiYj / Dij$ ,  $YiYj$ - хоёр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эмжээ,  $Dij$ -хоёр улсын хоорондох зай.

засгийн бүс нутаг болох боломж харагдаж байна. Үүний тулд хамгийн эхлээд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г хөгжүүлэх нь бусад салбарын хөгжлийн суурь болох бөгөөд Кэсоны аж үйлдвэрийн паркын загварыг сайжруулан хоёр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чөлөөт бүс байгуулах хэтийн зорилгыг ч багтаах боломжтой. Олон улсын худалдааны Гравити онолоор орон зай хувьд 2 улс ойртоход худалдааны хэмжээ нэмэгдэх таамаглал батлагдаж байна.

#### Ашигласан материал

1. <https://www.legalinfo.mn/>
2. <https://vip76.mn/content/70574>
3. <https://dornod.gov.mn/p/4>
4. <http://www.tumenprogramme.org/>
5. <https://www.kidmac.or.kr/index>
6. <https://www.unikorea.go.kr/>
7. <https://www.unescap.org/>
8. Dierkes, J. and Jargalsaikhan, M. (2018) “Mongolia In An Emerging Northeast Asian Region”, Mongo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20, pp. 91-100. doi: 10.5564/mjia.v20i0.1026.
9. Enkhbold.I. (2018).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удалдааны харилцаа.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 101-121. <https://doi.org/10.5564/jis.v0i1.99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한·몽 정치외교 분야 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박정후(서울대학교)

## □ 한·몽 정치외교 분야 협력 성과 및 한계

### ○ 한·몽 정부 간 교류협력의 현황 및 성과

1990년 3월 26일, 양국은 공식 수교를 체결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상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상대국을 빈번히 방문하면서 적지 않은 논의와 협정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왔다.

1991년 10월 푼살마긴 오치르바트(Punsalmaagiyn Ochirbat)대통령이 한-몽 수교 이후 최초로 한국을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구축에 상호 협력하며, 경제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1999년 5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했다. 한국의 발전경험 및 노하우를 몽골의 자원 및 잠재력과 결합하여 양국 간 호혜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21세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Mutually Complementary and Cooperative Relations of the 21st century)’를 수립했다.

2001년 2월, 나차긴 바가반디(Natsagiinn Bagabandi) 대통령이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통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정무·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06년 5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몽골의 광물·에너지 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 및 건설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 및 농업, IT,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밖에 교육, 체육, 문화 등의 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확대를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 관계는 ‘선린우호 협력을 위한 동반자 관계(Partnership for Good-Neighbor Cooperation)’로 격상됐다.

2007년 5월, 2008년 2월에 남바린 엔흐바야르(Nambaryn Enkhbayar)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경제, 통상, 산업, 에너지, 환경 등의 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

<표 1> 한국-몽골 주요 인사 교류 현황

일 시	방문 인사	주요 내용
1991. 10	푼살마긴 오치르바트(Ochirbat) 대통령 방한	수교 후 몽골정상 최초 방한
1999. 5	김대중 대통령 방몽	‘21세기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 수립
2001. 2	바가반디(Bagabandi) 대통령 방한	경제·통상 확대, 정무·국제무대 협력
2006. 5	노무현 대통령 방몽	‘선린우호협력 동반자 관계’수립
2007. 5	엔흐바야르(Enkhbayar) 대통령 방한	과학기술·산업무역 협력 강화

2008. 10	바야르(Bayar) 총리 방한	중기행동계획 채택, 수교 20주년 행사 개최 방안 합의
2011. 3	바트볼드(Batbold) 총리 방한	양국 간 인적교류 활성화, 자원개발 분야 참여 협의
2011. 8	이명박 대통령 방몽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수립
2016. 5	엘벡도르지(Elbegdorj) 대통령 방한	국제무대에서 양국 협력방안 논의
2016. 7	박근혜 대통령 방몽	경제동반자협정(EPA)체결 추진 합의
2017. 9	동방경제포럼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 - 바트툴가 대통령)	지역안보 및 경제협력 논의
2018. 1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 몽골 총리 방한	신북방정책 협력 강화
2018. 9	동방경제포럼 양자회담(이낙연 총리 - 바트툴가 대통령)	북한 비핵화 위한 협력 강화
2019. 3	이낙연 총리 방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합의

자료: 외교부(2016), pp. 120~121.;

[http://www.news1.kr/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18\\_0014092299&cID=10301&pID=10300](http://www.news1.kr/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18_0014092299&cID=10301&pID=10300);<http://news1.kr/articles/?2722115>;<https://www.news1.kr/articles/?3208803>(검색일: 2021. 4. 21)  
참조하여 저자 작성.

2011년 3월, [수흐바타린 바트볼드\(Sükhbaataryn Batbold\)](#)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다. 양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 및 한국 정부로부터 차관지원, 한국기업의 몽골 자원개발 참여 등의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같은 해 8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했다. 두 정상은 정부 간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경제, 산업 및 인적개발 실질적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관계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Partnership)’로 격상됐다.

2016년 5월에는 차히아긴 엘벡도르지(Tsakhiaagin Elbegdorj)대통령이 방한했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양국 간 경제, 산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의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무대에서 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2016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몽골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차 몽골을 방문했다. 양국의 ‘한-몽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과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엘벡도르지 몽골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지지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협력 확대에 동의했다. 이 밖에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할트마긴 바트툴가(Khaltmaagiin Battulga)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및 미사일 문제, 안보 및 경제협력 등 양국 관계증진 방안 등에 논의했다.<sup>1)</sup>

<sup>1</sup>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13>(검색일: 2021. 4. 13).

2018년 1월, 오희나깅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 총리가 방한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경제, 안보 등 제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 대몽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개정안 체결을 통해 2019년까지 총 7억 달러의 EDCF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의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국인 몽골과 자원·에너지,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8년 9월,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이낙연 총리는 바트톨가 몽골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몽 관계 격상 문제,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평화, 에너지·철도 분야, 동북아수퍼그리드 사업,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sup>2</sup>

2019년 3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몽하여 후렐스흐 총리와 회담을 개최했다.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에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몽골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수퍼그리드 및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sup>3</sup>

양국 정상급들의 논의와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 및 조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방몽하여 ‘한국-몽골 자원협력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동 위원회는 1999년에서 2011년 사이에 번갈아 가며 양국 수도에서 개최됐다. 한-몽 자원협력위원회에서는 양국 간 에너지, 광물자원 분야의 협력 및 공동연구, 산업기술인력 교류 등을 논의하였다.

2003년 10월에 체결된 농업분야 협력약정에 근거하여 농업협력위원회가 격년으로 2004년~2012년까지 5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농업정책 등을 공유하고 한국에서 몽골의 농업개발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몽골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자 간 교류를 지원하였다.

1995년 체결된 ‘한-몽 교육협력약정’ 및 2007년 ‘한-몽 과학기술 협력협정’에 근거한 ‘한-몽 교육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2010년에 설치되었다. 양국 간 교육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과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논의했다. 격년으로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한-몽 교육과학기술공동위원회 소속으로 한-몽 교육과학기술포럼을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2001년 2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문화 분야 합작사업 구상과 문화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한-몽 문화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14년 양국은 한-몽 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양국 간 구성된 정부 간 위원회 중 장관급 협의체로,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따라 각 부처 관계관들이 참여한다.

정부 간 협의체는 아니지만, 2009년 ‘한-몽 의원친선협회’가 구성되어 양국 국회의원 간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대한상공회의소와 몽골상공회의소는 1990년 ‘한-몽 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양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여 경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체인 ‘한-몽 경제포럼’이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 ○ 정부 간 교류협력의 한계

<sup>2</sup> 국무총리실 온라인 보도자료(2018. 9. 11), 「블라디보스톡 방문 2일 차」(검색일: 2021. 4. 13).

<sup>3</sup> 「이 총리, 한-몽골 수교 30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2021. 4. 26).

이처럼 양국 간 정부차원의 협의체들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실천과 후속 논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광물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한-몽 자원협력위원회’는 2011년 11차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개최되지 않고 있다. 2004년 양국 간 농업정책 및 경험을 공유하고 농업개발지원, 기술교류, 투자 증진 등을 논의해 왔던 ‘한-몽 농업협력위원회’도 2년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다 2012년 이후 더 이상 개최되지 않고 있다.<sup>4</sup> 2010년 개최된 한-몽 교육과학기술공동위원회 또한 2012년 한국에서의 2차 회의 및 동년에 개최된 한-몽 교육과학기술포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개최되지 않고 있다. 2001년 양국 간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구성된 ‘한-몽 문화공동위원회’는 2011년 3차 회의 이후 2016년 6월에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제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구성 이후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한-몽 문화공동위원회는 이를 끝으로 현재까지 개최 예정이 없다.

양국 간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에 구성된 정부차원의 협의체들이 활발히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협의체에서 의결된 내용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 한·몽 정치외교 협력의 과제

### ○ 남북몽 연계 협력 방안

몽골은 북한과 사회주의 시절부터 주요 협력국이다. 1950년대에 몽골은 공식적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였고, 1956년 11월에는 평양에서 양국 간 최초의 경제협정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몽골인민공화국간의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sup>5</sup> 이후, 현재까지 양국은 각종 의정서와 협정을 체결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몽골과 북한의 이와 같은 우호적인 관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몽골에서의 각종 다자협력 프로젝트에는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중-몽-러 경제회랑 및 파이프라인 건설, 동북아 수퍼그리드 프로젝트, 몽골 자유무역지대 내 산업단지 조성, 북한의 나진·선봉지구를 활용하여 남·북·몽 3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유통로 신설, 몽골 광물자원개발 분야 및 농업지대 개발 등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지리적 이점, 몽골의 관련 법제도 및 운영체계 지원 등을 통해 남·북·몽 3국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한·몽 정부 간 교류 활성화

한·몽 수교이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부 간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나, 괄목한 만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가 미미하다. 반면 몽골과 중국의 경우, 중국의 부총리급이 수석대표를

<sup>4</sup> 박정후(2016b), p. 177.

<sup>5</sup>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몽골인민공화국간의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1956. 11. 4).

맡고 있는, ‘중-몽 무역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sup>6</sup> 아울러 일본은 장관급이 참여하는 ‘무역투자촉진 및 광물자원개발 공공민간 섹터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sup>7</sup>. 또한 러시아와 몽골은 러-몽 정부 간 ‘무역·경제·과학기술 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이를 통해 경제·무역교류 활성화를 비롯하여 건설 인프라 및 농업, 관광분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양국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어 실천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 있어 몽골은 비단 경제협력 분야뿐만이 아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구축을 위한 주요 협력국임을 전제로 하여 양국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을 통해 구축된 양국의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양국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의 상호지지와 협력 등의 노력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sup>8</sup> 이와 같은 노력들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간 협의체의 내실 있는 구성과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양국 정부 사이에 여러 협의체들 중, 범정부 장관급 협의체인 ‘한-몽 공동위원회’가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한국과 몽골 정부는 ‘한-몽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의 수교 이후 정부 간 합의되었던 사항들의 실천 및 진행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련의 합의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한 기구를 양국 정부 및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설치하여,<sup>9</sup> 합의된 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체감성과 창출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때마침 양국에서는 2020년 4월과 6월에 각각 총선거가 치러졌고 양국 국회의원들은 엇비슷한 기간 동안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은 2009년 구성된 ‘한-몽 의원친선협회’를 통해 국회의원 간 상호 방문 및 교류협력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정부 간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성과창출을 독려하는데 있어 양국 국회의원들 간 활발한 논의와 협의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 19사태의 추이에 따라, 양국 국회의원들 간 교류와 논의 기회 증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정후. 2016. 「한국-몽골 관계 추이와 전망: 2016년 몽골총선과 ASEM 정상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제8차 중앙아시아 연합학술회의. (12월 16일)
- 박정후. 2018. 몽골과 남·북한 관계. 『몽골지역연구: 신 한몽 관계 정립을 위한 전략적 협력방안』. 자유문고
- 박정후. 2018. 몽골의 자원경제. 『몽골지역연구: 신 한몽 관계 정립을 위한 전략적 협력방안』
- 박정후. 2016. 몽골 광물자원개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성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 유라시아, 터키 동유럽』, 전략지역심층연구 16-13
- 외교부. 2016. 『2016 몽골개황』.
- 잔즈브도로쥐 롬보. 2007. 『몽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관계 6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sup>6</sup> 제성훈, 이재영, 강부균, 윤지현(2015), p. 13.

<sup>7</sup> Ibid, p. 13.

<sup>8</sup> 박정후(2018), p. 408.

<sup>9</sup> Ibid, p. 407.

제성훈, 이재영, 강부균, 윤지현. 2015. 「수교 25주년, 한·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KIEP오늘의세계경제 Vol.15 No.9.

Sanders, Alan J. K. 2010. *Historical Dictionary of Mongolia*. Scarecrow Press.

World Bank. 2014. *Mongolia country profile 2013*.

외교부. 2019. 「제 3차 한-몽 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도자료. (1월 1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몽골 인민공화국 간의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1956.

#### 11. 4. 체결)

「이 총리 "한-몽골 수교 30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2019. 『NEWSIS』, (3월 26일)

「한-몽골 정상회담...‘경제동반자 협정’추진 합의」. 2016. 『경향신문』, (7월 17일)

「Mongoliin unen」 2019년 12월 20일 자.

「Undesnii medee」, 2016년 11. 22일 자.

「Unuudur」 2020년 1월 3일 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БНСУ - Монгол улсын улс төр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салбар дахь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ба цаашдын асуудалд**

Пак Жонхү(Сөүлийн үндэсний их сургууль)

□ **БНСУ - Монгол улсын улс төр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салбар дахь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үр дүн ба хязгаарлагдмал байдал**

○ **БНСУ -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ын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бодит байдал ба үр дүн**

1990 оны 3 сарын 26-ны өдөр хоёр улс нь албан ёсны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р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эхлэсэн. Үүнээс хойш хоёр улсын төрийн тэргүүнээс эхлүүлэн өндөр түвшний төрийн албан хаагчид харилцан ойр ойрхон айлчилж багагүй яриа хэлэлцээ, зөвшилцлөөр дамжуулан хоёр улс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бэхжиж байна.

1991 оны 10 сард Пунсалмаагийн Очирбат(Punsalmaagiyn Ochirbat) ерөнхийлөгч БНСУ-Монгол улс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с хойш анх удаа Өмнөд Солонгост айлчлав. Хоёр улсын төрийн тэргүүн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 болон Зүүн хойд Азид энх тайвныг тогтооход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өргөжүүлэхээр тохиров.

1999 оны 5 сард Ким Дэжүн ерөнхийлөгч Монгол улсад айлчлав. Солонгосын хөгжлийн туршлага болон ноухауг Монголын нөөц, боломжтой хослуулан хоёр улс хоорондоо харилцан ашигтай хөгжлийг эрмэлзэхийн тулд "21-р зууны харилцан нөхсө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Mutually Complementary and Cooperative Relations of the 21st century)"-г тогтоосон.

2001 оны 2 сард Нацагийн Багабанди(Natsagiin Bagabandi) ерөнхийлөгч БНСУ-ын ерөнхийлөгч Ким Дэжүний урилгаар Өмнөд Солонгост айлчилсан. Төрийн тэргүүнүүд хоёр улс хоорондын эдийн засаг, худалдааг нэмэгдүүлэх арга зам болон төрийн болон олон улсын тавцанд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арга замын талаар хэлэлцсэн.<sup>1</sup>

2006 оны 5 сард, БНСУ-ын Ну Мүхён ерөнхийлөгч Монголд айлчилсан. Хоёр улсын төрийн тэргүүнүүд Монголын ашигт малтмал эрчим хүчний нөөцийг хамтдаа ашиглахын тулд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аар болов. Мөн түүнчлэн худалдаа барилгын салбарт харилцан ойлголцлын санамж бичиг, мөн ХАА, мэдээллийн технологи, байгаль орчин зэрэг олон янзын салбарт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ав. Үүнээс гадна боловсрол, спорт, урлаг гэх мэт салбарт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өргөжүүлэхээр тохиров.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г "Сайн хөршийн найрсаг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төлөөх түншлэл(Partnership for Good-Neighbor Cooperation)" болгож ахиулсан.

2007 оны 5 сар, 2008 оны 2 сард Намбарын Энхбаяр(Nambaryn Enkhbayar) ерөнхийлөгч БНСУ-д айлчилсан. Дээд хэмжээний уулзалтаар хоёр улс нь эдийн засаг, худалдаа, аж үйлдвэрлэл, эрчим хүч, байгаль орчин гэх бүх салбарт бодит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бэхжүүлэхээр тохирлоо.

<Хүснэгт 1> БНСУ-Монгол улсын гол албан тушаалтны харилцан айлчилсан байдал

Огноо	Айлчилсан албан тушаалтан	Гол агуулга
1991. 10	Пунсалмаагийн Очирбат ерөнхийлөгч БНСУ-д айлчлав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с хойш Монгол улсын төрийн тэргүүний БНСУ-д хийсэн анхны айлчлал

<sup>1</sup> 「이 총리, 한-몽골 수교 30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2021. 4. 26).

1999. 5	Ким Дэжүн ерөнхийлөгч МУ-д айлчлав	‘21-р зууны харилцан нөхсө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в
2001. 2	Н.Багабанди ерөнхийлөгч БНСУ-д айлчлав	Эдийн засаг·худалдааг нэмэгдүүлэх, улс төр·олон улсын тавцанд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2006. 5	Но Мүхён ерөнхийлөгч МУ-д айлчлав	‘Сайн хөршийн найрсаг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тогтоов.
2007. 5	Н.Энхбаяр ерөнхийлөгч БНСУ-д айлчлав	Шинжлэх ухаан технологи·аж үйлдвэрлэл худалдааны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бэхжүүлэв
2008. 10	С.Баяр ерөнхий сайд БНСУ-д айлчлав	Дунд хугацааны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өлөвлөгөө батлах,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20 жилийн ойн арга хэмжээ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арга замын талаар хэлэлцэв
2011. 3	С.Батболд ерөнхий сайд БНСУ-д айлчлав	Хоёр улс хоорондын иргэдийн харилцааг идэвхжүүлэх, нөөц ашиглалтын салбарт оролцох хувилбарыг зөвшилцөв
2011. 8	Ли Мёнбаг ерөнхийлөгч МУ-д айлчлав	‘Иж бүрэ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тогтоов
2016. 5	Ц. Элбэгдорж ерөнхийлөгч БНСУ-д айлчлав	Олон улсын тавцанд хоёр улс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арга замыг хэлэлцэв
2016. 7	Пак Гынхэ ерөнхийлөгч МУ-д айлчлав	Эдийн засгийн түншлэлийн хэлэлцээр(ЕРА) байгуулах ажлыг хэрэгжүүлэх талаар хэлэлцэв
2017. 9	Дорн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форумаар дээд хэмжээний уулзалт хийв.(Мүн Жэин ерөнхийлөгч – Х.Баттулга ерөнхийлөгч)	Бүс нутгийн аюулгүй байдал ба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талаар хэлэлцэв
2018. 1	У. Хүрэлсүх ерөнхий сайд БНСУ-д айлчлав	Шинэ Умардын бодлог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бэхжүүлэв
2018. 9	Дорн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форумаар хоёр талт уулзалт хийв.(Ли Нагён ерөнхий сайд – Х.Баттулга ерөнхийлөгч)	Хойд Солонгосыг цөмийн зэвсгээс ангид болгох талаар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бэхжүүлэх
2019. 3	Ли Нагён ерөнхий сайд МУ-д айлчлав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руу ахиулахаар тохиролцов

자료: 외교부(2016), pp. 120~121.;

[http://www.news1.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18\\_0014092299&cID=10301&pID=10300](http://www.news1.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18_0014092299&cID=10301&pID=10300);

<http://news1.kr/articles/?2722115>;<https://www.news1.kr/articles/?3208803>(검색일: 2021. 4. 21)

참조하여 저자 작성.

2011 оны 2 сард Сүхбаатарын Батболд(Sukhbaatarын Batbold) ерөнхий сайд БНСУ-д айлчилсан. Хоёр улсын хооронд иргэдийн солилцоог идэвхжүүлэх болон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хөнгөлөлттэй зээлийн дэмжлэг үзүүлэх, Солонгосын компаниудыг Монголын нөөцийг ашиглахад оролцуулах гэх мэт асуудлын талаар ярилцсан. Тухайн жилийн 8 сард БНСУ-ын Ли Мён Бак ерөнхийлөгч Монгол улсад айлчлав. Төрийн тэргүүнүүд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 харилцан солилцоог өргөжүүлж, эдийн засаг, аж үйлдвэрлэл, хүний нөөцийн бодит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өргөжүүлэхээр тхирсон. Мөн түүнчлэн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г "Иж бүрэн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Comprehensive Partnership)" болгон ахиулсан.

2016 оны 5 сард Цахиагийн Элбэгдорж ерөнхийлөгч БНСУ-д айлчилсан. Элбэгдорж ерөнхийлөгч Пак Гынхэ ерөнхийлөгчтэй хоёр улс хоорондын эдийн засаг,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н салбарт бодит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бэхжүүлэх арга замын талаар ярилцсан. Үүнээс гадна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ийн нөхцөл байдлын талаар саналаа солилцож, Зүүн Хойд Азид энх тайвны тогтолцоог тогтоохын тулд олон улсын тавцанд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аа урагшлуулахаар тохирсон.

2016 оны 7 сард Пак Гынхэ ерөнхийлөгч Монгол улсад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дсан Ази-Европын дээд хэмжээний уулзалт(ASEM)-д оролцохоор Монгол улсад айлчилсан. Хоёр улс нь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иж бүрэн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г хөгжүүлэхийн тулд бодит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боло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салбарт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бэхжүүлэхээр тохирсон. 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 Элбэгдорж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ийг цөмийн зэвсэггүй болгохыг дэмжихийн ялдамд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бүс нутагт тогтвортой байдал, энх тайвныг тогтоохын тулд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аа өргөжүүлэхэд санал нэгдсэн. Үүнээс гадна хоёр улс эдийн засгийн түншлэлийн хэлэлцээр(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байгуулахын тулд хамтарсан судалгааг хэрэгжүүлэхээр болсон.

2017 оны 9 сард Мүн Жэин ерөнхийлөгч Владивостокд явагдсан 3 дахь удаагийн Дорн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форум дээр Халтмаагийн Баттулга(Khaltmaagiin Battulga) ерөнхийлөгчтэй дээд хэмжээний уулзалт хийж, Хойд Солонгосын цөмийн болон пуужингийн асуудал,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гэх мэт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г урагшлуулах арга замын талаар хэлэлцсэн.<sup>2</sup>

2018 оны 1 сард Ухнаагийн Хүрэлсүх(Ukhnaa Khurelsukh) ерөнхий сайд БНСУ-д айлчилж, Мүн Жэин ерөнхийлөгч болон Ли Нагён ерөнхий сайдтай уулзан эдийн засаг, аюулгүй байдал зэрэг бүх салбарт бодит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талаар санал солилцсон. Өмнөд Солонгос улс нь Монголтой гадаа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сан (EDCF)-гийн ерөнхий санамж бичгийг шинэчлэн байгуулснаар 2019 он хүртэл нийт 700 сая долларын хөрөнгө ЭЗХАС-гаас олгохоор болов. Мөн түүнчлэн БНСУ-ын Шинэ умардын бодлогын гол хамтрагч улс болох Монгол улстай байгалийн нөөц, эрчим хүч, зам тээвэр, дэд бүтцийн салбарт улам бүр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аа бэхжүүлэхээр болов.

2018 оны 9 сард 4 дэх удаагийн Дорн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форумын үеэр Ли Нагён ерөнхий сайд 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 Баттулгатай уулзалт хийж, БНСУ- Монгол улсын харилцааг ахиулах асуудал,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ийн асуудал болон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энх тайван, эрчим хүч төмөр замын салбар,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супер гридийн төсөл, хоёр улсын хоорондын иргэдийн харилцааг нэмэгдүүлэх арга зам гэх мэт асуудлыг хэлэлцэж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бэхжүүлэхээр тогтов.<sup>3</sup>

2019 оны 3 сард Ли Нагён ерөнхий сайд Монгол улсад айлчлан, Хүрэлсүх ерөнхий сайдтай уулзалт хийсэн.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ны 30 жил тохиож буй 2020 онд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г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ийн харилцаа" болгон ахиулахаар тохирч, Монголын агаарын бохирдлын асуудлыг шийдэхийн тулд БНСУ-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сан"-г ашиглахаар болов. Мөн БНСУ-ын шинэ умардын бодлогын хүрээнд хэрэгжүүлж буй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супер грид болон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төмөр замын хамтын нийгэмлгийн санаачлагын талаар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арга замын талаар ярилцав.

<sup>2</sup>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13>(검색일: 2021. 4. 13).

<sup>3</sup> 국무총리실 온라인 보도자료(2018. 9. 11), 「블라디보스톡 방문 2일 차」(검색일: 2021. 4. 13).

Хоёр улсын дээд хэмжээний албан тушаалтнуудын санал яриа ба тохиролцсон агуулгад үндэслэн хоёр улс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өргөжүүлэхийн тулд тогтолцоог бий болгохын тулд төрөл бүрийн салбарт хэлэлцээр болон гэрээг байгуулсан. Мөн түүнчлэн үүнийг бодит болгохын тулд төрөл бүрийн салбарт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ын яриа хэлэлцээний механизмыг бий болгож, хэрэгжүүлэхээр тохирсон бөгөөд агуулгыг нь ажиглавал дараахь байдлаар хэрэгжив.

1999 онд Ким Дэжүн ерөнхийлөгч Монгол улсад айлчилж "БНСУ - Монгол улсын эрдэс баял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ороо"-г байгуулахаар тохирсон. Тус хороо нь 1999 оноос 2011 оны хооронд хоёр улсын нийслэлд ээлжлэ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дсан. БНСУ - Монгол улсын баял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ороогоор хоёр улс хоорондын эрчим хүч,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нөөцийн салбар дахь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хамтарсан судалгаа, аж үйлдвэрлэлийн технологи хүний нөөцийн солилцоо зэргийг хэлэлцсэн байна.

2003 оны 10 сард байгуулсан хөдөө аж ахуйн салбар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санамж бичигт үндэслэн хөдөө аж аху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ороог 2004-2012 оны хооронд хоёр жил тутамд нийт 5 удаа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дсан. Хөдөө аж ахуйн салбарын бодлого гэх мэтийг хуваалцаж, Солонгосын зүгээс Монголын хөдөө аж ахуйн хөгжлийг дэмжих хэлбэрээр хэрэгжсэн. Мөн Монголын хөдөө аж ахуйн салбарын талаарх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г нэмэгдүүлэх арга замыг бэлдэж, холбогдох мэргэжилтнүүдийн солилцоог дэмжсэн.

1995 онд байгуулсан "БНСУ-Монгол улсын боловсролын салбар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санамж бичиг" болон 2007 оны "БНСУ-Монгол улс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 техноло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санамж бичиг"-г үндэслэн "БНСУ-Монгол улсын боловсрол шинжлэх ухаан технологийн хамтарсан хороо" 2010 онд байгуулагдсан. Хоёр жил тутамд хоёр улсад ээлжлэ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ддаг бөгөөд БНСУ - Монгол улсын боловсрол, шинжлэх ухаан, технологийн хамтарсан хорооны харьяа БНСУ - Монгол улсын боловсрол шинжлэх ухаан технологийн форумыг жил бүр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аар болсон.

2001 оны 2 сард хоёр улсын төрийн тэргүүнүүдийн тохиролцсны дагуу соёлын салбар хамтарсан төсөл санаачлах, соёлын солилцооны зорилгоор БНСУ - Монгол улсын соёлын хамтарсан хороог байгуулсан.

2014 онд хоёр улс нь БНСУ - Монгол улсын хамтарсан хороог бүрдүүлэх талаар тохиролцсон. Хоёр улсын дунд бий болсо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ын хороод дотроос сайдын түвшний яриа хэлэлцээний механизм, хоёр улс хооронд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асуудлын дагуу салбарын яамдын холбогдох албаны хүмүүс оролцдог.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ын яриа хэлэлцээний механизм биш боловч, 2009 онд "БНСУ - Монгол улсын парламентын гишүүдийн найрамдлын бүлгэм" байгуулагдаж хоёр улсын парламентын гишүүд хоорондын солилцоо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дэмжиж байгаа юм. Үүнээс гадна Солонгосын худалдаа аж үйлдвэрийн тэнхим болон Монголын Худалдаа аж үйлдвэрийн тэнхим нь 1990 онд "БНСУ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ороо"-г байгуулан хоёр улс хооронд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өргөжүүлэх арга замыг хэлэлцэж ирсэн. Мөн түүнчлэн 2014 оноос хоёр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болон компаниуд оролцо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салбарт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өргөжүүлэх зорилготой яриа хэлэлцээний механизм хэлэлцэхийн тулд яриа хэлэлцээний механизм болох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форум" нь хоёр улсад ээлжлэ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ддаг.

○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ын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язгаарлагдмал байдал

Ийнхүү хоёр улсын хооронд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түвшний яриа хэлэлцээний механизмууд бүрэлдэж, хэрэгжиж байгаа яриа хэлэлцээний механзм дээр хэлэлцсэн зүйлийн хэрэгжилт, дараачийн хэлэлцээ нь хэвийн үргэлжлэхгүй байна. Ашигт малтмал нөөц болон эрчим хүчний салбарт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зорилгоор байгуулсан "БНСУ Монгол улсын баял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ороо" нь 2011 онд 11 дэх хурлаар төгсгөл болж, цаашид дахи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даагүй юм. 2004 онд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 хөдөө аж ахуйн салбар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ороо нь 2 жил тутамд тогтмол явагдаж байгаад 2012

оноос хойш дахи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дсангүй.<sup>4</sup> 2010 онд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дсан БНСУ- Монгол улсын боловсрол шинжлэх ухаан технологийн салбарын хамтарсан хороо мөн 2012 онд Өмнөд Солонгос 2 дугаар хурал, тухайн жилд БНСУ - Монгол улсын боловсрол шинжлэх ухаан технологийн форум хамгийн сүүлд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даад, түүнээс хойш дахин явагдаагүй. 2001 он хоёр улс хооронд соёлын харилцааг урагшлуулах зорилгоор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дсан "БНСУ Монгол улсын соёлын салбарын хамтарсан хороо" нь 2011 онд 3 дахь уулзалты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сны дараа 2016 оны 6 сард Монгол улсын нийслэл Улаанбаатарт 4 дэх уулзалты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дсан. Бий болсоноос хойш тогтмол бусаар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даж байсан БНСУ Монгол улсын соёлын хамтарсан хороо нь үүнээс хойш өнөөг хүртэл дахиж явуулах төлөвлөгөөгүй байна.

Хоёр улс хооронд улс төр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салбарт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өргөжүүлэхийн тулд урьд бий болгосо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түвшний яриа хэлэлцээний механизмуудыг идэвхитэй хэрэгжүүл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юм. Үүгээр ч зогсохгүй, яриа хэлэлцээний механизм дээр шийдсэн агуулгын бодит хэрэгжилтийг тогтмол хянах тогтолцоог бүрдүүл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на.

#### □ БНСУ - Монгол улсын улс төр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д тулгарч буй асуудал

##### ○ Өмнөд Солонгос, Хойд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улсыг холбосо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арга зам

Монгол улс нь Хойд Солонгостой социализмын үеээс гол хамтрагч улс байсан. 1950-иад оны үед Монгол улс нь албан ёсоор 10 гаруй удаа Хойд Солонгост 1956 оны 11 сард Пхеньян хотноо хоёр улс хооронд анх удаа эдийн засгийн хэлэлцээр болох "БНАСАУ болон БНМАУ-ын хооронд эдийн засаг ба соёл салбарт хамтран туслалцах тухай хэлэлцээр"-ийг байгуулсан.<sup>5</sup> Үүнээс хойш өнөөг хүртэл хоёр улс нь төрөл бүрийн протокол болон хэлэлцээрийг байгуулж өнөөдрийг хүртэл харилцан ашигтай харилцааг хадгалж иржээ.

Өмнөд Солонгос нь Монгол улс болон Хойд Солонгосын хоорондох энэхүү найрсаг харилцааг ашиглах арга замын талаар эрэлхийлж үзэх ёстой юм. Өмнө дурьдсанчлан Монголд хэрэгжиж буй төрөл бүрийн олон талт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төслүүдэд Хойд Солонгос оролцох боломж хангалттай бий. Монгол-ОХУ-БНХАУ-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коридор,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супер грид, Монголын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ы бүс дотор аж үйлдвэрийн парк байгуулах, Хойд Солонгосын Ражин, Сонбуны бүсийг ашиглан Өмнөд Солонгос Хойд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ын гурван улс голчилсон худалдааны шинэ урсгал бий болгох, Монголын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нөөцийг ашиглах салбар, мөн хөдөө аж ахуйн бүсийг хөгжүүлэх гэх мэтээр Өмнөд Солонгосын капитал, технологи, Хойд Солонгосын ажиллах хүч болон газар зүйн байршлын давуу тал, Монголын холбогдох хууль эрхзүйн тогтолцоо, удирдлагын тогтолцоогоор хангах зэргээр Өмнөд Солонгос - Хойд Солонгос - Монгол улс гурван улсын консерциум хэлбэрээр оролцож нэр хүнд, бодит ашиг олж болохуйц төрөл бүрийн төслүүдийг санаачилж болохоор байна. Энэ нь эцсийн дүндээ Солонгос хойг дахь түгшүүртэй байдлыг сулруулах, Зүүн Хойд Азид энх тайвныг тогтооход хувь нэмэр болох юм.

##### ○ БНСУ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ын харилцааг идэвхжүүлэх

Монгол улс БНСУ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с хойш олон салбарт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ын хэлэлцээрийн механизм байгуулагдаж, хэрэгжиж байсан боловч дорвитой үр дүн гаргасан жишээ ховор байна. Нөгөө талаар Монгол улс болон БНХАУ-ын тохиолдлыг үзвэл Хятадын шадар сайдын түвшний тэргүүлэх төлөөлөл хариуцсан "БНХАУ Монгол улсын худалдаа эдийн засаг

<sup>4</sup> 박정후(2016b), p. 177.

<sup>5</sup>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몽골인민공화국간의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1956. 11. 4).

шинжлэх ухаан техноло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ороог ажиллуулж байна. Мөн түүнчлэн Японы хувьд сайдын түвшний албан тушаалтан оролцож байгаа "Худалдаа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г хөхүүлэн дэмжих, ашигт малтмал нөөцийг ашиглах төр хувь хэвшлийн хамтарсан хороо"-г ажиллуулж байна.<sup>6</sup> ОХУ ба Монгол улсын хувьд Орос Монгол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ын "Худалдаа эдийн засаг шинжлэх ухаан техноло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хуралдаан"-ыг тогтмол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үүгээрээ эдийн засаг, худалдааны харилцааг идэвхжүүлэхээс эхлүүлээд барилга дэд бүтэц, хөдөө аж ахуй, аялал жуулчлалын салбар зэрэгт тууштай яриа хэлцэл хийх төдийгү хоёр улс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талаар бодитойгоор тохиролцоонд хүрч хэрэгжүүлж байна.

Өнөөдөр Өмнөд Солонгос улсын хувьд Монгол улс нь гагцхүү эдийн засгий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салбараар тогтохгүй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ийг оролцуулаад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бүс нутгийн тогтвортой байдал, энх тайвныг тогтооход гол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улс гэдэг нөхцлийг харгалзаж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г урагшлуулах хэрэгтэй юм. Үүний тулд өнгөрсөн хугацаанд засгийн газар болон иргэдийн түвшинд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аар бий болсон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г илүү үр дүнтэй хөгжүүлэхийн төлөөх суурийг бэлтгэх ёстой юм. Хоёр улсын түвшинд төдийгү олон улсын тавцан дээр харилцан дэмжих, хамтарч ажиллах гэх мэт хичээл зүтгэлийг бас зэрэгцүүлэх шаардлагатай.<sup>7</sup>

Эдгээр хүчин чармайлтыг тогтолцоожуулахын тулд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ын яриа хэлэлцээний механизмыг үр дүнтэйгээр бий болгох, идэвхжүүлэх нь юу юунаас илүү чухал юм. Азаар манай хоёр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ын олон механизм дотроос нийт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сайдын түвшний "БНСУ Монгол улсын хамтарсан хороо" нь тууштай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гдаж байна. Өмнөд Солонгос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нь "хамтарсан хороо"-гоор дамжуулан хоёр улс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с хойш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 тохиролцсон зүйлсийн биелэлт ба хэрэгжиж буй эсэх талаар бүхэлд нь хянах, байнга нягтлах ажлыг явуу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юм. Мөн түүнчлэн дэс дараалсан тохиролцсон зүйлсийг биелүүлэх зорилго бүхий байгууллагыг хоёр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болон хувийн сектортой хамтран байгуулж,<sup>8</sup> тохиролцсон зүйлсийг хурдацтай хэрэгжүүлэх, нөгөө талаар мэдрэгдэхүйц бөгөөд бүтээлч байдлаар хоёр улс хооронд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харилцааг нэг шат урагшлуулах хэрэгтэй юм.

2020 оны 4 сар болон 6 сард хоёр улсад тус тусын парламентын сонгуулийг яг товлосон цагтаа явуулсан бөгөөд хоёр улсын парламентын гишүүд бараг ижил хугацаанд парламентын гишүүний үүрэг гүйцэтгэхээр болж байна. Манай хоёр улс нь 2009 онд бүрэлдсэн "БНСУ - Монгол улсын парламент дахь найрамдлын бүлэг"-ээр дамжуулан парламентын гишүүд хооронд харилцан айлчилж,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аа гүнзгийрүүлэх арга замын талаар хэлэлцэж ирсэн юм.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оорондын яриа хэлэлцээний механизмын саадгүй үйл ажиллагаа болон үр дүнгийн бүтээмжид түлхэц өгөхөд хоёр улсын парламентын гишүүд хоорондын идэвхтэй яриа хэлэлцээ нь ихээхэн нөлөө үзүүлж чадах юм. Тиймээс цаашдаа корона 19-ийн нөхцөл байдлаас хамаарч, хоёр улсын парламентын гишүүд хоорондоо харилцах, ярих хэлэлцэх боломжийг нэмэгдүүлэх боломжийг идэвхтэй судалж үзүүштэй юм.

#### Ашигласан сурвалж

박정후. 2016. 「한국-몽골 관계 추이와 전망: 2016년 몽골총선과 ASEM 정상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제8차 중앙아시아 연합학술회의. (12월 16일)

<sup>6</sup> Ibid, p. 13.

<sup>7</sup> 박정후(2018), p. 408.

<sup>8</sup> Ibid, p. 407.

- 박정후. 2018. 몽골과 남·북한 관계. 『몽골지역연구: 신 한몽 관계 정립을 위한 전략적 협력방안』. 자유문고
- 박정후. 2018. 몽골의 자원경제. 『몽골지역연구: 신 한몽 관계 정립을 위한 전략적 협력방안』
- 박정후. 2016. 몽골 광물자원개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성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 유라시아, 터키 동유럽』, 전략지역심층연구 16-13
- 외교부. 2016. 『2016 몽골개황』.
- 잔즈브도로취 롬보. 2007. 『몽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관계 6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 제성훈, 이재영, 강부균, 윤지현. 2015. 「수교 25주년, 한·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KIEP오늘의세계경제 Vol.15 No.9.
- Sanders, Alan J. K. 2010. *Historical Dictionary of Mongolia*. Scarecrow Press.
- World Bank. 2014. *Mongolia country profile 2013*.
- 외교부. 2019. 「제 3차 한-몽 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도자료. (1월 16일).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몽골 인민공화국 간의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1956. 11. 4. 체결)
- 「이 총리 "한-몽골 수교 30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2019. 『NEWSIS』, (3월 26일)
- 「한·몽골 정상회담...‘경제동반자 협정’추진 합의」. 2016. 『경향신문』, (7월 17일)
- 「Mongoliin unen」 2019년 12월 20일 자.
- 「Undesnii medee」, 2016년 11. 22일 자.
- 「Unuudur」 2020년 1월 3일 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몽골국의 한국사 연구 현황

Ts. 체렌도르지(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학민속학연구소)

## 1. 서론

몽골인과 한국인의 선조들은 적어도 2천 년 전부터 서로 교류해왔다. 양국의 역사 교류는 일반적으로 고대, 중세, 근대, 현대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고대 시기의 교류는 몽골인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흉노와 한국의 고조선과의 교류에서부터 시작하며, 몽골과 한국의 교류는 특히 13~14세기에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당시 양국 사이에는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서로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중국 지역을 정복한 몽골 원(元) 제국의 통치자들이 원래 몽골 영토로 복귀하고, 한반도 지역에는 새롭게 조선이 건국된 이후 양국의 교류관계는 이전의 고려시기에 비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교류는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고 적게나마 교류하며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지난 20세기 말에 몽골과 한국의 교류관계는 양국 정부 차원에서 다시 회복되었고, 다방면으로 심화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데 특징이 있다. 특히 몽골이 1990년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써 몽골에서는 한국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유례없이 증가하였고, 한국사 연구, 특히 몽-한 교류사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

이 글에서는 몽골에서 한국사, 특히 몽-한 교류사 연구가 몽골에서 어떤 수준에 도달하였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1990년 이전의 한국사 연구

몽골에서 연구한 한국사 연구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 전문 연구 성과

둘째, 몽골의 역사와 지역사 연구 범위에서 진행한 간접적인 연구 성과

한국사에 대해 처음으로 다룬 연구 성과는 아마르(A. Amar)의 『몽골약사』이다. 이후 『몽골인민공화국사』 1, 3권에서는 주로 몽골제국의 주변 정복 과정에서 한반도를 어떻게 지배하였는지, 당시의 몽-한 관계, 원 제국이 수행한 일본 정벌 전쟁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국 사료를 직접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련 학자들의 연구 성과들을 간접적으로 인용하였다.

몽골사 연구에서 『고려사(高麗史)』를 비롯해 한국 사료를 가장 먼저 이용한 학자는 달라이(Ch. Dalai)이다. 그는 『원 제국 시대의 몽골』이라는 연구서에서 일본 정복 전쟁에 대해 기존의 연구서들보다 더 자세히 서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려사』에서 보이는 원 제국 관련 주요 기록, 특히 당시 몽골-고려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받는다.<sup>1</sup>

1960년대 초반부터 한국학 연구 전문 인력을 처음으로 준비함으로써 1960년대 말에 몽-한 교류사를 단독으로 다룬 연구 성과들이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대학교에서 한국어

<sup>1</sup> 달라이(Ch. Dalai), 『원 제국 시기의 몽골』, 울란바토르, 1973.

전공으로 졸업한 소미야바타르(B. Sumiyabaatar)는 『몽골-한국의 민족 기원과 언어 관계 연구』<sup>2</sup>, 『13~14세기 몽골-한국 교류 문서(상권)』<sup>3</sup>이라는 연구 성과물을 출간함으로써 몽골 내 한국학 연구의 기틀을 닦았다. 소미야바타르 교수는 『몽골-한국의 민족 기원과 언어 관계 연구』에서 몽골과 한국 두 민족의 고대 역사 교류, 고대 한반도의 민족과 국가, 중앙아시아 유목민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독자적인 의견들을 제시하였는데, 지금까지도 학문적 가치가 뛰어난 연구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13~14세기 몽-한 교류 문서』에서는 1219~1254년에 작성된 관련 서신, 사료 중에서 약 200여 개의 문서를 몽골어로 번역하고, 몽골 및 외국 사료의 기록들과 비교하고 학술 주석과 설명을 붙여 출간하였는데, 1984년 출판된 『몽골인민공화국사』 1권에 위의 서적이 인용된 것은 당시 역사학자들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보여준다.

1990년 이전 몽골의 한국사 연구 상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자면, 일부 학자의 연구 성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쩌다 언급하거나 외국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단순 번역하여 인용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 3. 1990년 이후 몽골의 한국사 연구

1990년부터 몽골은 민주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하여 모든 분야의 교류관계가 확장되고 발전하였다. 이렇게 한국과의 광범위한 교류가 진행되면서 몽-한 교류사 관련 연구 성과가 증가하였고 더불어 연구의 수준도 향상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몽골-한국 연구자들 사이에 협력이 활발해짐으로써 기존에는 구독하기 어려웠던 연구서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한국에서 출간된 연구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소미야바타르는 단국대학교에 교환교수로 재직할 때 『13~14세기 한국-몽골 교류 문서』의 개정판을 출간하였다.<sup>4</sup>

또 연구자 하과(B. Lkhagva)는 『13~14세기 몽골-한국 관계의 특징과 영향, 그 발자취』라는 주제로 1995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과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은 이후 『몽골-한국 관계의 전통』이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며, 이는 중세 몽골-한국 교류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첫 번째 연구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5</sup>

또한 아카데미 원사 달라이(Ch. Dalai)는 중국, 몽골, 한국의 사료를 바탕으로 간략한 연구서를 출간하였는데, 이 책에는 몽골-한국의 고대, 중세 시기의 역사적 교류를 새롭게 평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sup>6</sup>

1990년대부터 몽골의 한국학 연구사에 나타나는 특징은 몽골에서 한국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들 중 일부는 몽골-한국 교류사 전공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예를 들면, 몽골국립대학교 교수 바트투르(J. Battur)는 2000년에 『20세기 몽골-한국 관계의 주요 문제(1910~1950)』라는 주제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제 전환

<sup>2</sup> 소미야바타르(B. Sumiyabaatar), 『몽골-한국 민족의 기원과 언어 소통』, 울란바토르, 1975.

<sup>3</sup> 소미야바타르, 『13~14세기 몽골-한국 교류 문서(초판)』, 울란바토르, 1978.

<sup>4</sup> 소미야바타르, 『中世韓蒙關係史-文獻篇』(개정증보판), 단국대학교출판부, 1992.

<sup>5</sup> 하과(B. Lkhagva), 『몽골-한국 교류 전통』, 서울, 1996.

<sup>6</sup> 달라이, 『고대 몽골-한국의 역사 교류』, 울란바토르, 1998.

이후의 몽골-한국 교류사에 대한 연구서와 논문집<sup>7</sup> 등을 발간하였다. 바트투르 교수의 연구서에는 1910~1920년대에 몽골을 방문한 한국인들의 활동, 소련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이 몽골 국적의 시민이 되기를 희망하였으며, 당시 몽골에서 한국 현대사 관련 책을 번역했던 일 등 1910~1960년대 몽골-한국 교류 관련 역사를 상세하게 연구하였다. 또한, 현대 시기인 1990년 이후 몽골-한국 교류사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신상균과 하이산다이(L. Khaisandai) 등의 학자들도 있다.<sup>8</sup>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몽골에서는 중세 몽골-한국 교류사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고, 몽골 제국(원)-고려 간 교류를 주제로 한 많은 연구 성과가 발간되고 있다.

연구자 에르덴치멕(G. Erdenechimeg)은 중세 몽-한 교류, 그중에서도 원-고려 간 혼인을 다룬 『13~14세기 몽골-한국 교류에서 혼인이 끼친 영향』이라는 주제의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학술 논문, 발표문<sup>9</sup> 등을 발간하였으며, 해당 연구를 더욱 심화하여 2016년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sup>10</sup> 또한, 에르덴치멕은 몽골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사 교과서를<sup>11</sup> 집필하였는데, 이는 관련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연구자 체렝도르지(Ts. Tserendorj)는 한국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14세기 말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북원-고려 관계』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sup>12</sup> 이 연구는 몽골인들이 원래의 몽골초원으로 복귀한 1368년부터 1388년까지의 몽골-한국 교류사를 단독으로 연구한 첫 연구 성과이다. 이 밖에도 체렝도르지는 중세 몽골-한국 교류사를 주제로 한 많은 논문을

<sup>7</sup> 바트투르(J. Battur), 『20세기 몽골-한국 관계(1910-1930년)』, 울란바토르, 2000; 바트투르, 『20세기 몽골-한국 관계(1948~1961)』, 울란바토르, 2004(한국에서는 바트투르 지음, 현대몽골연구원 옮김, 『20세기 한국-몽골 관계사』, KM미디어, 2011로 번역되어 출판); 바트투르, 『한국학 논문집』, 울란바토르, 2002; 바트투르, 「1920-1940년 몽골 언론에서의 한국 관련 보도」, 『제2회 몽골-한국 공동학술회의 논문집』, 울란바토르, 2001; 바트투르, 「한국전쟁 당시 몽골-북한 교류」, 『몽골-한국 외교관계 수립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집』, 울란바토르, 2000; 바트투르, 「한국인들이 복드 칸에 보낸 서신」, 『제3회 몽골-한국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울란바토르, 2001; 바트투르, 「몽골 역사에서의 한국 이미지」, 『몽골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술회의 발표집』 245(24)-역사(IV), 울란바토르, 2005; 바트투르, 「중세 시기 몽골 역사서에서 나타난 한국 관련 문서」, 『몽골-한국 외교관계 수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울란바토르, 2011.

<sup>8</sup> 신상균·하이산다이, 『한국-몽골 교류 협력(1990~2002)』, 울란바토르, 2003.

<sup>9</sup> 에르덴치멕(G. Erdenechimeg), 「고려 시대 몽골여왕들의 경제적 후원」, 『학술논문』 170(1), 몽골국립대학교 외국어문화대학, 울란바토르, 2001; 에르덴치멕, 「원-고려간 친족관계」, 『몽골-한국 학술협력의 현재와 미래 학술회의 자료집』, 울란바토르, 2010; 에르덴치멕, 「고려 충렬왕의 부인, 제국대장공주의 경제 활동」, 『몽골-한국 외교관계 수립 20주년 학술회의 자료집』, 울란바토르, 2011; 에르덴치멕, 「고려 충렬왕의 부인, 제국대장공주의 정치 활동」, 『몽골국립대학교 한국학전공 설립 20주년 학술회의 자료집』, 울란바토르, 2011; 에르덴치멕, 「고려가 원에 보낸 공녀와 그 특징」, 『한국학』 2(6), 2019.

<sup>10</sup> 에르덴치멕, 「몽골-한국 교류에서 정치적 혼인의 의무」, 국제지역학 박사학위논문, 울란바토르, 2016.

<sup>11</sup> 에르덴치멕, 『한국사』 I, II, 울란바토르, 2006.

<sup>12</sup> 체렝도르지, 『14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북원과 고려의 관계』,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0.

발표하였다.<sup>13</sup>

연구자 아리온바이갈(B. Ariunbaigali)은 ‘13세기 몽-한 교류 문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다음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sup>14</sup> 2018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sup>15</sup>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한 전문 연구서를 발간하였다.<sup>16</sup>

위에서 언급한 역사학 연구 성과 이외에도 지역사를 연구한 전문 연구서 중에서 몽골과 한국의 역사와 문화 교류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여 연구한 학자들 중에는 나찰도르지(Sh.

---

<sup>13</sup> 체렌도르지, 「고려의 왕, 왕비 명칭의 재검토」, 『몽골학: 몽골국립대학교 학술대회 논문집』 28(294), 울란바토르, 2008; 체렌도르지, 「아요시리다라 카안이 1373년 고려왕에 보낸 문서와 북원-고려 관계」 Acta Historica, 몽골국립교육대학교 역사사회학대학 학술지, 10, 울란바토르, 2009; 체렌도르지, 「공민왕 시대의 북원-고려 교류」 『제10회 국제 몽골학자대회』, 울란바토르, 2011; 체렌도르지, 「몽골-고려 관계 수립」, Acta Historica, 몽골국립교육대학교 역사사회학대학 학술지, №15, 울란바토르, 2014; ツェレンドルジ, 「北元と高麗との関係に関する考察-禡王時代の関係を中心に」, “蒙古襲来と13世紀モンゴル帝国のグローバル化”, 第2回 日本・中国 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 2017年 8月 7日~9日, 北九州; 체렌도르지, 「몽골-한국 고대, 중세 문화 교류 약사」, 『몽골문화예술학』 №27, 울란바토르, 2018, pp.108~115; 체렌도르지, 「한국 내 몽골의 역사적 기념물」, 『과학과 삶』, 울란바토르, 2018.

<sup>14</sup> 아리온바이갈(B. Ariunbaigali), 「한국-몽골 교류 문서와 1270년 백룡일 고려왕이 원에 보낸 서신」, 『응용언어학 학술지』 특별호, 몽골과학기술대학교, 울란바토르, 2010; 아리온바이갈, 「1270년 고려에서 몽골에 보낸 정부 서신」, 몽골국립대학교 외국어대학 석사학위논문, 울란바토르, 2011; 아리온바이갈, 「13세기 몽골-한국 교류 흐름과 1270년 봄 몽골에 보낸 서신」, 『몽골인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연구』, 한국몽골학회 제34회 국제학술회의, 서울, 2014; 아리온바이갈, 「신미(辛未)년 봄 첫 달 병자(丙子)일 고려왕이 쿠빌라이 카안에 보낸 서신」 『아시아학 국제학술대회』, ICAS, 2016, vol. II; 아리온바이갈, 「『고려사』와 몽골 관련 문서」, 『아시아학 국제학술대회』, ICAS, 2017 vol. III; 아리온바이갈, 「외교 문서를 통해 본 몽골제국 공문서 작성제도 전통」, Beyond the cultural border of the East Asia 국제학술회의, “Beyond the cultural border of the East Asia” 2016 International seminar; 아리온바이갈, 「1270년 2월 고려 왕이 쿠빌라이 카안에 보낸 서신」, 『몽골, 한국 외교관계 수립 25주년, 국제 울란바타르대학교 설립 20주년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울란바토르, 2015; 아리온바이갈, 「몽골의 역사와 관련된 한국 사료」, 『역사학』 №43-44, 울란바토르, 2015; 아리온바이갈, 「『고려사』 연구」, 『외국어와 문화』 450(20); 아리온바이갈, 「외국 서신에 반영된 몽골 제국 공문서(신미년 봄 첫 달 병자일 고려왕이 보낸 쿠빌라이 카안의 문서를 중심으로)」, 『한국학』, 몽골과학아카데미 국제교류연구소 학술회의집 №1, 울란바토르, 2016; 아리온바이갈, 「고려사에 기록된 몽골 카안네 칙령문서 번역 연구(1270~1280 он) (УКАЗЫ И ГРАМОТЫ МОНГОЛЬСКОГО ХАНА В «ИСТОРИИ ДИНАСТИИ КОРЕЯ»: ПЕРЕВОД И ИССЛЕДОВАНИЕ)」,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칼미크인문학연구원,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칼미크인문학연구소 논문집』 №6, 2017; 아리온바이갈, 「몽골 역사 관련 한국 사료」 1(5), 2018; 아리온바이갈, 「고려왕이 몽골 카안에 보낸 서신(1270~1280)」, 『한국학』 2(6), 2019.

<sup>15</sup> 아리온바이갈, 『몽골-한국 교류사의 사료로서의 “고려사”(1270-1280년 몽골-한국 교류 문서를 중심으로)』, 국제학 박사학위논문, 몽골국립대학교, 2018.

<sup>16</sup> 아리온바이갈, 『고려사에 나타난 몽골-한국 교류 문서』, 울란바토르, 2021.

Natsagdorj),<sup>17</sup> 달라이(Ch. Dalai),<sup>18</sup> 몽흐체첵(T. Munkhtsetseg),<sup>19</sup> 보르(J. Bor),<sup>20</sup> 올람바야르(D. Ulambayar),<sup>21</sup> 바트바야르(Ts. Batbayar),<sup>22</sup> 샹다르수렝(Ts. Shagdarsuren)<sup>23</sup>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올람바야르 교수의 『몽골과 극동지방』의 경우, 20세기 몽골-한반도(몽골-북한, 몽골-한국)의 교류사를 당시의 세계, 특히 아시아 정세와 국제관계를 배경으로 밝히려 했다는 점에서 내용면에서도 범위면에서도 20세기 몽골-한국 교류사 연구물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몽골의 역사』 5권본(2003), 『몽골군 약사』(1995), 『몽골제국의 대외 관계』(1995), 『몽골 원 제국』 등 공동 연구서에는 양국의 교류사, 문화, 군대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몽골제국의 대외 관계』를(몽골-한국 교류 부분은 하과 교수가 저술) 제외하면, 한국학 전공자가 저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 사료나 연구 성과를 이용하지 않아 새로운 연구 성과는 되지 못했다.

또한, 몽골-한국의 역사, 문화 교류를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방면으로 연구한 학자들로는 체데브(D. Tsedev),<sup>24</sup> 소미야바타르(B. Sumiyabaatar),<sup>25</sup> 볼드바타르(J. Boldbaatar),<sup>26</sup> 오치르(A.

---

<sup>17</sup> 나차도르지(Sh. Natsagdorj), 『쿠빌라이의 지혜』, 울란바토르, 1998.

<sup>18</sup> 달라이, 『몽골의 역사(1260~1388)』, 울란바토르, 1992.

<sup>19</sup> 몽흐체첵, 『13~14세기 몽골-일본 관계』, 울란바토르, 2004.

<sup>20</sup> 보르, 『몽골-유라시아 외교 역사서』 I, II, 울란바토르, 2004; 보르.올람바야르, 『몽골 외교 백과사전』(A-II), 울란바토르, 2013; 보르.올람바야르, 『몽골 외교 백과사전』(K-P), 울란바토르, 2014; 보르.올람바야르, 『몽골 외교 백과사전』(C-Я), 울란바토르, 2015; 보르.올람바야르, 『몽골 외교 백과사전』(개정판), 울란바토르, 2016.

<sup>21</sup> 올람바야르, 『몽골, 극동지방: 국제 교류, 지정학, 외교 활동(19세기 말~20세기 중반)』, 울란바토르, 2013; 올람바야르, 『몽골, 극동지방: 지정학, 외교 활동, 안보(20세기 후반부)』, 울란바토르, 2020.

<sup>22</sup> 바트바야르, The dynamic decade, Ulaanbaatar, 2019; 바트바야르, 『몽골과 20세기 열강』, II권(1950~2000), 울란바토르, 2020.

<sup>23</sup> 샹다르수렝, 『몽골의 문자』, 울란바토르, 2001.

<sup>24</sup> 체데브, 「몽골-한국의 종교, 문화 교류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학』 1(1), 1992.

<sup>25</sup> 소미야바타르, 「삼국시대 기념비에 기록된 몽골 문자」 2, 『제2회 몽골-한국 공동학술회의』, 울란바토르, 2001; 소미야바타르, 「삼한 지역에서의 몽골 비문」, 『몽골-한국 외교관계 수립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집』, 울란바토르, 2000; 소미야바타르, The Mongolian-Korean correspondence relation and international Mongolianology, "The promo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mmunity of Korea-Mongolia", Seoul, 2010.

<sup>26</sup> 볼드바타르, 「몽골-한국의 정치 교류(1991~2001)」, 『제2회 몽골-한국 학술회의 자료집』, 울란바토르, 2001; 볼드바타르, 「1920~1930년대의 몽골-한국 관계」, 『대한민국 독립운동과 몽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울란바토르, 2001.

Ochir),<sup>27</sup> 삭다르수렝(Ts. Shagdarsuren),<sup>28</sup> 출몬(S. Tsolmon),<sup>29</sup> 히식트(N. Khishigt),<sup>30</sup> 폰삭(A. Punsag)<sup>31</sup> 등이 있다.

최근 몇 년간 몽-한 교류사를 주제로 출간된 연구 성과물로는, 출몬 교수가 저술한 몽골 사료에 나타난 몽골-한국 교류상,<sup>32</sup> 소미야바타르 교수가 저술한 쿠빌라이 칸 시대 몽골-한국 교류 관련 한국 사료,<sup>33</sup> 하과 박사가 저술한 한반도 분할의 원인, 한반도 통일 가능성과 그 추세, 변화와 관련하여 통일에 대한 몽골인들의 전망,<sup>34</sup> 몽골-한국 역사학고고학자 협회에서 발간한 1945~1950년 몽골 신문 보도 중 몽골-한국 교류 관련 자료, 연구물,<sup>35</sup> 세미나 자료,<sup>36</sup> 대학생을 위한 한국사 교과서,<sup>37</sup> 학술대회 세미나 자료집<sup>38</sup> 등이 있다.

또 선임 외교관 롬보(J. Lombo),<sup>39</sup> 우르진르훈데브(P. Urjinkhudev)<sup>40</sup>의 연구물에서는 20~21세기 몽골-한국 교류사 연구를 위한 의미 있는 자료가 사용되었다.

2010년 이후 연구 성과에 나타난 중요한 경향 중 하나는 13~14세기 이전과 그 이후 시대의 몽-한 교류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양국 교류사 연구 범위를

<sup>27</sup> 오치르, 「몽골과 한국의 관계에 대하여」, 『고구려발해연구』 제18집, 서울, 2004.

<sup>28</sup> 삭다르수렝, 「몽골-한국의 역사적 문제」, 『몽골-한국 외교관계 수립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논문집』, 울란바토르, 2000.

<sup>29</sup> 출몬, 「몽골군의 충주성 침략」, 『하르 술드』, 울란바토르, 2003; S.Tsolmon, ‘Cultural exchange between Goryeo and Mongolia’ “Revising Korea-Mongolia relations”, 『몽골과학아카데미. 동북아시아역사재단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울란바토르, 2009; S.Tsolmon, ‘Some issues about taxation from Koryo during the Mongolian Great empire’, The promo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mmunity of Korea-Mongolia, Seoul, 2010.

<sup>30</sup> 히식트, 「코민테른의 동방정책: 몽골-한국 혁명공산주의 조직의 출현」, 『제3회 몽골-한국 공동학술회의』, 울란바토르, 2002; N. Khishigt, A political situation in Mongolia during the Baron Ungern’s regime, Haman, 2009; 히식트, 「몽골-한국 관계의 첫 도약 (1910-1920년대)」, “Revising Korea-Mongolia relations”, 『몽골과학아카데미.동북아시아역사재단 공동학술회의』, 울란바토르, 2009; 히식트, 「몽골-한국 외교관계사 관련 문서 개요」, 몽골-한국 역사학고고학자협회 주관 『외교관계 수립 25주년, 몽골-한국 협력의 새로운 계획 학술회의 논문집』, 서울, 2015.

<sup>31</sup> 폰삭, 『대원 초기의 몽골-한국 정치적 교류의 특징: 대원의 역사 기록』, 울란바토르, 2010; 폰삭, 「토곤테무르 카안의 역사: 중국 사료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Revising Korea-Mongolia relations”, 몽골과학아카데미.동북아시아역사재단 공동학술회의, 울란바토르, 2009.

<sup>32</sup> 출몬.박원길, 『몽골-한국 교류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서울, 2014.

<sup>33</sup> 소미야바타르, 『쿠빌라이 카안 시대의 몽골-한국 관계』, 울란바토르, 2015.

<sup>34</sup> 하과, 『통일 한국을 기원하며』, 울란바토르, 2015.

<sup>35</sup> 체렌도르지 편, 『몽골-한국 관계: 역사와 사료(1945~1990)』, 울란바토르, 2015.

<sup>36</sup> 한몽 역사학고고학자협회, 『몽골-한국의 역사적 관계 검토』, MCTAX 학술회의 세미나 자료집, 울란바토르, 2015.

<sup>37</sup> 여병무, 『한국의 역사』, 론지드, 체렌도르지 감수, 울란바토르, 2015.

<sup>38</sup> 『푸른 늑대와 불곰의 자손』, 동북아역사재단, 울란바토르, 2019.

<sup>39</sup> 롬보, 『몽골-한국 관계 10년』, 울란바토르, 2000; 롬보, 『몽골-한국 관계의 어제, 오늘, 내일』, 울란바토르, 2011; 롬보, 『몽골-한국 관계 30년』, 울란바토르, 2020; 롬보, 『몽골-북한의 관계 61년』, 평양, 2007; 롬보, 『몽골-북한의 관계 70년』, 울란바토르, 2018.

<sup>40</sup> 우르진훈데브, 『주변국과의 동반자로서의 역사』, 울란바토르, 2019.

몽골제국 이전과 이후로 확장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연구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몽골 학자들은 몽골 제국 이후, 즉 조선 시대의 몽골-한국 교류, 특히 몽골 역사 관련 한국 사료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고, 학술대회 논문,<sup>41</sup> 발표문<sup>42</sup> 등을 출간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차세대 신진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득을 장려하고 있다. 그 예로,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사역원의 몽골어 교육 관련 내용 연구 및 당시 조선의 대몽골 정책,<sup>43</sup> 청나라에 방문한 조선 수행원의 기록인 『연행록』을 통한 17~18세기 몽골-한국 교류사 관련 문서 연구를 통한 교류상 구체화,<sup>44</sup> 20세기 한국 신문에 나타난 몽골 및 몽골-한국 교류 관련 문서 수집<sup>45</sup> 등의 주제에 대해 신진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연구의 다른 주요 방향 중 하나는 고대 몽-한 교류사인데, 이제까지 해당 시기의 역사를 재검토하는 작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해당 분야의 연구는 적지만 진전이 있었는데, 몽-한 교류사, 그중에서도 몽골 영토에 있었던 흉노, 선비, 유연, 돌궐, 거란 등의 국가들과 한국의 고구려, 발해 교류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한 첫 단행본,<sup>46</sup> 논문,

<sup>41</sup> 체렌도르지, 「몽골 타이송 칸이 1442년 조선 세종대왕에게 보낸 문서」, 『역사학』 40, 울란바토르, 2010; 체렌도르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보관된 만주어 문서 연구(1725년 문서를 중심으로)」 『역사학』 41-42, 울란바토르, 2012; 체렌도르지, 「만주 지배기 몽골사 관련 한국원전 정보」, CNEAS Reports 13, 『청과 몽골』, 일본, 센다이, 2014; 체렌도르지, 「한국 사료에 나타난 14~15세기 몽골 관련 문서」, 『한국학』 1(5), 2018, pp.10~26; 체렌도르지, 「명나라에 대항한 몽골인들의 침략이 조선 방위정책에 끼친 영향」, 『한국학』 2(6), 2019; 체렌도르지, 「한국 사료에 나타난 14~15세기 몽골 관련 문서(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역사학』 №48, 울란바토르, 2019; 체렌도르지, 「몽골군의 조선 침략 전쟁 참여」, 『외국어 문화학』 528(24), 2020, pp.91~102.

<sup>42</sup> 출문(S.Tsolmon). 체렌도르지, 「몽골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서술」, “A Proposal for a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Mongolia” 몽.한포럼, 울란바토르, 2012. 5. 22; 체렌도르지, 「만주 지배기 몽골사 관련 한국 사료 정보」, 『청과 몽골 국제학술회의』, 울란바토르, 2012. 9. 7; 체렌도르지, 「한국 사료에 나타난 오이라드 왕」, 『오이라드 연구: 역사문화 활동가 국제학술회의』, 홉드, 2012. 9. 20~9. 23; 체렌도르지, 「몽골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 1368~1911년」, 『몽골-한국의 상호 이해』 몽골-한국 공동학술회의, 서울, 2013. 5. 09~10; 체렌도르지, 「몽골 군대의 조선 전쟁 참전」, 『몽골국립대학교 몽골국립교육대학교 몽골과학기술대학교 주관 제5회 아시아학 국제학술회의』, 울란바토르, 2019. 5. 10; 체렌도르지, 「15~18세기 한국 서적에 나타난 몽골 역사 관련 문서 (장주의 여진족 거주지 여행기)」,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고고학연구소, 국제몽골학연구소,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주관 『몽골인들의 문화유산: 수기 기록과 기록문서 모음』 국제학술회의, 울란바토르, 2019. 04. 18~19.

<sup>43</sup> 히식체렝(Ts. Khishigtseren),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몽골 관련 문서의 검토」, 몽골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문과학전공 석사학위논문, 울란바토르, 2017.

<sup>44</sup> 몽흐빌궁(B.Munkhbilguun), 「청나라 방문 한국 사신의 기록에 나타난 몽골인들(17~18세기)」, 몽골국립교육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석사학위논문, 울란바토르, 2017; 몽흐빌궁, 「연행록(燕行錄): 몽골 중세사 사료」, 『한국학』 1(5), 2018.

<sup>45</sup> 아리온자야(L. Ariunzaya), 「한국 언론에 나타난 몽골 관련 보도(1895~1945)」, 몽골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문학 석사학위논문, 2019.

<sup>46</sup> 체렌도르지, 『고대 몽골-한국 관계』, 울란바토르, 2020.

발표문<sup>47</sup>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최근 연구의 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한국 사료 번역 및 해설본<sup>48</sup>을 출판하였는데, 이는 몽-한 교류사의 심화 연구에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4.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몽골 내 몽-한 교류사 연구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제까지의 주된 연구 주제는 중세 및 근대 시기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고대 및 15~18세기 역사를 주제로 한 연구물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1990년 이전에는 한국학 전공 전문 인력이 부족하였음에도 일부 학자들의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한국사 연구는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향상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관련 연구자의 수가 증가하고, 연구 주제의 확장과 더불어 질적인 진보가 있었다. 이렇게 몽골 내 한국사 연구 분야에서는 큰 진보가 있었으나 연구 주제는 양국 교류사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한국학 연구 초창기에는 순수하게 한국사를 연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가장 친숙한 주제, 다시 말해 교류사를 연구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일이었다.
- 한국에서는 해외에 있는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데 가장 주목해 왔는데, 이는 몽골 학자들이 몽-한 교류사를 연구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 몽골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사 전공 연구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연구소가 없다. 이로 인해 어느 쪽으로든 유동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교류사를 연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역사를 제외하면 한국사는 몽골사와 비교할 때 세계사에서의 역할, 위상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사 연구에 어려움을 동반한다.
- 한국은 한자 문화권 국가이다. 그러나 몽골인들은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세기 이전의 한국사를 연구하는데 몽골인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몽골-한국 교류사 연구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아래의 의견을 제안한다.

- 몽골-한국 교류사 연구를 위해 먼저 핵심이 되는 주요 한국사 관련 사료의 몽골어 번역본을 출간하고, 학문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무엇보다 양국 교류사에서 가장 정점이었던 13-14세기 교류사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물을 집필해야 한다. 더불어 그 이후의 시기인 15-19세기 초까지의 교류사 연구물을

<sup>47</sup> 체렌도르지, 「고대 몽골과 한국의 관계-몽골계 국가들과 고구려 및 발해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 주관, “고구려와 몽골의 관계” 제3회 국제학술회의, 구리, 2016. 12. 12; 체렌도르지, 「돌궐-한국 관계」, 몽골국립대학교 몽골국립교육대학교 몽골과학기술대학교 공동주관, 제3회 아시아학 국제학술회의, 울란바토르, 2017. 04. 14; 체렌도르지, 「고대 몽골-한국 관계: 몽골계 국가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의 교류를 중심으로」,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세종학당 주관, 『몽골-한국 외교 수립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울란바토르, 2020. 10. 29.

<sup>48</sup> 일연, 『삼국유사』, 체렌도르지·강톨가(J. Gantulga) 번역, 울란바토르, 2009; 유득공, 『발해고』, 체렌도르지 번역, 울란바토르, 2014; 『삼국사기』 제1권, 체렌도르지 번역, 울란바토르, 2019.

집필하고 관련 사료를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몽-한 교류사는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지만 이와 더불어 순수 한국사 연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사 연구의 발전을 통해 몽-한 교류사도 더욱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н судалгааны өнөөгийн байдал

Ц. Цэрэндорж (ШУА-ийн Түүх, угсаатны зүйн хүрээлэн)

## Оршил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чуудын өвөг дээдэс дор хаяж 2000 гаруй жилийн өмнөөс харилцаж эхэлжээ. Хоёр улсын түүхэн харилцааг ерөнхийд нь эртний, дундад үеийн, шинэ үеийн, орчин үеийн харилцаа хэмээн үечилж болно.

Эрт үеийн харилцаа нь монголчуудын өвөг гэж үздэг Хүннү, Солонгосын Эртний Чосөнх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аас эхтэй бөгөөд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 XIII-XIV зууны үед маш эрчимтэй хөгжиж байлаа. Энэ үед хоёр орны хооронд улс төр, эдийн засаг, соёл тэргүүтэй олон салбарын харилцаа нэн эрчимжиж, харилцан нөлөөлж байсан билээ.

Харин Хятадыг эзлэн ноёрхож байсан Монголын Юань улсын эрх баригчид эх нутагтаа эргэн ирж, Солонгосын хойгт Чосөнх хэмээх шинэ улс байгуулагдсанаас хойш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 өмнөх үеийг бодвол саарч эхэлсэн юм. Гэсэн хэдий ч хоёр орны харилцаа бүрмөсөн тасралгүй, их бага хэмжээгээр харилцсаар XX зууны эхэнтэй золгожээ.

Өнгөрсөн зуунд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 төр засгийн төвшинд дахин сэргэж, олон талаар гүнзгийрч байгаа нь энэ үеийн харилцааны гол онцлог юм. Ялангуяа Монгол улс 1990 онд БНСУ-тай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р солонгос хэл,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 соёлыг сонирхон судлах явдал урьд байгаагүйгээр нэмэгдэж,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н судалгаа, ялангуяа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н судалгаа хөгжлийн шинэ шатанд гарсан билээ.

Тус илтгэлд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 ялангуяа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н судалгаа Монгол улсад ямар байдалтай байгаа талаар тоймлон өгүүлэхийг зорив.

## 1990 оноос өмнөх судалгаа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г судалсан судлаачдын бүтээлийг 2 үндсэн бүлэгт зааглан үзэж болно.

*Нэгдүгээрт: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г тусгайлан судалсан бүтээл*

*Хоёрдугаарт: Монголын болон бүс нутгийн түүхийн судалгааны хүрээнд дам хөндөн судалсан бүтээл*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н талаар анхлан дурдсан бүтээл бол А.Амарын “Монголын товч түүх” юм. Түүнээс хойш “БНМАУ-ын түүх” 1, 3 ботиудад Солонгосын тухай өгүүлэхдээ голчлон Монголын эзэнт гүрний байлдан дагууллын явцад Солонгосыг хэрхэн эзэлсэн, тухайн үеийн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 Юань улсын зүгээс явуулсан Японыг эзлэх аян дайны талаар товч дурдсан байна. Гэвч тухайн үед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н сурвалж бичгийг ашиглаж чадалгүй, Зөвлөлтийн эрдэмтдийн судалгааг дам ашиглаж байжээ.

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г судлахдаа “Корйөса” тэргүүтэн солонгос сурвалжийг хамгийн анх ашигласан хүн бол доктор Ч.Далай юм. Тэрээр “Юань гүрний үеийн Монгол” хэмээх ганц сэдэвт зохиолдоо Японыг эзлэх аян дайны талаар өмнөх зохиолуудаас илүү тодорхой өгүүлснээс гадна, “Корйөса”-д Юань гүрний талаарх чухал тэмдэглэл, ялангуяа тухайн үеийн Монгол-Корйөгийн харилцааг тодруулах эх хэрэглэгдэхүүн агуулагдаж байна гэж дүгнэсэн байдаг.<sup>1</sup>

1960-аад оны эхээр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аар мэргэжсэн анхны боловсон хүчин бэлтгэгдсэнээр 1960-

<sup>1</sup> Ч.Далай, Юань гүрний үеийн Монгол, УБ., 1973.

аад оны сүүл үеэс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г тусгайлан судалсан анхны зохиолууд гарч эхэлжээ.

БНАСАУ-д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мэргэжлээр их сургууль дүүргэсэн Б.Сумьяабаатар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туургатны угсаа гарал, хэлний холбооны асуудалд”<sup>2</sup>, “XIII-XIV зууны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бичгүүд (Тэргүүн дэвтэр)”<sup>3</sup> хэмээх нэгэн сэдэвт зохиолуудаараа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үндсийг тавьсан билээ.

Профессор Б.Сумьяабаатар багштан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туургатны угсаа гарал, хэлний холбооны асуудалд” хэмээх зохиолдоо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2 угсаатны эртний түүхэн харилцаа, эртний солонгос аймаг улсууд, Төв Азийн нүүдэлчдийн хэлхээ холбоог нарийвчлан судалж, өвөрмөц саналуудыг дэвшүүлсэн нь эдүгээ ч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ач холбогдлоо алдаагүй шилдэг бүтээлийн нэг хэвээр байна.

Харин “XIII-XIV зууны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бичгүүд” хэмээх зохиолдоо 1219-1254 онд холбогдох захидал харилцааны бичиг, түүхэн баримт сэлтийн дотроос 200 орчим мэдээ баримтыг монголоор орчуулан, монгол хийгээд харь хэлээрх сурвалжийн мэдээтэй харгуула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зүүлт тайлбар хийж хэвлүүлсэн бөгөөд 1984 онд хэвлэгдсэн “БНМАУ-ын түүх” 1 ботид дээрх зохиолыг ашигласан нь тухайн үед түүхчид тус бүтээлийг өндөр үнэлж байсныг харуулна. 1990 оноос өмнөх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н судалгааны байдлыг тоймлон хэлбэл, ганц нэг судлаачийн бүтээлийг эс тооцвол судалгааны явцад ташрамд дурдах, гаднын судлаачийн ном зохиолоос орчуулан хэрэглэхээс хэтрэхгүй байжээ.

### **1990 оноос хойшхи судалгаа**

1990 оноос эхлэн Монгол улс ардчиллын замаар замнаж эхлэхийн хамтаар БНСУ-тай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оор улс төр, эдийн засаг, соёлын тэргүүтэн бүхий л салбарт харилцаа өргөжин хөгжиж ирлээ. БНСУ-тай ийнхүү өргөн харилцаж эхэлснээр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н судалгаанд тоо, чанарын өөрчлөлт гарч эхлэв.

Энэ үеэс эхлэн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эрдэмтэн судлаачд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идэвхжсэн нь урьд өмнө нь олж үзэхэд бэрхшээлтэй байсан ном судрыг олж үзэх, ялангуяа БНСУ-д гарсан судалгааны бүтээлтэй танилцах өргөн боломжийг нээв. Тухайлбал, профессор Б.Сумьяабаатар Таньгүг их сургуульд зочин багшаар ажиллахдаа “XIII-XIV зууны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бичгүүд” хэмээх бүтээлээ нэмж засварлан, дахин хэвлүүлсэн байна.<sup>4</sup>

Мөн судлаач Б.Лхагва “XIII-XIV зууны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онцлог шинж, харилцан нөлөөлөл, түүний ул мөр” сэдвээр 1995 онд докторын зэрэг хамгаалжээ. Б.Лхагва диссертация хожим нь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уламжлалаас” хэмээх нэгэн сэдэвт зохиол болгон хэвлүүлсэн нь дундад зууны үеийн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г туушид нь авч үзсэн анхны бүтээл болсноороо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болжээ.<sup>5</sup>

Түүнчлэн академич Ч.Далай хятад,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түүхийн сурвалжид тулгуурлан, тусгай товхимол туурвиж,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эрт, дундад үеийн түүхэн харилцааг шинээр үнэлж дүгнэхийг оролджээ.<sup>6</sup>

1990-ээд оноос хойш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түүхэнд гарсан онцгой үзэгдэл бол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мэргэжилтэй боловсон хүчнийг эх орондоо бэлтгэж эхэлсэн явдал агаад тэдний

<sup>2</sup> Б.Сумьяабаатар,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туургатны угсаа гарал, хэлний холбооны асуудалд, УБ., 1975.

<sup>3</sup> Б.Сумьяабаатар, XIII-XIV зууны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бичгүүд (Тэргүүн дэвтэр), УБ., 1978.

<sup>4</sup> 수미야바아타르, 中世韓蒙關係史-文獻篇, 개정증보판, 단국대학교출판부, 1992.

<sup>5</sup> Б.Лхагва,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уламжлалаас, Сөүл, 1996.

<sup>6</sup> Ч.Далай,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эртний түүхэн харилцаа, УБ., 1998.

зарим нь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н чиглэлээр магистр, докторын зэрэг хамгаалжээ. Тухайлбал, МУИС-ийн багш Ж.Баттөр 2000 онд “XX зууны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зангилаа асуудлууд (1910-1950)” сэдвээр түүхийн ухааны докторын зэрэг хамгаалснаас гадна шинэ үеийн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н чиглэлээр нэгэн сэдэвт зохиол, өгүүллийн эмхэтгэл<sup>7</sup> туурвисан байна.

Түүний ганц сэдэвт зохиолд 1910-1920-оод оны үед Монголд ирсэн солонгосчууд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 ЗХУ-д байсан солонгосчууд Монголын харьяат болохыг хүссэн, Монголд Солонгосын орчин үеийн түүхийг орчуулж байсан гэх мэт 1910-1960-аад оны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д холбогдох түүхийг нэхэн тодруулжээ.

Мөн орчин үеийн харилцаа буюу 1990 оноос хойшхи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г нэгтгэн дүгнэх гэсэн оролдлогыг Шинь Сан Кюнь, Л.Хайсандай нарын судлаачид хийжээ.<sup>8</sup>

Шинэ зуун гарснаас хойш Монгол Улсад дундад үеийн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н судалгаа идэвхжиж, Монголын эзэнт гүрэн (Юань улс) хийгээд Солонгосын Корйё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ы сэдвээр нэлээд олон ном зохиол, зэрэг горилсон бүтээл хэвлэгдээд байна.

Судлаач Г.Эрдэнэчимэг дундад үеийн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 тэр дундаа Юань улс-Корйёгийн төрийн ураг барилдлагын талаар “XIII-XIV зууны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д төрийн ургийн барилдлага нөлөөлсөн нь” сэдвээр магистрын зэрэг хамгаалсны дээр,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өгүүлэл, илтгэлүүдийг нийтлүүлж<sup>9</sup>,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гаа улам гүнзгийрүүлэн, 2016 онд докторын зэрэг хамгаалав.<sup>10</sup>

---

<sup>7</sup> Ж.Баттөр, XX зууны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 Тэргүүн дэвтэр (1910-1930-аад он), УБ., 2000; Ж.Баттөр, XX зууны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 Дэд дэвтэр (1948-1961), УБ., 2004; (БНСУ-д 바트투르지움, 현대몽골연구원출판, 20세기 한국몽골관계사, KM미디어, 2011 нэрээр орчуулагдан хэвлэгдсэн.); Ж.Баттөр,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өгүүлүүд, тэргүүн, дэд дэвтэр, УБ., 2002.

Ж.Баттөр, 1920-1940-өөд оны Монголын хэвлэлд Солонгосын тухай өгүүлсэн нь-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мтарсан 2-р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 УБ., 2001; Ж.Баттөр, Солонгосын дайны үеийн Монгол ба Умард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 Монгол, БНСУ-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10 жилийн ойд зориулса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лын илтгэлийн эмхэтгэл, УБ., 2000; Ж.Баттөр, Солонгосчуудаас Богд хаанд ирүүлсэн захидлын тухайд -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мтарсан 3-р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 УБ., 2001; Ж.Баттөр, Монголын түүхэн дэхь Солонгосын имиж-МУИС, Нийгмий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сургуулий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ичиг, Боть 245 (24)- Түүх (IV), УБ., 2005; Ж.Баттөр, Дундад үеийн Монголын түүх бичлэгт гарах Солонгосын тухай мэдээ баримтууд -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тай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20 жилийн ойд зориулса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 УБ., 2011.

<sup>8</sup> Сан Кюнь Шинэ, Лувсангийн Хайсандай,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Солонгос Улс, Монгол Улсын хоорондын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 1990-2002, УБ., 2003

<sup>9</sup> Г.Эрдэнэчимэг, Гуулин улсын үеийн монгол хатд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түшиг тулгуур-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ичиг, Боть 170 (1) МУИС, Гадаад хэл соёлын сургууль, УБ., 2001; Г.Эрдэнэчимэг, Юань, Корйёгийн төрийн ураг барилдлаг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өнөө ба ирээдүй”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лын эмхэтгэл, УБ., 2010;

Г.Эрдэнэчимэг, Корйёгийн ван Чхүнрйөлийн хатан Хутлуг келмишийн эдийн зас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Монгол улс БНСУ-тай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20 жилийн ойд зориулса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 УБ., 2011, Г.Эрдэнэчимэг, Корйёгийн ван Чхүнрйөлийн хатан Хутлуг келмишийн улс төр - МУИС-д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салбар байгуулагдсаны 20 жилийн ойд зориулса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 УБ., 2011;

Г.Эрдэнэчимэг, Корйөгөөс Юанд охид, эмсээр барьсан алба (албаны эмс), түүний шинж чанар -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2 (6), 2019.

<sup>10</sup> Г.Эрдэнэчимэг,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д төрийн ураг барилдлагын гүйцэтгэсэн үүрэг,

Түүнчлэн Г.Эрдэнэчимэг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н сурах бичгийг<sup>11</sup> Монголд анх удаа зохиосон нь судлаач, оюутан сурагчдад нэн хэрэгтэй гарын авлага болжээ.

Судлаач Ц.Цэрэндорж БНСУ-ын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академид “XIV зууны сүүл хагасын Зүүн Азийн олон улсын байдал ба Умард Юань-Корёгийн харилцаа” сэдвээр докторын зэрэг хамгаалав.<sup>12</sup> Тус бүтээл нь Монголын эрх баригчид уугуул нутагтаа эргэн ирсэн 1368 оноос 1388 он хүртэлх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г тусгайлан судалсан анхны судалгаа юм. Түүнээс гадна Ц.Цэрэндорж дундад зууны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н асуудлаар өгүүлэл, илтгэл нийтлүүлжээ.<sup>13</sup>

Судлаач Б.Ариунбайгаль XIII зууны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бичгүүдийн судалгаагаар магистрын зэрэг хамгаалж, хэд хэдэн илтгэл, өгүүлэл нийтлүүлж<sup>14</sup>, 2018 онд докторын зэрэг

---

Олон улс, орон судлалын докторын диссертаци, УБ., 2016

<sup>11</sup> Г.Эрдэнэчимэг,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 I, II дэвтэр, УБ., 2006.

<sup>12</sup> 책메트 체령도르지, 14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북원과 고려의 관계,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0.

<sup>13</sup> Ц.Цэрэндорж, Корё улсын ван, хатдын нэрийг дахин нягтлах нь - “Монгол судлал”-МУИС, МХСС-ий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ичиг, Боть XXVIII (294), УБ., 2008; Ц.Цэрэндорж, Аюушридар хаанаас 1373 онд Корё улсын ванд илгээсэн жуу бичиг хийгээд Умард Юань, Корёгийн харилцааны асуудалд - Acta Historica, МУБИС-ийн ТНУС-ий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сэтгүүл, №10, УБ., 2009; Ц.Цэрэндорж, Конминь вангийн үеийн Умард Юань, Корёгийн харилцаа- Олон улсын монголч эрдэмтний X иххурал, УБ., 2011; Ц.Цэрэндорж, Монгол-Корёгийн харилцаа тогтсон нь - Acta Historica, МУБИС-ийн ТНУС-ий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сэтгүүл, №15, УБ., 2014. ツェレンドルジ, 北元と高麗との關係に關する考察- 禍王時代の關係を中心に- // “蒙古襲来と 13 世紀モンゴル帝国のグローバル化” 第2回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 2017 年 8 月 7 日~9 日, 北九州; Ц.Цэрэндорж,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эрт, дундад үеийн соёл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н тойм - Монголын соёл урлаг судлал, №27, УБ., 2018, 108-115-р тал; Ц.Цэрэндорж, Солонгос дахь 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н дурсгал - Шинжлэх ухаан, амьдрал, 2018.

<sup>14</sup> Б.Ариунбайгаль, Солонгос-Монгол харилцааны бичгүүд ба 1270 оны цагаан луу өдөр Гуулин улсын ван Юань улсад илгээсэн өргөх бичиг - Хавсарга хэл шинжлэл ЭШБ, Тусгай дугаар, ШУТИС, 2010; Б.Ариунбайгаль, 1270 онд Гуулин улсаас Монголд илгээсэн төрийн захидал бичгүүд, Магистрын зэрэг горилсон бүтээл, МУИС, ГХСС, УБ., 2011; Б.Ариунбайгаль, XIII зууны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өрнөл ба 1270 оны хавар монголд илгээсэн захидал - “Монголчуудын угсаа гарал ба түүхийн талаарх судалгаа”, Солонгосын Монгол судлал холбоо 34 дэх удаагийн ОУЭШХ, Сөүл, 2014; Б.Ариунбайгаль, Цагаагчин хонин жилийн хаврын тэргүүн сарын улаан хулгана өдөр Гуулин улсын вангаас Хубилай хаанд илгээсэн өргөх бичиг - Ази судлалын ОУЭШХ, ICAS 2016, volume II; Б.Ариунбайгаль, “Гуулин улсын судар” ба Монголын холбогдол бүхий мэдээ баримтууд - Ази судлалын ОУЭШХ, ICAS, 2017 volume III; В.Ариунбайгаль, 외교 문서를 통해 본 몽골제국 공문서 작성제도 전통 (Монголын эзэнт гүрний үеийн албан бичгийн уламжлал,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бичигт туссан нь) - Beyond the cultural border of the East Asia ОУЭШХ, “Beyond the cultural border of the East Asia” 2016 International seminar; Б.Ариунбайгаль, 1270 оны 2 дугаар сард Солонгосын вангаас Хубилай хаанд илгээсэн айлтгал бичиг -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25 жилийн ой, ОУУБИС-ийн 20 жилийн ойн ЭШХ, 2015; Б.Ариунбайгаль, Монголын түүхтэй холбоотой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н сурвалжууд - “Түүхийн судлал”, №43-44, УБ., 2015; Б.Ариунбайгаль, “Гуулин улсын судар”-ын тухайд - “Гадаад хэл соёл”, Боть 450 (20); Б.Ариунбайгаль, Монголын эзэнт гүрний албан бичгийн уламжлал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захидал бичигт туссан нь (Цагаагчин хонин жилийн хаврын тэргүүн сарын шарагчин туулай өдөр Гуулин улсын ванд илгээсэн Хубилай хааны жуу бичгийн жишээн дээр) -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ШУА-ийн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ы

хамгаалж<sup>15</sup>, докторынхоо ажлыг ганц сэдэвт зохиол болгон нийтлүүлэв.<sup>16</sup>

Дээр нэр дурдсан судлаачдын бүтээлээс гадна бүс нутгийн түүхийг судалсан нэгэн сэдэвт зохиолуудын дотор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 соёлын харилцааны асуудлыг хамруулан судалсан эрдэмтэн Ш.Нацагдорж<sup>17</sup>, Ч.Далай<sup>18</sup>, Т.Мөнхцэцэг<sup>19</sup>, Ж.Бор<sup>20</sup>, Д.Уламбаяр<sup>21</sup>, Ц.Батбаяр<sup>22</sup>, Ц.Шагдарсүрэн<sup>23</sup> нарын бүтээлүүд нийтлэгджээ. Тэдгээрээс профессор Д.Уламбаярын “Монгол Улс, Алс Дорно дахин” хэмээх хоймсон бүтээлийг онцлон дурдаж болох агаад ХХ зууны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Монгол Улс-БНАСАУ, Монгол Улс-БНСУ)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г тухайн үеийн дэлхий дахин, ялангуяа Азийн улстөрийн байдал,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ы фон дээр тод томруун гаргаснаараа агуулгын хувьд ч, хэмжээний хувьд ч ХХ зууны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н бүтээл гэж хэлж болохуйц ажээ.

Мөн “Монгол улсын түүх” таван боть (2003), “Монгол цэргийн түүхийн товчоон” (1995), “Монголын эзэнт гүрний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 (1995), “Монголын Юан гүрэн” зэрэг хамтын бүтээлүүдэд хоёр орны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 соёл, цэргийн түүхийн асуудлуудыг тодорхой хэмжээнд хөндөн судалсан байна. Гэвч “Монголын эзэнт гүрний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 хамтын бүтээл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алаарх хэсгийг Б.Лхагва бичсэн)-ийг эс тооцвол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мэргэжилтэй хүн бичээгүй тул эдгээр зохиолууд солонгос хэлээр буй эх сурвалж, судалгааг ашигласан, анхдагч шинжтэй судалгаа болж чадаагүй ажээ.

Түүнчлэн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түүх, соёлын харилцааны эрт үеэс өнөөг хүртэлхи олон талт

---

хүрээлэнгий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сэтгүүл, №1, УБ., 2016; Б.Ариунбайгаль, “Гуулин улсын судар дахь Монголын хааны зарлигийн бичгүүдийн орчуулга, судалгаа (1270-1280 он)”(УКАЗЫ И ГРАМОТЫ МОНГОЛЬСКОГО ХАНА В «ИСТОРИЙ ДИНАСТИИ КОРЕ»: ПЕРЕВОД И ИССЛЕДОВАНИЕ) - Орос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йн Халимагийн хүмүүнлэгийн судалгааны хүрээлэн, Орос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ы академийн Халимагийн хүмүүнлэгийн судалгааны хүрээлэнгийн эмхэтгэл, №6, 2017; Б.Ариунбайгаль, Монголын түүхтэй холбоотой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н сурвалжууд -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сэтгүүл, 1 (5), 2018; Б.Ариунбайгаль, Корей улсын вангаас Монголын их хаанд илгээсэн өргөх бичгүүд (1270-1280) -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2 (6), 2019

<sup>15</sup> Б.Ариунбайгаль, “Гуулин улсын судар”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н сурвалж болох нь (1270-1280 оны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бичгийн жишээн дээр), Олон улс судлалын докторын зэрэг горилсон зохиол, МУИС, 2018

<sup>16</sup> Б.Ариунбайгаль, Гуулин улсын судар дахь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бичгүүд, УБ., 2021

<sup>17</sup> Ш.Нацагдорж, Хубилай сэцэн, УБ., 1998.

<sup>18</sup> Ч.Далай, Монголын түүх (1260-1388), Гудгаар дэвтэр, УБ., 1992.

<sup>19</sup> Т.Мөнхцэцэг, XIII-XIV зууны үеийн Монгол, Японы харилцаа, УБ., 2004.

<sup>20</sup> Ж.Бор, Монгол хийгээд Евразийн дипломат шастир, боть I, II, УБ., 2004; Ж.Бор, Д.Уламбаяр, Монголын дипломатын нэвтэрхий толь бичиг, Тэргүүн боть, А-И, УБ., 2013; Ж.Бор, Д.Уламбаяр, Монголын дипломатын нэвтэрхий толь бичиг, Дэд боть, К-Р, УБ., 2014; Ж.Бор, Д.Уламбаяр, Монголын дипломатын нэвтэрхий толь бичиг, Гутгаар боть, С-Я, УБ., 2015; Ж.Бор, Д.Уламбаяр, Монголын дипломатын нэвтэрхий толь бичиг, Нэмж засварласан хоёрдахь хэвлэл, Гурамсан боть, УБ., 2016.

<sup>21</sup> Д.Уламбаяр, Монгол Улс, Алс Дорно дахин: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 геополитик, дипломат ажиллагаа (XIX зууны сүүдчээс ХХ зууны тэргүүн хагаст), Тэргүүн боть, УБ., 2013; Д.Уламбаяр, Монгол Улс, Алс Дорно дахин: Геополитик, дипломат ажиллагаа, аюулгүй байдал (ХХ зууны сүүлийн хагаст), Дэд боть, УБ., 2020.

<sup>22</sup> Ts.Batbayar, The dynamic decade, Ulaanbaatar, 2019; Ц.Батбаяр, Монгол ба их гүрнүүд ХХ зуунд, II боть (1950-2000), УБ., 2020.

<sup>23</sup> Ц.Шагдарсүрэн, Монголчуудын үсэг бичигийн товчоон, УБ., 2001.

асуудлаар Д.Цэдэв<sup>24</sup>, Б.Сумьяабаатар<sup>25</sup>, Ж.Болдбаатар<sup>26</sup>, А.Очир<sup>27</sup>, Ц.Шагдарсүрэн<sup>28</sup>, С.Цолмон<sup>29</sup>, Н.Хишигт<sup>30</sup>, А.Пунсаг<sup>31</sup> зэрэг эрдэмтэд ном бүтээл нийтлүүлжээ.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н сэдвээр нийтлэгдсэн бүтээлүүд гэвэл, профессор С.Цолмонгийн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 Монголын түүх бичлэгт хэрхэн туссан талаар тодорхой өгүүлсэн бүтээл<sup>32</sup>, профессор Б.Сумьяабаатарын нийтлүүлсэн Хубилай хааны үеийн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д холбогдох солонгос сурвалжийн мэдээний түүвэр<sup>33</sup>, доктор Б.Лхагвын Солонгос хуваагдсан шалтгаан, хоёр Солонгос нэгдэх боломж, чиг хандлага, өөрчлөлтийн талаар өгүүлэхдээ тэрхүү нэгдлийн талаарх монголчуудын төсөөллийг товч өгүүлсэн бүтээл<sup>34</sup>,

---

<sup>24</sup> Д.Цэдэв, Монгол ба Солонгосын шашин, соёлын харилцааны зарим асуудалд-Зүүн хойд Ази судлал, 1 (1), 1992.

<sup>25</sup> Б.Сумьяабаатар, Гурван ханы нутаг дахь гэрэлт хөшөөний монгол бичээс 2 -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мтарсан 2-р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 УБ., 2001; Б.Сумьяабаатар, Самханы нутаг дахь монгол бичээсүүдийн тухай -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10 жилийн ойд зориулса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 УБ., 2000; B.Sumiyabaatar, The Mongolian-Korean correspondence relation and international Mongolianology- “The promo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mmunity of Korea-Mongolia”, Seoul, 2010.

<sup>26</sup> Ж.Болдбаатар,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улс төрийн харилцаа (1991-2001) –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мтарсан 2-р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 УБ., 2001; Ж.Болдбаатар, 1920-1930-аад оны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БНСУ-ын тусгаар тогтнолын хөдөлгөөн ба Монгол”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лын илтгэлийн эмхэтгэл, УБ., 2001.

<sup>27</sup> А.오치르, 몽골과 한국의 관계에 대하여-고구려발해연구, 제18집, 2004.

<sup>28</sup> Ц.Шагдарсүрэн,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эн хэлхээ холбооны асуудалд – Монгол, БНСУ-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10 жилийн ойд зориулса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 УБ., 2000.

<sup>29</sup> С.Цолмон, Монгол цэрэг Чүнжү цайзыг дайлсан нь – Хар сүлд, УБ., 2003; S.Tsolmon, Cultural exchange between Goryeo and Mongolia –“Revising Korea-Mongolia relations”, ШУА, Зүүн хойт Азийн түүхийн сангаас хамтр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сан хурал, УБ., 2009; S.Tsolmon, Some issues about taxation from Koryo during the Mongolian Great empire - “The promo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mmunity of Korea-Mongolia”, Seoul, 2010.

<sup>30</sup> Н.Хишигт, Коминтерний дорно дахины бодлого: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увьсгалт коммунист байгууллагуудын үүслийн асуудалд –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мтарсан 3-р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 УБ., 2002; N.Khishigt, A political situation in Mongolia during the Baron Ungern’s regime – Haman, 2009; Н.Хишигт,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анхны алхмууд (1910-1920-иод он)–“Revising Korea-Mongolia relations”, ШУА, Зүүн хойт Азийн түүхийн сангаас хамтр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сан хурал, УБ., 2009.

Н.Хишигт, Монгол улс ба БНСУ-ын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энд холбогдох баримтын тойм –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түүхч, археологичдын холбооноос зохион байгуулсан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25 жилийн ой,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шинэ арга төлөвлөгөө” сэдэвт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лын эмхэтгэл, БНСУ, Сөүл, 2015.

<sup>31</sup> А.Пунсаг, Их Юань улсын эхэн үеийн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улс төрийн харилцааны зарим онцлог-Тэнгэрийн Их Юань улсын түүхэн тэмдэглэл, УБ., 2010; А.Пунсаг, Тогоонтөмөр хааны түүх хэмээх хятад сурвалж дахь Солонгостой холбогдох зарим мэдээний тухай–“Revising Korea-Mongolia relations”, ШУА, Зүүн хойт Азийн түүхийн сангаас хамтр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сан хурал, УБ., 2009.

<sup>32</sup> С.Цолмон, Пак Вонгил,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н судалгаа, Сөнгйүньгвань их сургуулийн Сөнгйүнь хятад судлалын хүрээлэн, УБ., 2014.

<sup>33</sup> Б.Сумьяабаатар, Хубилай их хааны үеийн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 УБ., 2015.

<sup>34</sup> Б.Лхагваа, Нэгдсэн Солонгос айсуу, УБ., 2015.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түүхч, археологичдын холбооноос эрхлэн гаргасан 1945-1990 оны хооронд Монголын сонинд гарсан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тай холбоотой мэдээ, өгүүллийн эмхэтгэл<sup>35</sup>, семинарын эмхэтгэл<sup>36</sup>, их сургуулийн оюутанд зориулсан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н сурах бичиг<sup>37</sup>,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семинарын эмхэтгэл<sup>38</sup> зэрэг болно.

Мөн ахмад дипломатч Ж.Ломбо<sup>39</sup>, П.Үржинлхүндэв<sup>40</sup> нарын бүтээлүүд ХХ-ХХI зууны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г судлахад үнэтэй эх хэрэглэгдэхүүн болох юм.

2010-аад оноос эхлэн судалгаанд гарч буй бас нэгэн өвөрмөц хандлага бол ХIII-XIV зууны үеийн Монгол-Корейг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ээс гадна, түүнээс өмнөх болон дараах үеийн түүхийг сонирхон судалж буй явдал юм. Өөрөөр хэлбэл, хоёр ул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н судалгааны цар хүрээг Монголын эзэнт гүрнээс өмнөх болон дараах үе рүү улам өргөжүүлэн тэлэх зорилгоор ийм судалгааг хийж эхэлсэн гэж үзэж болно.

Манай судлаачид Монголын эзэнт гүрний дараах үе буюу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н үечлэлээр бол Чосөнь улсын үеийн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 ялангуяа Монголын түүхэнд холбогдох солонгос сурвалжийн мэдээ баримтын талаар судалгаа хийж,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өгүүлэл<sup>41</sup>, илтгэл<sup>42</sup>

---

<sup>35</sup>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 түүх ба баримт (1945-1990), редактор Ц.Цэрэндорж, МСТАХ, УБ., 2015.

<sup>36</sup>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түүхэн харилцааг эргэн харахуй – МСТАХ-ноос зохион байгуулса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семинарын эмхэтгэл, УБ., 2015

<sup>37</sup> Йө Бйөнмү (эмх.),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 редактор З.Лонжид, Ц.Цэрэндорж, УБ., 2015.

<sup>38</sup> Хөх чоно, хүрэн баавгайн үр сад, БНСУ-ын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түүхийн сан, УБ., 2019

<sup>39</sup> Ж.Ломбо, Монгол Улс,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Солонгос Улсын харилцаа 10 жил, УБ., 2000; Ж.Ломбо,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 – Өчигдөр, өнөөдөр, маргааш, УБ., 2011; Ж.Ломбо,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арилцаа 30 жил, УБ., 2020; Ж.Ломбо, Монгол Улс, БНАСАУ-ын харилцаа: Нэгэн жаран, Пхеньян, 2007; Ж.Ломбо, Монгол Улс, Бүгд Найрамдах Ардчилсан Солонгос Ард Улсын харилцаа 70 жил, УБ., 2018

<sup>40</sup> П.Үржинлхүндэв, Ойр дайдын оронтой түншилсэн түүхээс, УБ., 2019

<sup>41</sup> Ц.Цэрэндорж, Монголын Тайсун хаанаас 1442 онд Чосөнь улсын Сэжон ванд илгээсэн сургах зарлигийн бичиг - Түүхийн судлал, Том. 40, УБ., 2010; Ц.Цэрэндорж,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академийн харьяа вангийн номын сан “Чансөгаг”-т хадгалагдаж буй манж хэлээрх баримтын судалгаа(1725 оны баримт)- Түүхийн судлал, Том. 41-42, УБ., 2012; Ц.Цэрэндорж, Манжийн эрхшээлийн үеийн Монголын түүхэнд холбогдох солонгос сурвалжийн зарим мэдээ – CNEAS Reports 13, Чин улс ба монголчууд, Япон, Сэндай, 2014; Ц.Цэрэндорж,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н сурвалж дахь XIV-XVIII зууны үеийн Монголтой холбоотой мэдээ баримт -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сэтгүүл, 1 (5), 2018, 10-26-р тал; Ц.Цэрэндорж, Мин улсын эсрэг монголчуудын довтолгоон Чосөнь улсын батлан хамгаалах бодлогод нөлөөлсөн нь -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сэтгүүл, 2 (6), 2019; Ц.Цэрэндорж,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н сурвалж дахь XIV-XVIII зууны үеийн монголтой холбоотой мэдээ баримт (“Чосөнь улсын магад тэмдэглэл”-ийн жишээн дээр) - “Түүхийн судлал”, №48, УБ., 2019; Ц.Цэрэндорж, Монгол цэрэг Чосөнь улсыг дайлахад оролцсон нь - “Гадаад хэл соёл судлал”, 528 (24), 2020, 91-102-р тал.

<sup>42</sup> С.Цолмон, Ц.Цэрэндорж, Монголын түүхийн сурах бичигт Солонгосын талаар өгүүлсэн нь – “A Proposal for a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Mongolia” сэдэвт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форум, УБ., 2012.5.22; Ц.Цэрэндорж, Манжийн эрхшээлийн үеийн Монголын түүхэнд холбогдох солонгос сурвалжийн зарим мэдээ - “Чин гүрэн ба монголчууд” сэдэвт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 УБ., 2012.9.07; Ц.Цэрэндорж,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н сурвалж дахь ойрад хаадын тухай зарим мэдээ - “Ойрад судлал: Түүх, соёлын зүтгэлтнүүд” сэдэвт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 Ховд, 2012.9.20-2012.9.23; Ц.Цэрэндорж, Монголчуудын Солонгосын талаарх ойлголт -1368-1911 он-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хоёр орон бие биеэ хэрхэн ойлгож байсан тухай” сэдэвт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мтарса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 БНСУ: Сөүл, 2013. 5. 09-10; Ц.Цэрэндорж, Монгол цэрэг

нийтлүүлэв.

Энэ хүрээнд залуу судлаачдыг татан оролцуулах, магистр, докторын зэрэг хамгаалуулах ажил ч зохих хэмжээнд өрнөж байна. Тухайлбал: “Чосөнъ улсын магад тэмдэглэл (조선왕조실록)” дэх Хэлмэрчлэхүйн хүрээлэн (사역원)-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сургалтын талаарх мэдээ баримтыг судалж, тус байгууллагаар дамжуулан тухайн үед Чосөнъ улсын зүгээс Монголын талаар явуулж байсан бодлогыг тодруулах<sup>43</sup>, Чин улсад зорчсон Чосөнъ-ий элч нарын тэмдэглэл (연행록)-ийг судалж XVII-XVIII зууны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д холбогдох баримт хэрэглэгдэхүүнийг судалгааны эргэлтэд оруулах, тухайн үеийн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дүр зургийг тодруулах<sup>44</sup>, XX зууны үеийн Солонгосын сонин хэвлэл дэх Монгол хийгээд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д холбогдох мэдээ баримтыг олж илрүүлэх, судалгааны эргэлтэд оруулах<sup>45</sup> оролдлогыг залуу судлаачид хийж эхлэв.

Судалгааны өөр нэг чухал чиглэл бол эрт үеийн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 бөгөөд энэхүү үе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г нэгдсэн байдлаар улируулан судлах ажил хангалттай хийгдээгүй явж иржээ. Харин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энэ чиглэлийн судалгаанд бага боловч ахиц гарч,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эртний харилцаа, тэр дундаа Монгол нутагт оршиж байсан Хүннү, Сяньби, Жужан, Түрэг, Хятан зэрэг төр улсууд хийгээд Солонгосын Когүрйө, Пархэг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н талаарх судалгааны үр дүнг нэгтгэн үзэж, түүний ач холбогдлыг дүгнэн цэгнэхийг оролдсон анхны ганц сэдэвт зохиол<sup>46</sup>, өгүүлэл, илтгэл гарч эхэлсэн<sup>47</sup> нь сүүлийн үеийн судалгааны нэг хандлага болоод байна.

Түүнчлэн “Турван улсын нөхсөн судар”, “Турван улсын түүхэн тэмдэглэл” тэргүүтэн

---

Чосөнъ улсыг дайлахад оролцсон нь - МУИС, МУБИС, ШУТИС-аас хамтр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сан Ази судлалын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V хурал, УБ., 2019.05.10; Ц.Цэрэндорж, XV-XVIII зууны солонгос сурвалж дахь Монголын түүхэнд холбогдох мэдээ баримтаас (Цзянчжоу-гийн зүрчидэд аялсан зурагт тэмдэглэл) - ШУА-ийн Түүх, археологийн хүрээлэн, ОУМСХ, Оросын ШУА-ийн Дорно дахины гар бичмэлийн хүрээлэнгээс хамтр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сан “Монголчуудын соёлын өв: гар бичмэл ба архивын баримтын цуглуулга” сэдэвт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 УБ., 2019.04.18-19.

<sup>43</sup> Ц.Хишигцэрэн, “Чосөнъ улсын магад тэмдэглэл” дэх Монголтой холбоотой мэдээ баримтыг нягтлах нь, МУИС, Шинжлэх ухааны сургуулийн Хүмүүнлэгийн ухааны салбарын магистрын зэрэг горилсон зохиол, УБ., 2017

<sup>44</sup> Б.Мөнхбилгүүн, Чин улсад зорчсон солонгос элч нарын тэмдэглэл дэх монголчууд (XVII-XVIII зуун), МУБИС, Нийгэм-хүмүүнлэгийн ухааны сургуулийн магистрын зэрэг горилсон зохиол, УБ., 2017; Б.Мөнхбилгүүн, Йөнхэнлог (燕行錄) Монголын дунд үеийн түүхийн сурвалж болох нь -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 сэтгүүл, 1 (5), 2018.

<sup>45</sup> Л.Ариунзаяа, Солонгосын сонин хэвлэл дэх Монголтой холбоотой мэдээ баримтууд /1895-1945/, МУИС, ШУС, ХУС, магистрын зэрэг горилсон зохиол, 2019.

<sup>46</sup> Ц.Цэрэндорж, Эртний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 УБ., 2020.

<sup>47</sup> Ts. Cheongdo, 고대 몽골과 한국의 관계 –몽골계 국가들과 고구려 및 발해의 관계를 중심으로- БНСУ-ын Когүрйөгийн түүх, соёлыг сэргээх холбоо (사)高句麗역사문화보존회-ноос зохион байгуулсан “Когүрйө, Монголын харилцаа (高句麗와 몽골의 관계)”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III хурал, БНСУ, Гүри хот, 2016.12.12; Ц.Цэрэндорж, Түрэг-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МУИС, МУБИС, ШУТИС-аас хамтра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сан Ази судлалын олон улсы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III хурал, УБ., 2017.04.14; Ц.Цэрэндорж, Эртний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 Монгол угсааны улсууд хийгээд Эртний Чосөнъ, Пүйө, Когүрйө, Пархэгийн харилцааны жишээн дээр – ОУУБИС-ийн Сэжун-I институтгээс зохион байгуулсан Монгол улс, БНСУ-ын хооронд дипломат харилцаа тогтоосны 30 жилийн ойд зориулса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хурал, УБ., 2020.10.29.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н тулгуур сурвалжийг орчуулж, зүүлт тайлбартайгаар хэвлэн нийтлүүлэх<sup>48</sup> ажил өрнөж буй агаад энэ нь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г гүнзгийрүүлэн судлах суурь болно хэмээн үзэж байна.

### **Товч дүгнэлт, санал**

Монгол дахь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н судалгааны өнөөгийн байдлыг товч танилцууллаа. Үүнээс үзэхэд өнгөрсөн үед гол төлөв дундад зууны болон шинэ үеийн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асуудалд түлхүү анхаарч иржээ. Харин сүүлийн жилүүдэд эртний болон XV-XVIII зууны үеийн түүхэнд анхаарал хандуулах нь харьцангуй идэвхжиж байна.

1990 оноос өмнө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мэргэжилтэй боловсон хүчин дутагдалтай байсан хэдий боловч зарим эрдэмтэн судлаачдын хүчин чармайлтын үр дүнд тодорхой амжилтад хүрчээ.

Харин 1990 оноос хойш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 судлал тоо, чанарын хувьд эрс дээшилсэн байна. Ялангуяа 2010-аад оноос хойш судлаачдын тоо нэмэгдэж, судалгааны хамрах хүрээ өргөжин, чанарын ахиц гарав. Ийнхүү Монгол дахь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 судлалд ихээхэн ахиц гарч байгаа хэдий ч судалгаа нь хоёр орны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н хүрээнээс төдий л халин гарч чадаагүй байна. Энэ нь дараах хэдэн шалтгаанаас үүдсэн бололтой. Үүнд:

- Солонгос судлалын эхний шатанд цэвэр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г сонирхон судлахад ихээхэн бэрхшээлтэй тул эхлээд өөртэйгээ хамгийн ойр сэдвийг, өөрөөр хэлбэл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г судлах нь хэнд ч ойлгомжтой хэрэг билээ.
- Солонгосын тал гадаадад буй Солонгостой хамаа бүхий баримт хэрэглэгдэхүүнийг олж илрүүлэх, судлахад гол анхаарал хандуулж ирсэн нь манай судлаачдыг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г сонгон судлахад нөлөөлсөн бололтой.
- Монголд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ээр мэргэжсэн хүнийг ажиллуулах ажлын байр үндсэндээ алга байна. Тиймээс аль ч тал руу хөрвөх чадвартай байхын тулд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г сонгон судалж байна гэж үзнэ.
- Нэн шинэ үеийн түүхийг эс тооцвол,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 Монголын түүхтэй харьцуулахад дэлхийн түүхэнд гүйцэтгэсэн үүрэг, эзлэх байр суурь нь харьцангуй бага гэж хэлж болно. Энэ нь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г сонирхон судлахад тодорхой хэмжээнд бэрхшээл учруулж байна.
- Солонгос бол ханз үсгийн соёлтой ард түмэн. Гэтэл монголчууд ханз үсэг хэрэглэдэггүй. Тиймээс XX зуунаас өмнөх үеийн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г судлахад монголчуудын хувьд багагүй бэрхшээлтэй тулгарч байна.

Цаашид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н судалгааг хөгжүүлэх, шинэ шатанд гаргахын тулд дараах ажлыг хийх нь зүйтэй гэж үзэж байна.

-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г судлахын тулд эхлээд түүний гол тулгуур болсон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н гол сурвалжуудыг монгол хэлээр орчуула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зүүлт тайлбартай хэвлэ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эргэлтэд оруула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на.

- Нэн тэргүүнд, хоёр орны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эн дэх хамгийн оргил үе болох XIII-XIV зууны үеий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г нарийн тусгаса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үтээлийг туурви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на. Улмаар үүний дараах үе буюу XV-XIX зууны эхэн хүртэлх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г судалсан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бүтээл туурвиж, энэ үед холбогдох сурвалж хэрэглэгдэхүүнийг судалгааны эргэлтэд оруулах нь зүйтэй.

<sup>48</sup> Ирйёнъ, Гурван улсын нөхсөн судар, орчуулсан Ц.Цэрэндорж, Ж.Гантулга, УБ., 2009; Юү Дыггон, Пархэгийн шинжлэл, орчуулсан Ц.Цэрэндорж, УБ., 2014; Гурван улсын түүхэн тэмдэглэл, I боть, орчуулсан Боржигин монход Цэгмэдийн Цэрэндорж, УБ., 2019

-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 бол судалгааны нэг чухал чиглэл мөн боловч, үүний зэрэгцээ цэвэр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г судлахад бас анхаарал хандуулах хэрэгтэй байна. Солонгосын түүхийн судалгааг хөгжүүлбэл түүнийг дагалдан 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харилцааны түүхийг улам нарийвчлан судлах боломж бас нээгдэх болн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